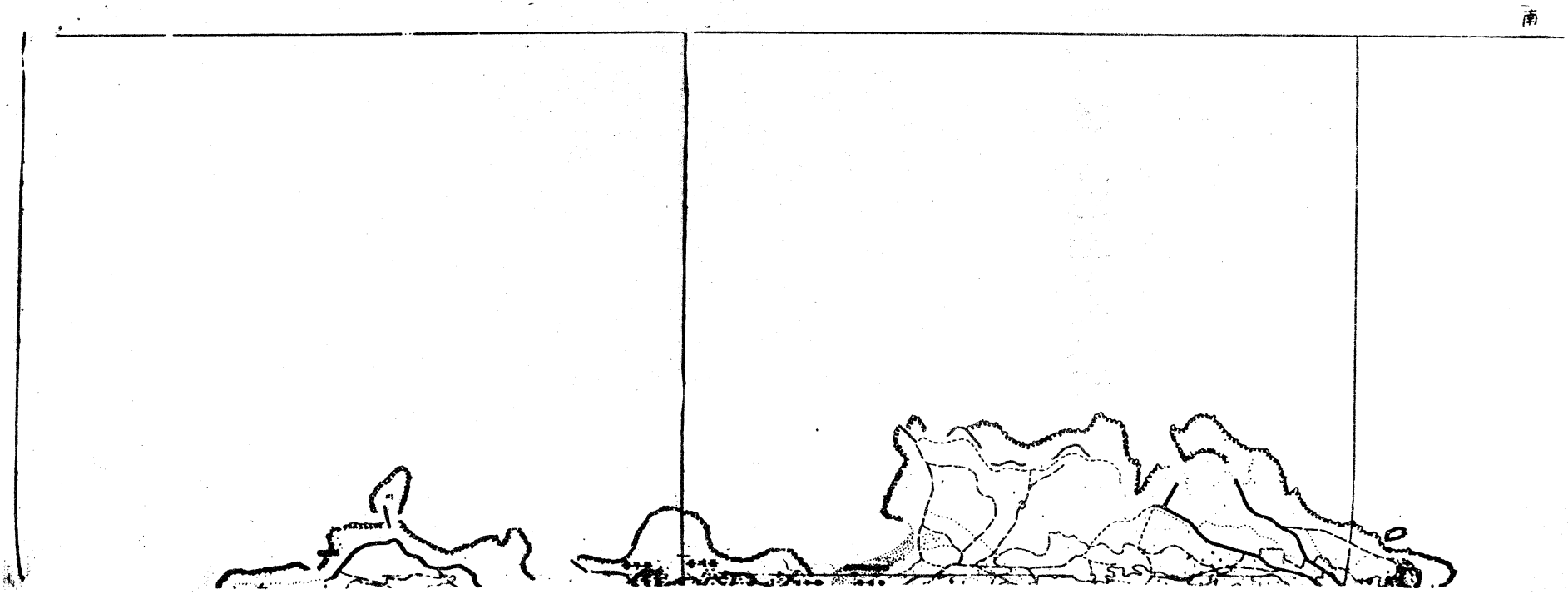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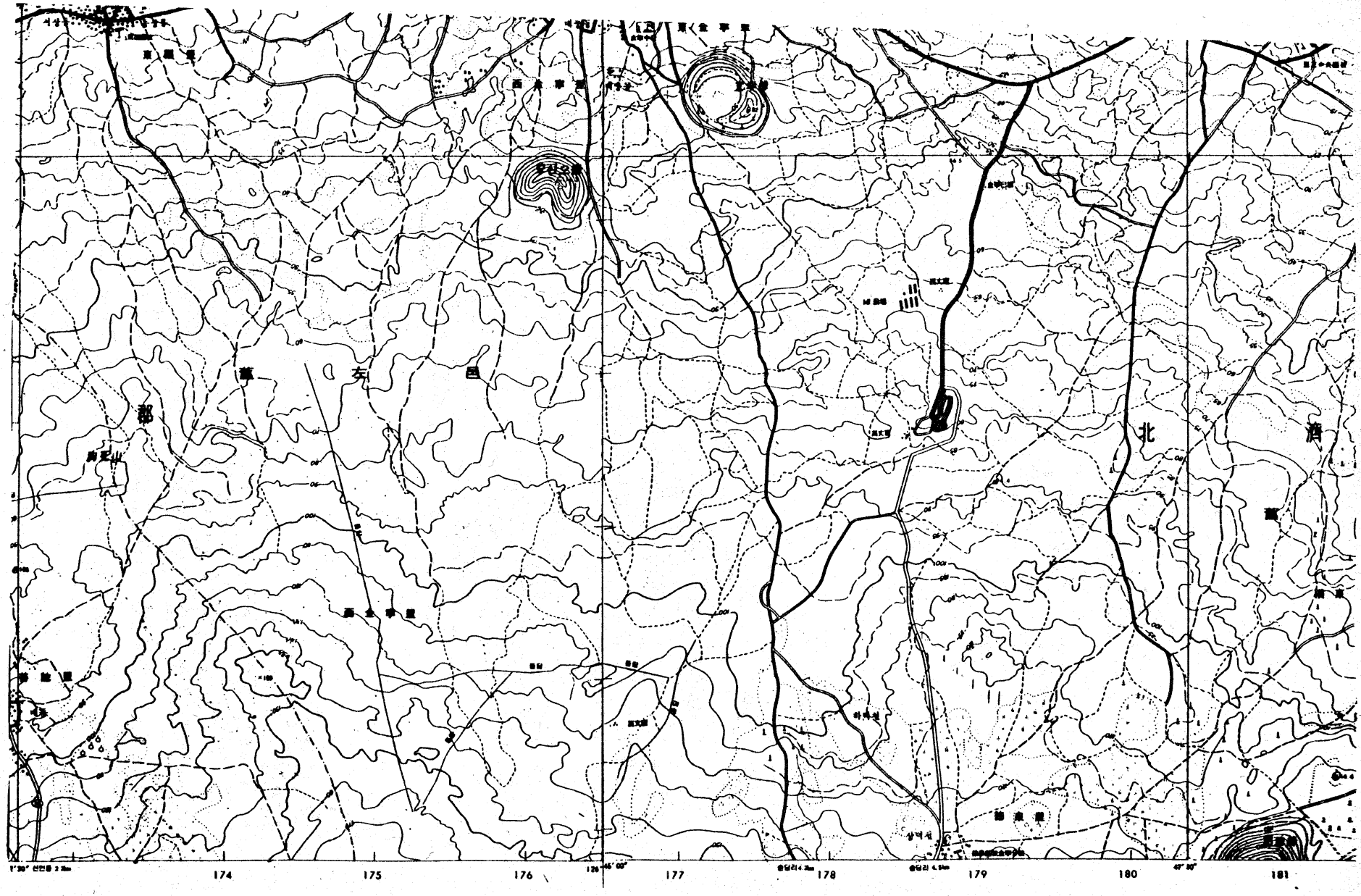
北濟州郡 舊左邑 金寧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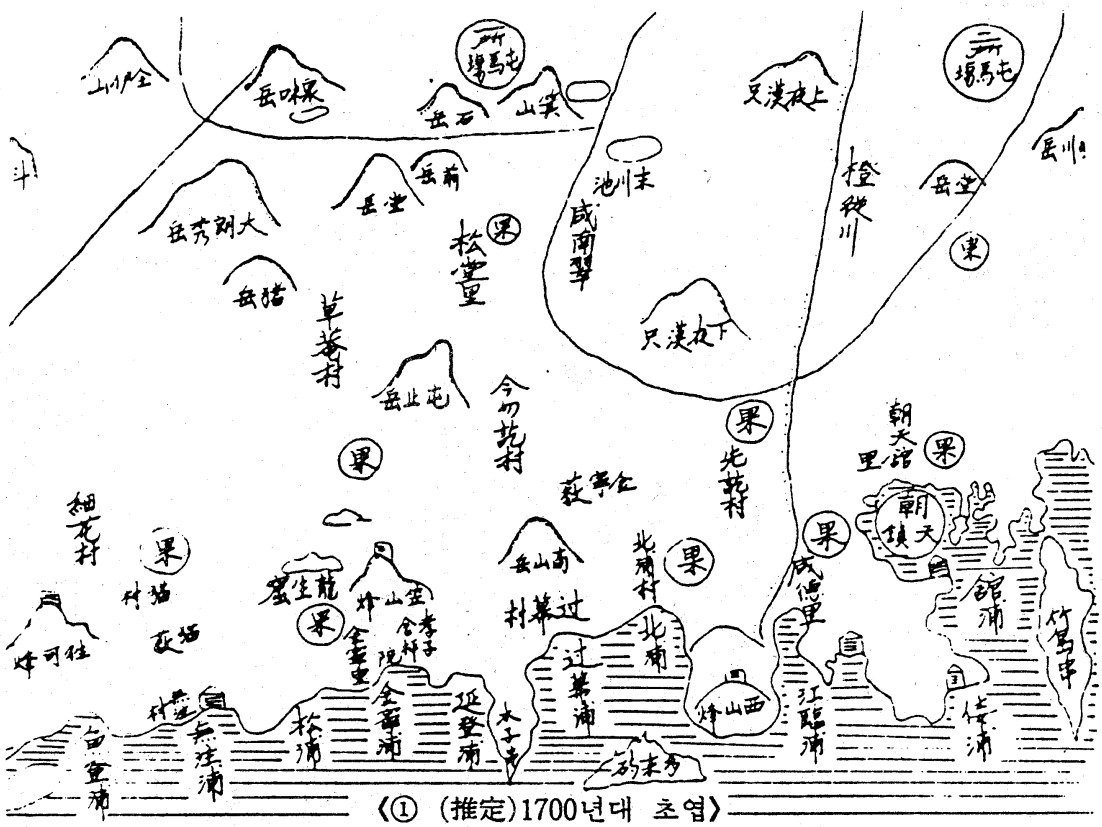
調査經緯/101
社會背景/103
方　　言/113
民　　謠/140
說　　話/152
信　　仰/186

金寧里地圖




174
175
176
177
178
179
180
181

金寧古地圖



〈① (推定)1700년대 초엽〉



〈② (推定)1700년대 중엽〉



〈③ (推定)1800년대 중엽〉

調査經緯

現地 學術調査는 학생들이 강의실에서 익힌 이론을 실제에 응용함으로써 이론과 실제를 겸비하게 된다는 데서 그 意義를 찾을 수 있다.

본 학과의 현지 학술조사는 이러한 意義 아래, 方言·說話·民謠·信仰 등의 분야를 직접 조사함으로써 국어국문학에 대한 이해의 폭을 넓히며, 또한 조사 참여자들이 단체 생활을 통해 협동심을 기르게 한다는 목적으로 제주도 전역에 걸쳐 실시되어 왔다.

지금까지 본 학과에서 실시한 學術調査는 ① 南濟州郡 城山邑 蘭山里(1976. 8) ② 南濟州郡 表善面 城邑里(1977.7) ③ 北濟州郡 涯月邑 納邑里(1978. 8) ④ 南濟州郡 安德面 德修里(1981.7) ⑤ 北濟州郡 涯月邑 光令里(1983. 8) ⑥ 北濟州郡 翰林邑 明月里(1984. 8) ⑦ 南濟州郡 安德面 大坪里(1985. 8) ⑧ 南濟州郡 城山邑 溫平里(1986.7) ⑨ 南濟州郡 南元邑 下禮里(1987.8) 등의 지역을 대상으로 하였다.

제10회 현지 학술조사는 1988년 7월 27일부터 7월 30일까지 3박 4일 동안 北濟州郡 舊左邑 金寧里에서 실시하였다.

이 마을을 선정하게 된 배경은 지금까지의 學術調査地域 중에서 제주도의 동북부에 해당되는 舊左邑 지역이 없었다는 것을 고려한 것이며, 또 고려 때부터의 오랜 마을로서 傳說을 많이 가진 마을이라는 점을 고려한 것이었다.

학술조사의 준비단계로 숙식·취사문제의 해결과 마을현황 등을 파악하기 위해 3차례에 걸쳐 사전답사를 하였다.

이번 조사에는 본 國語教育科의 교수님들과 재학생, 그리고 졸업한 선배님들이 참여하였다. 학술조사 지도는 梁重海(마을개황), 玄容駿(信仰), 梁淳琳(民謠), 崔圭一(方言), 金泰琨(方言), 尹錫山(民謠), 文聖淑(說話), 安成洙(說話) 교수님이 해주셨고 조사반원은 다음과 같다. (( )속은 재학학년임)

마을개황 : 李昌祐(4), 韓政錫(3), 金甫宣(1)

方言 : 張勳(4), 金素英(3), 高政相(3), 吳榮根(3), 宋昌容(3), 金靜實(2)
高庚淑(1)

民謠 : 吳承龍(4), 梁泓順(4), 安慧林(3), 韓昌勳(2), 金美伶(2)

說話 : 吳始烈(4), 高舜子(4), 全恩瑛(3), 李丞娥(2), 姜順姬(2), 全英姬(1)

信仰 : 趙俶嬉(3), 金泰希(3), 鄭孝悅(3), 康哲秀(2), 朴星彦(2), 金明蘭(2)

또 金智弘, 李性勳, 高彰成, 李尙鎬, 梁彰修, 金景贊, 康斗詮, 姜晶植, 邊泰又, 任容震, 朴貞美, 姜洪吉, 吳昌桓, 吳東植 선배님들도 조사에 도움을 주셨다.

3박 4일간의 학술조사 일정은 다음과 같다.

제1일(7월 27일):12시에 金寧里에 도착하여 金寧中學校에 짐을 풀고 이장님으로부터 마을현황에 대한 설명을 들은 후, 반별로 예비조사를 겸한 조사활동을 폈다.

제2일(7월 28일) : 첫날의 조사내용을 바탕으로 반별로 본격적인 조사활동에 들어갔다.

제3일(7월 29일) : 지금까지의 결과와 앞으로의 예정을 반장들이 서로 모여 검토한 후 전일과 마찬가지로 본격적인 조사활동을 하였다. 그리고 나서 조사내용에 대한 자체 평가회를 가졌다.

제4일(7월 30일) : 조사활동의 마무리를 위해 평가회에서 제기되었던 미비점을 보충하는 데 중점을 두어 조사하고 조사활동을 마무리하였다.

끝으로 이번 조사에 도움을 주신 金寧里 里長님을 비롯한 마을 주민 여러분들과 金寧中學校 교장 선생님·교감 선생님께 깊은 謝意를 표하고 싶다. 또한, 후배들을 격려해 주기 위해 먼 길을 찾아 오신 여러 선배님들께도 이 기회를 빌어 고마운 말씀을 전하며, 報告書가 나올 수 있도록 도와주신 여러 指導教授님들과 원고 정리에 수고가 많았던 반장 및 반원들에게도 고마움을 전한다.

社 會 背 景

目 次

Ⅰ. 自然環境　　Ⅲ. 人文概況
Ⅱ. 歷史的 背景　　Ⅳ. 產業構造

Ⅰ. 自然環境

金寧里는 행정구역상 北濟州郡 舊左邑에 속한다. 濟州市에서 동쪽으로 약 22㎞, 구좌읍사무소 소재지인 세화리에서는 서쪽으로 약 12㎞ 떨어져 있는 해안가에 위치한 자연부락이다.

이 마을은 크게 東·西金寧里의 두 마을로 나뉘어져 있다. 제보자들의 말에 의하면 마을이 너무 넓어서 해방후에도 단순히 행정상의 편의를 위해서 분리되었을 뿐이라고 한다. 실제로 조사자들의 조사에서도 두 마을이 분리될 만한 확연한 차이점을 발견하지는 못했다.

동·서김녕리는 각각 네개씩의 자연부락으로 이루어져 있다. 東金寧里는 東城洞, 新山洞, 淸水洞, 鳳池洞 등 네 부락으로, 西金寧里는 南屹洞, 漢水洞, 大忠洞, 龍頭洞 등으로 나뉘어져 있다.

인접 마을로는 동쪽으로는 月汀里, 서쪽으로는 東福里, 남쪽으로는 德泉里,

그리고 북쪽으로는 바다와 연접해 있다. 마을 형태는 마치 배모양과 같은 船體型이다.

기온은 연평균 기온이 약 11.8℃, 평균 강수량이 1,444㎜에 불과해 제주도의 평균 기온 및 강수량에는 약간 못 미치는 기후이다. 이는 차가운 바다 바람과 강한 대륙성 고기압의 영향 때문인 듯하다.

동김녕리는 총면적이 1020ha로 꽤 넓지만 경지면적은 306ha에 불과하며, 서김녕리도 총면적 899ha 중 경지면적은 295ha에 불과하여 경작지는 상당히 협소한 편이다.

교통은 매 15분마다 동회선 버스가 일주도로를 다니고 있으므로 큰 불편은 없다. 생활필수품은 주로 마을 안에 있는 농협 연쇄점이나 마을 상회 등을 이용하고 있으며, 세화리에 오일시장이 개설되지만 많이 이용하지는 않는다고 한다.

용수는 동김녕리에 게웃세물, 청굴물, 신수물 등, 서김녕리에 수감물, 고냥물, 흐른물, 영등물 등의 식수구 흔적이 있듯이, 자연 용천수가 많아 타마을에 비해서 비교적 풍부한 편이었다고 한다. 그러나 지금은 동김녕리에선 김녕사굴 근처에 지하수가 개발되었고, 서김녕리는 득지눈 지경의 지하수가 개발되어 있어, 마을은 높은 상수도 보급률을 보이고 있다.

또한 동양 최장의 용암굴로서 길이가 8,928m에 달하는 萬丈窟과 천연용암동굴로서 길이가 705m에 달하는 金寧蛇窟이 있어 관광지로서도 타마을에 못지 않게 유명한 곳이다.

Ⅱ. 歷史的 背景

고려 毅宗 7년(1153)에 고려왕조는 耽羅郡을 耽羅縣으로 고쳐, 최척경을 耽羅領으로 삼고 金寧을 비롯해 14개 縣을 두었다는 기록이 보인다. 이러한 점으로 미루어 김녕리 設村年代는 縣廳所在地가 되기 前일 것으로 추정된다.

이 점에 대하여 제주 實錄을 引用한 김녕리 향토지에는, 김녕리 設村時代는 신라 중엽에 탐라국이 되면서부터 사람들이 居住하였던 것으로 추측하고 있다. 이 곳 笠山峰은 寄生 화산으로 이 부근에는 自然 동굴이 있고, 地下水가 용출되고 있어 사람이 은거하기에 좋은 곳이다. 그래서 設村 당시에는 사람들이 동굴생활을 하였으므로, 용천수가 풍부한 신산동(삭시꼴), 왕절동에 터를 잡고 지금에 이르는 것 같다. 지금도 동굴 내에는 사람이 은거하면서 원시적 農耕生活을 하였다는 입증될 만한 農機具類와 農牛 해골들의 흔적을 볼 수 있다고 한다. 이것으로 보아 동굴생활을 하면서 農耕作을 하였다는 것으로 보이며, 그 때가 약 2000년 전후로 추정되고 있다.

서김녕리 金豪敏翁의 제보에 의하면, 남흘동 남쪽 2㎞ 지점에 '삭시꼴'이라는 곳이 있는데, 현재도 대나무가 있고 옛날 기왓장들이 산재해 있다고 한다. 그리고 속칭 '왕개'라는 곳이 있는데 여기가 穴居土着地域임을 전하고 있다. 이런 것들이 본 리 설촌시기가 2000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갈 수 있다는 좋은 증거가 되고 있다.

以上으로, 金寧縣은 至今의 제주도에 있었던 옛 地名으로, 新羅時代에 高厚를 이곳에 封할 때 村을 설치하였는데 고려 毅宗 때에는 村을 갈라서 縣을 만들었고 元宗 때에는 三別抄의 亂을 平定한 후에 縣을 統合하여 州를 設置하였다. 그러나 忠烈王 때에는 다시 村으로 복구하였다. 김녕현은 제주 동쪽 50里 地點에 있다 하였는데, 그 位置는 지금의 북제주군 해안지대일 것으로 짐작된다.

그런데 상당히 아쉬운 것은, 金寧精舍는 觀德亭을 본받아 건립하였는데 화재로 燒盡되어 帳簿, 什器 等 貴重한 遺物이 모두 없어져 복구를 못했기 때문에, 김녕리 연혁을 엮기가 어렵게 되었다는 점이다.

원래 지금의 동·서김녕리는 한 마을이었으나, 고종 8년(1874)에 李密熙 牧使가 左面을 분리하여 舊左面, 新左面으로 행정구역을 확정하면서 분리됐다. 동시에 동복리를 편입하여 구좌면은 14개 里의 행정리를 형성하게 된다.

그리고 김녕리는 각 洞마다 전해오는 지명 유래 또한 흥미를 끈다. 먼저 동김녕리 洞名 유래는 다음과 같다.

① 東城洞 : 新山洞의 洞窟과 東城洞의 게웃세洞窟은 많은 清水가 湧出되며,

수도가 가설되기 전에는 金寧里 行事時나 家庭 祭祀時에는 이 게웃세 洞窟물을 사용하였다 한다. 이 洞은 東洞이라 하던 동네다. 東門洞이라 불리우기도 했다. 옛날 防護所의 東門이 있었던 동네로서 김녕리에서는 가장 동쪽에 위치한 동네다.

② 新山洞 : 笠山峰에 洞窟이 있어 一說에는 金寧里 設村時 이 洞窟에 사람들이 居住하면서 이 附近의 土地에서 農耕生活을 하였다는 說이 있다. 그래서 설촌역사가 가장 오래다. 동김녕리 동네 중 가장 높은 곳에 위치하고 있다.

③ 清水洞 : 해안쪽에 위치한 동네로서 바닷가에 맑은 샘물이 湧出되어 清水洞이라 한다.

④ 鳳池洞 : 원래는 오지동과 고봉포(개)동 두 동네로 구분되어 있었는데, 합쳐지면서 그 중간글자를 따서 호칭하게 되었다 하고, 또는 옛적에 큰 못이 있어 원거리를 왕래하는 봉황새, 학들이 이 연못에 와서 氣候를 기다리면서 수일씩 휴식하다가 어디론가 날아가 버리곤 하여 마을 사람들이 이 연못 附近을 鳳池洞이라 이름하여 왔다 한다.

그리고 서김녕리 4개의 洞도 다음과 같은 地名 由來를 지닌다.

① 漢水洞 : 漢水海라는 해안선이 접하고 있어, 옛부터 이 한수해는 많은 船舶들이 풍랑을 피하기 위하여 입항하고 數日間을 정박하였다가 출항하였다 한다. 그래서 洞名도 이 漢水에서 由來된 것이고, 해안가에는 수감물, 고냥물 등 생수가 용출한다.

② 南屹洞 : 南屹洞에 湧泉水가 있어 住民은 원래 새마실동산 동굴에서 생활하다,용천수를 따라 지금의 南屹洞으로 이주한 것이라 傳한다. 원래는 남흘이 동네라고 했으며, 서김녕리 서쪽 국도 남측에 위치하고 있다. 屹字는 善屹, 大屹, 검흘(덕천리)과 통한다.

④ 大忠洞 : 옛적에는 金寧里 생활권의 중심지로써 碑石洞으로부터 시작한 定期市場이 이 洞까지 연결됨에 따라 번성한 동네다. 더불어 1544년 경에 濟州牧使 林亨秀가 金寧精舍를 건립하고 東學이라한 書堂이 있었다. 지금 서김녕리 리사무소가 있는 곳으로 건물은 현대식으로 바뀌었다. 이 洞은 옛부터 대청거리라는 동네 이름이 있어, 이것이 地名으로 불리었다 한다.

이외에도, 동김녕리의 '게웃세물'은 맑고 시원한 물이 굴 속에서 바닷쪽으로 흘러내리는데, 죽어가는 사람도 이 물을 마시면 살아난다는 용천수다. 그리고 '笠傘峰'은 산 모양이 삿갓을 뒤집어 놓은 것 같다고 해서 삿갓오름이라 하고 漢字로 고쳐 笠山峰이라 했다.

'괴살매(猫岳, 花山岳)'는 고양이가 누워있는 모양이라 해서 괴살매, 猫岳 또는 花山岳이라 한다. 김녕포는 고려조 이래로 육지와의 해상교통이 트였는데, 광산김씨 17世 胤祖公은 그의 형 군기감 김흥조가 공민왕 17년(1405)에 辛旽 살해 모의에 의한 참화를 목격하고 멸문의 화를 벗어나 김녕포에 기착했다. 胤祖公은 훈학에 힘쓰는 한편 예의와 효도를 숭상하여 그 덕이 높았고, 만년에 한동 '감남굴'을 개촌하고 이곳에서 세상을 떠나자 제자들에 의해 花山岳에 안장되었다. 胤祖公은 광산김씨 문간공파 中 始祖가 된다.[1] 지금도 그 묘를 확인할 수 있다고 한다.

Ⅲ. 人文概況

김녕리의 현재 가구수는 동김녕리가 529세대에 2215명이, 서김녕리는 435세대에 1670명의 주민이 살고 있어 제주도에서는 비교적 규모가 큰 마을에 속한다. 주민들의 생활은 대부분 半農半漁의 생활을 하고 있으나, 농지가 척박하고 협소하여 어업에 많이 의존하고 있는 실정이다.〈표1〉

〈표1〉 가구수 및 인구수 (단위 : 가구, 명)

	가 구 수			인 구 수		
	계	농 가	비농가	계	남	여
동김녕리	529	465	64	2,215	1,056	1,159
서김녕리	435	371	64	1,670	795	875

(1988. 2. 현재. 구좌읍 사무소 제공)

1) 족보에는 다음과 같은 기록이 있다. 「17世胤祖 禮部議 懲戒辛旽之禍 遯于濟州 子孫及家焉 戶籍作都染領同正逸 墓在舊左面 金寧里 花山麓 乾坐巽向 浮海安撰宅碣文」

가호별 성씨 분포는 김씨·한씨·이씨·박씨·강씨·고씨 등이 전체의 2/3 이상을 차지하고 있다.〈표2〉〈표3〉

〈표2〉 동김녕리 가호별 성씨 분포 (단위 : 가구)

계	김	한	이	임	박	강	고	기타
529	162	64	38	37	32	45	24	127

〈표3〉 서김녕리 가호별 성씨 분포 (단위 : 가구)

계	김	한	이	박	강	고	기타
435	95	66	53	41	31	28	121

교육기관으로는 1923년에 설립된 김녕국민학교와 국민학교 내에 개설된 병설 유치원, 김녕개발위원회가 개인에게 임대하여 개설한 명성유치원, 그리고 1947년에 인가받은 김녕중학교 등이 있어 교육환경은 타마을에 비해 좋은 편이다. 여기, 국민학교에는 1979년에 장애자를 위한 특수학급 1학급을 개설하여 운영하고 있고, 학생들의 복지를 위해 현재 1억원 상당의 급식시설을 건립하고 있다.〈표4〉

〈표4〉 국민학교 학생 현황 (단위 : 명)

학년 / 성별	1	2	3	4	5	6	특수반
남	34	40	40	42	26	34	5
여	29	31	31	33	43	42	3
계	63	71	71	75	69	76	8

(1988. 12. 현재. 김녕국민학교 제공)

현대식 문화 시설에 있어서도 불편함이 없을 정도로 많이 갖추고 있다. 가전제품은 물론 전화도 호호마다 가설되고 있어 통신수단에 어려움이 없으며, 수도시설, 전기시설이 완비되어 있는 상태이다. 특히 金寧里 후생 시설로는 金寧診療保健所가 있어 주민의 보건상태를 도모하며, 또한 일반환자를 취급하고 있다.

새마을 사업으로 1979년도 이전까지는 마을 앞길 포장사업을 비롯하여 마을 창고 건립, 마을회관 건립, 하수구 개량, 마을 안길 포장, 주택 지붕 개량 및 변소 개량 등 제반 기반 건설에 주력한 반면, 그 이후의 사업은 効果所得収獲增大 내지는 所得改善增大에 목표를 두고 추진하였다.

주민의 종교생활은 민간신앙이 강한 편이며, 더불어 불교와 혼합된 형태를 띠고 있다. 이는 마을에 堂(본향당, 궤눼깃당, 성세깃당, 일렛당 등)이 여럿 있고, 사찰로는 白蓮寺(曹溪宗系)와 金寧祈禱院(曹溪宗系)이 있는데, 주민 80%이상이 堂에 다니고 佛教를 믿고 있다는 것이다. 佛教인 경우에 주민 신자수가 많기도 하거니와 타마을에 가서 불공드리는 사람이 상당수에 달하고, 반면 외부 사람들이 본 里에 와서 치성드리는 일도 많다고 한다. 그리고 예수교 장로회와 천주교가 마을에 들어서 있으나, 주민들 관심이 부족한지 많은 교인을 확보하고 있지는 못한 것 같다.

마을 기관은 공식 단체로 부녀회, 노인회, 청년회, 어촌계 등이 있다. 그리고 비공식 단체로는 상조계, 친목계가 있어 상호 협조가 잘 이루어지며, 특히 국민학교동창들끼리 모여 조직한 무진회는 규모가 큰 편이라 한다.

金寧里 單位農業協同組合에서는 매년 10월 경에 새농민대회를 개최하여, 組合 관내의 마을 주민들의 단합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또한 어버이날에 즈음하여 洞別마다 경로잔치를 벌여 놓고 있어, 노인분들과 동네 주민들이 함께 즐거운 시간을 보내기도 한다.

이 마을은 두 집에 한 집 꼴로 있을만큼 재일교포가 많은 고장이다. 이분들은 齊養圖書舘[2], 福祉會舘, 그리고 지금 국민학교 급식시설 착공 등 굵직굵직한 사업을 이루어 놓기도 하였다.

2) 박수양씨 개인이 건립

마을회관은 동별로 지어져 있으며, 공동창고는 농협창고, 어촌계 창고 등이 있다. 그리고 동김녕리에 있는 김녕 복지회관은 1층에 명성유치원, 2층에는 노인회관, 뒤에 별관은 청년층의 체육관으로 쓰여지고 있다.〈표5〉

〈표5〉 공공시설물 (단위 : 個所／㎡)

	마 을 회 관	공 동 창 고	복 지 회 관*
동김녕리	1／99	4／285	1／99
서김녕리	6／958	1／99	1／95

(1984.12.30. 현재. 구좌읍지)

* '복지회관'은 구좌읍 사무소 제공한 자료임.(1988.2. 현재)

Ⅳ. 産業構造

이 마을은 전형적인 半農半漁의 산업구조를 띤다. 최근에는 마늘, 양파, 땅콩, 참깨 등 고소득 작물을 재배함으로써 주민들의 소득에 일익을 담당하고 있다. 〈표6〉〈표7〉

〈표6〉 토지이용현황 (단위 : ha)

		경 지 면 적						
	계	전	대 지	과수원	초 지	임대지	묘 지	기 타
동김녕리	1.020	306	17.5	2	675	76	19.5	20
서김녕리	899	295	16	1	586	22	1.5	12.5

(1988.8. 현재. 구좌읍 사무소 제공)

〈표7〉 작물별 재배 현황 (단위 : ha)

	유 채	맥주맥	쌀보리	마 늘	양 파	땅 콩	참 깨
동김녕리	12	56.9	9	35	26	0.5	81
서김녕리	4	77.8	13	35	20	3	116

(1988.8. 현재. 구좌읍 사무소 제공)

가구별 소득도 증가 추세에 있는데, 고소득 작물 재배 농가의 증가가 그 주요 원인으로 보인다. 농가만을 조사대상으로 하여 소득을 살펴볼 때, 구좌읍에서 상위권에 속하는 마을이다.〈표8〉

〈표8〉 소득현황

	조사대상	총 소 득 액(천원)			호 당 소 득(천원)		
	농 가	계	농 업	농 외	'86	'87	
						평 균	농 가
동김녕리	465	597,851	341,205	256,646	5,890	5,978	5,978
서김녕리	371	626,742	407,992	218,750	6,647	6,739	6,739

(1988.2. 현재. 구좌읍 사무소 제공)

반면에 논농사는 전무한 실정이고 목축업도 보기 힘들다. 다만 양계장이나 소규모 가축 사육이 이루어지고 있을 뿐이다. 양계장, 가축사육 현황을 보면 다음과 같다.〈표9〉

〈표9〉 가축사육현황 (단위 : 마리)

	소(우)	돼 지	닭	말	개
동김녕리	147	170	34,000	8	30
서김녕리	92	220	19,000	0	26

(1988.2. 현재. 구좌읍 사무소 제공)

어업은 평균 수심이 약 1m정도로 항구 입지 조건이 좋을 뿐 아니라 魚種도 다양하게 서식하여 전망이 밝은 편이다. 동김녕리의 항포구로 성세기가 있고, 서김녕리는 항게가 있으며, 이용 선박수는 항게 쪽이 훨씬 많다. 동력선이 동·서 김녕리에 각각 11척이 있으며, 2톤 이상의 선박은 동·서 김녕리에 각각 7척이 된다. 그리고 무동력선도 동김녕리에 4척이 있다. 동력선은 대부분 옥돔과 방어잡이를 하여 어획고를 높이고 있는데, 이들의 1년 통계 어획고는 약 천만원 정도라고 한다.

바다에서 주민들 주소득원이 되는 수산물은 톳, 천호, 문어, 소라, 성게 등의 순이며, 해녀는 노령화 추세에 있기는 하나 타마을에 비해 해녀수가 많은 편이다. 해녀 대부분 학력은 국졸 이하가 70% 이상을 차지하고 있다. 〈표10〉

〈표10〉 해녀 현황 (단위 : 명)

	계	연령				학력			
		20대	30대	40대	50대 이상	무학	국졸	중졸	고졸 이상
동김녕리	129	2	26	38	63	22	65	41	1
서김녕리	57	2	19	23	13	26	25	5	1

(1988.8. 현재. 제주시수협 김녕출장소 제공)

해녀의 개인당 1년 수입은 약 3,4백만원 정도에 달하며, 복지 시설로는 탈의장이 잘 되어 있어 온수 목욕도 가능하다. 이 곳 또한 해녀 50% 정도가 중독성 약물(뇌선, 사리돈 등 주로 두통약 종류)을 복용하는데, 이것은 현대식 장비를 갖추게 됨에 따라 잠수 시간이 자연히 길어진 것이 주원인이라 한다. 해녀들의 건강은 우려되지만 아직 마땅한 해결책은 없는 듯하다.

농기계 보급률은 확실한 통계 자료를 얻을 수 없었으나, 제보에 의하면 동·서 김녕리를 통틀어 경운기 약 160대(동력 분무기 모두 설치), 트랙터 1대, 탈곡기 약 50대 정도 갖추어져 있다고 한다.[3)]

3) 東金寧里長 提報

※본 보고서 작성에는

김광진(1982), 원색세계대백과사전, 동아출판사.
김녕국민학교(1987), 김녕학구향토지, 성심인쇄사.
박수양(1986), 김녕리향토지, 명성종합인쇄.
부영성(1986), 구좌읍지, 태화인쇄소.
제주대 국어교육과(1987), 현지 학술조사 방법론 등이 참조되었다.

方　　言

目　　次

Ⅰ. 衣生活 語彙　　Ⅳ. 農　　業
Ⅱ. 食生活 語彙　　Ⅴ. 漁　　業
Ⅲ. 住生活 語彙　　Ⅵ. 地　　名

Ⅰ. 衣生活 語彙

1. 노동복

① 갈중이 : 미녕에 감매경 발래엿당 저을에 밧듸 갈 때 ᄃᆞ신 옷 우의도 입곡 ᄋᆞ름에 일허레 갈 때도 거 입곡.

② 갈적삼/갈중이 적삼

③ 굴중이 : 일허멍도 입곡 이추룩 집의서 놀멍도 입곡.

△ 감옷 : 감매긴 옷. 일헐 때 입는 옷.

2. 평상복

1) 여자의 경우

① 적삼/친헌적삼

② 저구리

△ 소개저구리 : 솜 논 저구리

△ 접저구리 : 두 곱 친 저구리

③ 소중이/소쟁이 : 예저 살마다 고라 소중이(소쟁이)엔 헤나서.

④ 고장중이 : 요새 바자마. 허리끈 매는 거. 강알 터진 거.

⑤ 바지

⑥ 단속곳

⑦ 굴중이 : 단속곳 입곡 굴중일 입어야 강알을 안 봐진다고 그거 입어 비엄주.

⑧ 속치매

⑨ 겉치매

△ 미녕옷. 광목옷

△ 입성 입는 거나 머리예 씌는 거나 이제나 옛날이나 비뜨룩허주.

2) 남자의 경우

① 저구리

② 바지

③ 중이적삼 : 봄으로 ᄋᆞ름으로 중이적삼.

△ 남저 살마단 어서나서

3) 아기의 경우

· 배불레기 : 어깨마리만 헹 배만 감추앙 일로 쩐 돌앙 졸라맨 거. 속 담앙 베로 맨들아서. 할망덜 배불레기 맹그랑 아기 입지라 헤여.

4) 우장 : 우장 씌는 건 하르방. 제라헌 어른덜만 써서. 예자는 삿갓만 씌곡.

3. 예복

1) 혼례복

(1) 여자의 경우

① 속적삼

② 저구리

③ 소중이/소쟁이

④ 고장중이

⑤ 바지

⑥ 단속곳

⑦ 속치매

⑧ 겉치매

⑨ 장옷 : 하난 입곡 하난 씌곡.

⑩ 초신 : 신 뒤축 삼은 거.

· 고무신

· 창신 : 벌겅헤영 앞의 꼿 돌리곡 헌 거. 고무신 안 난 때 신어나서.

· 가막창신 : 예저 시집갈 때 신는 건디 새카망헤영 알창에 징박곡 배모냥으로 소랑허게 맨들아서. 그때 가막창신 보통으로 안 신어나서.

⑪ 건지

· 이멍거리 : 머리 빗엉 머리 양가달 다왕 건지허민 알러레 내려가카브덴 받탕 머리 내려오지 못허게 탕 묶어나시녜. 요새덜 데모 일으키민 무신 것들 머리에 탁탁 처매느녜. 그 식으로 요만이 너배기 넙게 헹.

· 쪽두리

△ 옛날은 구루무도 어서나고 분도 안 써나난 밧듸 강 오민 양지만 씻엉 드러눗주. 시집갈 때도 안허여. 옛날은 헐 것이 어서나서. 중간에야 낫주.

(2) 남자의 경우

① 바지 : 다님(다름) 달루곡 보선 신곡.

② 저구리

③ 두루막

④ 관복

⑤ 사모관대/사모관디/사모풍덕 : 쪽두리는 너가 씌곡 사모풍덕은 내가 씌곡.

⑥ 상퉁이 : 맹긴 헤영 상퉁이 창 꼭재기에 동곳 질렁.

· 탕근

· 맹긴

⑦ 행경 : 제서, 맹질, 장개갈 땐 흰 걸로 깨느룽허게 허곡.

△ 장개갈 때 신는 신 : 이름은 아니 지와낫주게. 거 관복에 돌른 거.

2) 상복

① 구관제복 : 제라헌 상제 입는 거. 하간 거 이디 지랑지랑 돌린 거. 등막머리에 베 그창 부찐 거.

② 시무옷 : 존등 띠 묶은 건 손지만 입곡.

③ 건대 : 두건 써 낭 건대 쐬곡 띠 둘르곡. 건대 쐬는 건 사위. 예저도 써.

④ 복치매 : 지집아이덜은 복치매 입주. "할망 죽언 복치매 입엇져."

△ 방장대 : 상제덜 손에 심는 거.

△ 행경 : 상복 입을 땐 베로 맨든 거 허곡. 넙작헌 거.

3) 제복

① 바지. 저고리

② 두루막(도폭) : 홉 거. 외불짜리.

· 후루매 : 안(內) 끼운 거. 두 곱 친 거. 저을에 입주.

③ 행경

④ 손또매 : 열엉허질 안허고 법이라난 생이라. 우린 이, 저을에민 손또매 맨들저 보선 줍저 허민 밤의 좁도 못자나서. 요만이 헌 등핏불에 그자 밤새낭 바느질헤영.

△ 굴복 : 제서헐 때 제서 앞의 엎더지는 거.

4) 외출복

· 덧저구리 : 한복 입어봉 입는 거. 우의 구실 돌린 거.

· 죄끼

· 마구자

4. 머리·발 장식물

1) 머리 장식물

(1) 머리모양

· 남자 : 맹긴 헤영 상통이 창 꼭재기에 동곳 질렁. 장개 아니 간 땐 예저ᄆᆞ추룩 머리 다왕 머리창 드리곡.

· 여자

① 머리창 : 처녀덜 시집 오기 전인 드려 다와시녜. 앞머리 다우곡 뒷머리 다우곡 상고방꼼 다우곡 뒤꼼 다우곡 열 두 개 열 대여섯 개 다와.

② 팔쳬머리

③ 낭쳬(양쳬)머리 : 비녜 꽂인 거.

(2) 장식물

① 돌래 : 군머리. 자기 머리로 모지래민 머리 그창 맹긴 거가 돌래.

② 댕기

③ 건지 : 어룬된 때 민머리라도 건지헤서.

④ 비녜

⑤ 쪽두리

2) 모자류

① 삿갓 : 햇빗날 때 씌는 거

② 대페랭이 : 지금도 싯주만은 옛날엔 테양이 호끔 크주.

③ 페렝이

④ 정당벌립 : 정당으로 맨든 거. 물 놔도 안샐 정도로·춥질게 짜나서.

⑤ 갓 : 나들이 허는 사름은 맹긴 씌곡 탕근 씌곡 갓 씌곡.

⑥ 말관 : 옛날 훈장 씌는 거.

⑦ 벙것 : 정당으로 맨든 거.

⑧ 풍댕이 : 저을에 예저 어른덜 씌는 거. 예저 치매 모냥으로 맨드라낭 톡 졸라매영.

⑨ 휘양 : 남저도 씌곡 예저도 씌는 거.

⑩ 방립 : 상주덜 눈에 잡거 나쁜 거 뵈지 안허게 막 아래 내려 써서. 옛날은 삼년이면 삼년을 늘 배낏듸 나갈 때 써나서 대방가에서덜.

⑪출립 : 집의선 출립이라고 대로 맨든 거 써나서. 조그만 거.

3) 신발류

① 초신 : 깍 내영 옛날 소나이 어른덜 신 삼을 때민 이디 노끈 매영 발ㄲ래기 신을 접정 경헹 신 삼앙 옛날은 신어나서.

② 창신 : 벌경헤영 앞의 꼿 돌린 거.

③ 가막창신

④ 남신 : 비온 날에 남으로 맨든 거 신어. ᄆᆞᆫ 오랑 줏어간.

4) 버선류

① 광목보선

② 홑보선, 접보선

△ 대비

5) 미용도구, 재료

① 얼레기 : 남으로 맨든 거.

② 챙빗 : 대로 맨든 거.

③ 멘경. 색경

④ 경대

⑤ 돔박지름. ᄂᆞ물지름

△ 사분. 구루무

5. 옷감, 바느질 용구, 침구

1) 옷감류

①광목 ②미녕 ③베 ④비단 ⑤공단 ⑥호박단 ⑦양단 ⑧멩지 ⑨유단 ⑩빌루도 ⑪세미단 ⑫광페 ⑬조패 ⑭모시 ⑮모빈단 ⑯초록 ⑰법단 ⑱청묵

△ 모빈단 : 죽을 때민 양지도 씌영 가는 거.

△ 옛날은 베옷을 많이 입어낫주.

2) 바느질 용구

① 씰

② 바눙

③ 바눙쫄래 : 머리터럭 헤영 담앙.

④ 손꼴미

⑤ 안반 : 두드는 바닥

⑥ 막깨

⑦ 홍질대 : 멩지 다듬을 땐 감앙 두드는 거.

⑧ 다리외 : 다리민 주름 과짝 세우는 거주.

⑨ 윤디

⑩ ᄆᆞ새

△ 불ᄆᆞ작 : 단추 대신 불ᄆᆞ작을 헷주.

3) 침구

① 쇼 ② 이불

③ 껄레이불 : ᄋᆞ름에 더끄는 거.

④ 베개 : 모물체도 담곡 나룩체도 담곡.

△ 옛날 하르방덜 남베개 맨들앙 눠낫주. 몽침 맨들앙.

△ 여름에 배낏듸 눌 때 봉덕불 피우곡.

⑤ (죽부인)[1] : 안앙 자는 거 잇주. 수랑헹 이만이 진진헌 거. 그거 대민 사늘허니 가심이 애기 안듯 안앙 자는 거. 이름은 몰라. 대낭으로 맨든 거.

△ 옛날은 빨래 헐 때도 빠는 거 어서불민 불 솜아난 재 헤영 더운 물에 파르륵허게 노믄 것이 문짝허게 그걸로 헤영 빨래헤나서. 들에 강 담쟁이 걷어당 베옷을 뿔곡 헹 입어서. 옛날 사름덜 살아난 역서를 어떵게난 헤봐.

---

1) 명칭은 나오지 않았으나 알고 있는 어휘였다.

Ⅱ. 食生活 語彙

1. 음식

1) 밥류

① 조팝

② 보리밥

③ 곤밥

④ 톨밥 : 솖앙이 쏠에 섞엉 톨밥 헹먹곡.

⑤ 푸래밥 : 푸래헤영 뿔아그네 썰어놩 쏠에 놩 숭년에 밥 헹 먹곡.

⑥ 숙밥 : 숙 헤당 솖앙 물에 컹 우령 접지라동 썰어놩 밥도 헹 먹곡. 곡석이 귀헤신고라이.

⑦ 콩밥

⑧ 수지밥 : 대축 뿌래기가 말고 율매 율아그네 보리방울만썩 허주게. 그거 이젠 ᄀᆞ래에서 ᄀᆞᆯ앙 쏠 베껑 걸로 밥도 헹 먹곡 떡도 헹 먹곡.

⑨ 산디밥

⑩ 오곡밥

△ 앞쏠 : 보리 퍼렁헌 때 비여당 보비영 밥도 헹 먹곡.

2) 국류

① 호박국 ② 장쿡 ③ 몸쿡 ④ 푸래국 ⑤ 너패국 ⑥ 매역국 ⑦ 놈삐국 ⑧ 콩국 ⑨ 시래기국

⑩ 난생이국 : 국물은 거맹헤여 건 끌리민 맛 조아. 쿠셔 코시롱헤여.

⑪ 가시리국 : 바당에 벌겅허게 나는 거. 지금은 안 먹엄주만은 옛날사 그거 먹엇주게.

⑫ 게자릿국 : 게자릿국도 끌령 먹곡. 산에 나는 거.

3) 찬류

△ 출래옌 헌 건 짜브니까 츤츤헤브난 출래옌 헴주만은 옛날엔 멜첫 담은 거 고라 출래옌 허는 거주 원칙은.

① 자리젓 ② 멜첫 ③ 각재기젓 ④ 고도리젓 ⑤ 오징애젓 ⑥ 난생이 ⑦ 고사리 ⑧ 꿩발(꿩마농)

⑨ 들굽 : 가시 돋은 거. 국도 끌령 먹곡. 숢앙 된장도 찍엉 먹곡.

⑩ 민네기 : 우리 두린 때 보민 민네기 헤다그네 데왕 미쳥도 먹곡.

⑪겡이젓 : 뻐상 무수에 미쳥 젓도 헹 먹고, 새우리 썰어 놓곡. 아무 고를 이라도 ᄆᆞ를 허끄곡 장물 놩도 먹어나서.

4) 떡류

①상웨떡 ②곤떡 ③친떡/침떡 ④조개생펜 ⑤지름떡 ⑥시리떡 ⑦제펜 ⑧만디떡 ⑨무정떡 ⑩조떡 ⑪백일떡 ⑫돌래떡 ⑬무떡 ⑭오매기떡 ⑮약괴 ⑯등절비 ⑰속떡 ⑱쳬기떡[2] ⑲술벤 ⑳절벤 ㉑인절미

△ 조개생펜 : 조개ᄆᆞ추룩 헤브난 경헤신가?

△ 곤떡 : 옛날 세모나그네게 헌거.

5) 범벅류

①감저범벅 ②강냉이범벅 ③대축범벅 ④모믈펌벅/모멀펌벅 ⑤미리범벅

6) 죽류

①콩죽 ②모믈축/모멀축 ③꿰죽 ④전복죽 ⑤녹두죽 ⑥좁쏠죽 ⑦풋죽 ⑧곤쏠죽

△ 미음 : 다 돌아강 아플 때민 체로 바친 미음주곡.

7) 술류

①청지 : 막걸리 거르기 전의 둥당허게 골른 거. 그걸 청주렌 헤낫주게.

---

2) 밀주시로 맨든 거.

막걸리보다 더 좋은 거주.

②소지 : 고수리에 다끈 거가 소지.

△고수리 : 술 다끄는 거. 걸로 다끈 건 혼어시 독허지도 안허곡.

③탁배기 : 좁쏠에 누룩헤놔그네 ᄆᆞ찌 버무려 놩 걸렁 탁배기도 헹 먹곡.

④골감주 : 제준 제서 때에 감주 그걸로 헹 술 대신 지내낫주. 숩지 않은 건 생감주. 숩은 거 고란 그냥 감주.

⑤ 동동주

⑥탈술. 볼래술. ᄌᆞ밤술. 삼동술

△쉰다리

8) 김치류

△옛날 할망덜 경 김치 허멍 먹어서.고치덜토 제라허게 안놔그네 집의 고치 ᄒᆞ쏠갈민 헤영 무신 거 허곡. 요새사 고치여 ᄂᆞ물이여 ᄋᆞ름 저을 어시 다 ᄂᆞ믈 나곡.

①배추짐치 ②무수짐치 ③동지짐치 ④퍼대기 짐치

9) 젯상음식

①메 ②갱(국) ③우럭 ④전 ⑤묵 ⑥실과 : 사과, (돌)배, 감, 댕에지

⑦육류 : 돗궤기, 쉐궤기

⑧채소 : 콩주름, 매역체, 돔비, 고사리

△지네 이제 사단 반찬 헹 먹는 건 물돔비고 우리 집의서허는 건 ᄆᆞ른 돔비라. 쾅쾅허게 헌 거.

10) 기름류

①꿰지름 ②돔박지름 ③ᄂᆞ물치름 ④유채지름 ⑤땅낭 ᄋᆞ름

11) 흉년음식(숭년음식)

① 뭇(쏠) : 바당에 강 패 헤당 항에 ᄒᆞᆨ 비쪄그네 가매 ᄆᆞ찌 아졍 뭇쏠헤단

콜콜이 씻언 ᄆᆞ찌 막 알로만 불 때어가민 호랑허게 딸려지주. 경허민 부제칩의덜 둬 사발씩 아시당 먹읍센 맷겨. 그 대신 어신 사름덜 쏠 주주게.

② ᄑᆞ래밥 : 놈의 집의 강 헹 먹는 거 보민 맛조암직헤영 저 어머닌 그거 헙센 허민 "아이고 이녁 난 것들 저를 어신디 그 집의 강 얻엉 먹으라. 그 집의 쏠 앗앙 강 바꽈당 먹으라" 경헤낫주.

③ 톨밥

④ 숙밥

⑤ 패

⑥ 드래기뿔리 : 옛날 어룬덜 그걸 헤여당 ᄇᆞᆼ상 물에 ᄆᆞ를로 크민 그걸 물 똘루악 똘루악 우려그네 그거 청 아진 거 ᄆᆞ를 되민 거 긁어내영 몰류앙 먹언 살아낫젠 헤여.

△ 제국시대 공출 다 묶어가브난 영 집은 컷자 "보리 멧 가맹이 묶어내라" 허민 어디 영(令)이라그네 안 묶어내. 다 묶어내어동 이젠 ᄑᆞ래밥 톨밥을 먹어. 수량 다 못 채운 사름은 ᄉᆞ무실에 강 꿀령 아정 기압 받으멍.

12) 밥외의 음식

①국시

②쥐베기 : 밀쥐베기, 궁둥쥐베기

다섯 손ᄁᆞ래기로 주먹 안에 쥐영 줍으난 쥐베기.

△ 수재비

③개역

④엿 : 사탕ᄆᆞ루 어실 때 엿으로 졸라그네 놧당 지름떡 볼라낫주게.

13) 곡류

①산디 ②석상배 ③모물/모멀 ④밀 ⑤보리 ⑥대축 ⑦ᄑᆞᆺ ⑧콩 ⑨조 ⑩녹디

14) 채소류

①ᄂᆞ물 ②유채 ③마눙 ④다마내기 ⑤지실감저 ⑥콩닢 ⑦유잎 ⑧풀고치 ⑨부루 ⑩수캇

2. 식생활 도구

1) 그릇

①밥사발 ②국사발 ③접시 ④보시 ⑤종지 ⑥낭푼 ⑦함박

⑧도고리 : 남으로 판 거. 그것에서 밥 먹어나서 감도 뽓곡.

2) 항아리

① 물항, 쏠항, 장항

② 단지 : 혼 사발짜리

③ 장물 오가리 : 두 말짜리. 반찬 담앙 먹는 거, 하간 거.

④ 망대기 : 세 말짜리

⑤ 등덜팽 : 물 담는 거.

3) 상

①젯상 ②밥상 ③문전상

△ 남상

4) 되

① 솔박 : 하간 곡석 거리는 거.

② 작박 : 집안에서 씌는 거. 쪼그만 거. 솥 셋엉 물 긁는 거.

③ 되악새기

④ 관대

5) 정미기구

①돌ᄆᆞ래 ②물ᄆᆞ래 ③장ᄆᆞ래 ④풀고래 ⑤도고방애

△ 방애ᄒᆞᆨ

△ 도고방애 : 출떡 찍어그네 무사 안허느냐?

Ⅲ. 住生活 語彙

1. 집구조

1) 방

① 큰 구들 ②족은 구들 ③방꺼리 구들 ④ 춤방

△ 방꺼리 구들 : 방꺼리에 구들 이시민 이젠 ᄉᆞ랑방이옌 허주만은.

△ 모커리 : 집이 영 이시민 모로 진 거 모커리.

△ 난간

△ 방바닥 : 구들창

2) 문

① 춤방문 : 춤방더레 들어가는 문.

② 지겟문 : 방더레 들어가는 문.

③ 창문

④ 올렛문 : 올렛문 ᄌᆞ그라 ᄋᆞᆯ라. 정의러렌 정살만 놓주게. 짐녕은 올렛문 안 든 집이 멧개 어서나서.

⑤ 뒷문

⑥ 정짓문/정잿문

⑦ 고팡문

△ 문고리 : 걸쇄. 걸쇄 박아사 통쉘 박는 거라.

3) 기타

① 앞마당 : 무뚱

△ 옛돌 : 난간 아래 논 돌.

② 기와집 : 지에집

막 부젠 지에로 올렷주.

③ 초가집 : 초집

△ 새집 : 우리 다 새집 이어낫주게. 새로 일민 새집.

④ 처마 : 집가제

가제 끄트머릴 말허는 거주게.

⑤ 거왕 : 새 패와 낭 바위에 대 앗당 매영 줄 꿰영 ᄃᆞᆼ기는 거. 거왕은 ᄒᆞᆫ 멧년 헤가민 낭껭이가 삭아비어.

⑥ 고드름 : 동곳

얼리어그네 막 눈 오라가민 꼬작꼬작헹 물 칠칠 흘리는 거.

⑦ 처마에서 떨어지는 물 : 지실물

옛날 할망덜은 지실물 받앙 ᄲᆞᆯ래도 허곡.

⑧ 우영 : 집 ᄌᆞ낏 밧덜.

⑨ 집 뒤 : 뒤/두깡

2. 부엌

① 부엌 : 정지/정재

② 부엌문 : 정짓문/정잿문

③ 찬장 : 살레

④ 아궁이 : 솔 강알

⑤ 굴뚝

△ 창꼼 : 중간으로 공기나가랜 창꼼 터졋주게.

△ 굴묵

⑥ 연기 : 내

⑦ 그으름 : 그스랭이

△ 먼지 : 몬지래기

⑧ 부지껭이 : 부지땡이

불 영 둘이키곡 내치는 건 부지땡이.

⑨ 땔감 : 남, 어욱, 솔잎, 소똥, 몰똥, 검질, 고시락

⑩ 재 : 불치

나무 헤여당 검질 비어당 막 대매낭 솔강알에서 바랑바랑 솜으민 밥

솥더레 불치도 들어가곡 벨 거 다 잇주.

⑪ 성냥 : 불깍

△ 솔칵 : 산에 강 송진 헤영 솔칵 맨들어당 쒜 낭 이걸로 착착 헹 불 부쳐낫져.

⑫ 부삽 : 불갈레

△ 근대 : 재 긁어내는 거.

△ 골채로도 담곡 솔박으로도 담곡.

⑬ 솥두껭이/솥두께 : 솥뚜껑

⑭ 장독 두껑, 장항두께

⑮ 설것이통 : 장탱이

그릇 싯는 장탱이도 싯곡 남으로 맨든 수통은 신식이라.

△ 궂인물통

⑯ 밥주걱

· 밥자 : 족은 거

· 남술/남죽 : 남으로 된 거. 큰 거.

⑰ 국자

△ 작박 : 물 거리는 거. 국도 거리는 거.

⑱ 수저통 : 제통

옛날은 왕대 ᄆᆞ작 헹 헤낫주.

⑲ 수저 : 숟구락 ⑳ 젓가락 : ᄌᆞ븜

3. 부속건물

① 변소 : 통시

△ 디딜팡 : ᄀᆞ루 걸친 남이나 돌. 발디디니까 디딜팡.

② 외양간 : 쉐막

쉐 아니 놩 질롸도 쉐막이옌 허곡.

③ 여물통 : ᄋᆞ물통. 쉐 멕이는 ᄋᆞ물통. 도고리. 남팍 써낫주.

④ 이문간 : 올렛문 ᄃᆞᆫ 딕 집 고라 이문간이옌 골매.

Ⅳ. 農　　業

1. 농기구

① 갈래죽 : 갈래죽이엔 헌 거 삽이라.
② 괭이
③ 호미
④ 골갱이 : 아무디도 씌는 거 아니라.
⑤ 잠대 : 쟁기 ᄀᆞ라 잠대렌 허주.
⑥ 굴채
⑦ 쇠시렁
⑧ 씬돌 : (호미 묵기민) 씬돌로 굴앙.
⑨ 장호미 : 나무 끊을 때민 진는 거.
⑩ 도치 : 양펜으로 상곡쟁이 튀어나곡 놀 돋은 거. 낭 깨는 거.
⑪ 자구 : 쪼그만 거. 기억 재(字ㅣ)로 난 것이 자구.
⑫ 따비 : 밧 가는 거.
⑬ 돌끌
△ 돌챙이 : 돌 깨는 사름
⑭ 홀태 : 보리 홀트는 거. 옛날은 그걸로 홀타 낭 도깨로 두드령 물ᄆᆞ래에 굴아나서.
⑮ 물메 : 돌 패는 거.
⑯ 벤줄레 : 고냥 돌루는 거.
⑰ 톱 : 낭 싸는 거.
⑱ 남태 : 물 헤영 밧 벌리젠허민 물 두깡의 돌아맹 끄시는 거.
⑲ 끄시게
⑳ 갱운기
㉑ 도깨 : 서춘더레 마당질허는 거 나완게.

2. 풀이름

① 게자리 : 국도 헹 먹는 거.
② 가매기 바농
③ 고랏 : 조코랏, 조밧듸 나는 검질.
④ 고냉이풀
⑤ 고인쌥 : 풀 거쪄가민 씨 놀앙 다다다닥 튀는 거.
⑥ 눈벨레기 : 우리 두린 때 거 ᄐᆞ당 눈에 끼왕 댕겨나서. 옛날 할망덜 거 이름도 잘 지와서.
⑦ 도레미낭
⑧ 데우리
⑨ 돌감낭 : 땅의 막 줄벋어가는 거. 똘은 아장 타먹으랜 허곡 아덜은 매누리 허멍 허랜 헌 거고.
⑩ 돌풀
⑪ 모시풀/모시낭
⑫ 물풀
⑬ 방돌래기
⑭ 배체기 : 이파리 납작납작 헌 거. 소금에 삐져그네 다친 디 처매곡.
⑮ 비늘 : 해변가엔 잘 어서. 드릇밧딘 막 그 검질 허주게. 잎사귀 동골동골, 너플너플 헌 거.
⑯ 베영고사리
⑰ 쇠비늠
⑱ 술란지
⑲ 소앵이
⑳ 삼수새기
㉑ 삼마 : 약에도 씌는 거.
㉒ 쉰부르 : 좁아 댕기민 ᄆᆞ작으로 톡독 꺾어지는 거.

㉓ 솔개풀 : 영 벌겨지여그네 꼭재기에 좁쌀 닮은 것이 나오랑 그걸로 씨 털어정 또 나오곡.

㉔ 솔잎풀

㉕ 아덜장덕풀 : 꼬짝허게 올라가는 거. 우트레 올라가멍 씨 읍아.

㉖ 제완지

㉗ 진풀/진낭 : 낭ᄀᆞ추룩 과싹허게 나매. 아이덜 봉오지 거끄멍 먹어나서.

㉘ 저새살이/저슬살이 : 절리는 듸 처매 하간 듸 해싸지매 지름 불랑 처매지 않으민 백번 해싸져.

㉙ 재남

㉚ 진잎 : 모시 모냥으로 잎새기가 넙작넙작 헌 거.

㉛ 춤비늠

㉜ 천상풀 : 하늘 우트레 높이 올라가난 천상풀이옌 헌 거주.

㉝ 칙닢 : 갈건 맹그는 거.

㉞ 토끼풀

㉟ 피만지 : 읍매 읍앙 약허는 거.

㊱ 해바래기 : 해 저가민 저레 자우라져블곡 해 올라가민 반뜩허게 밧듸 나는 거.

㊲ 함박풀

Ⅴ. 漁　　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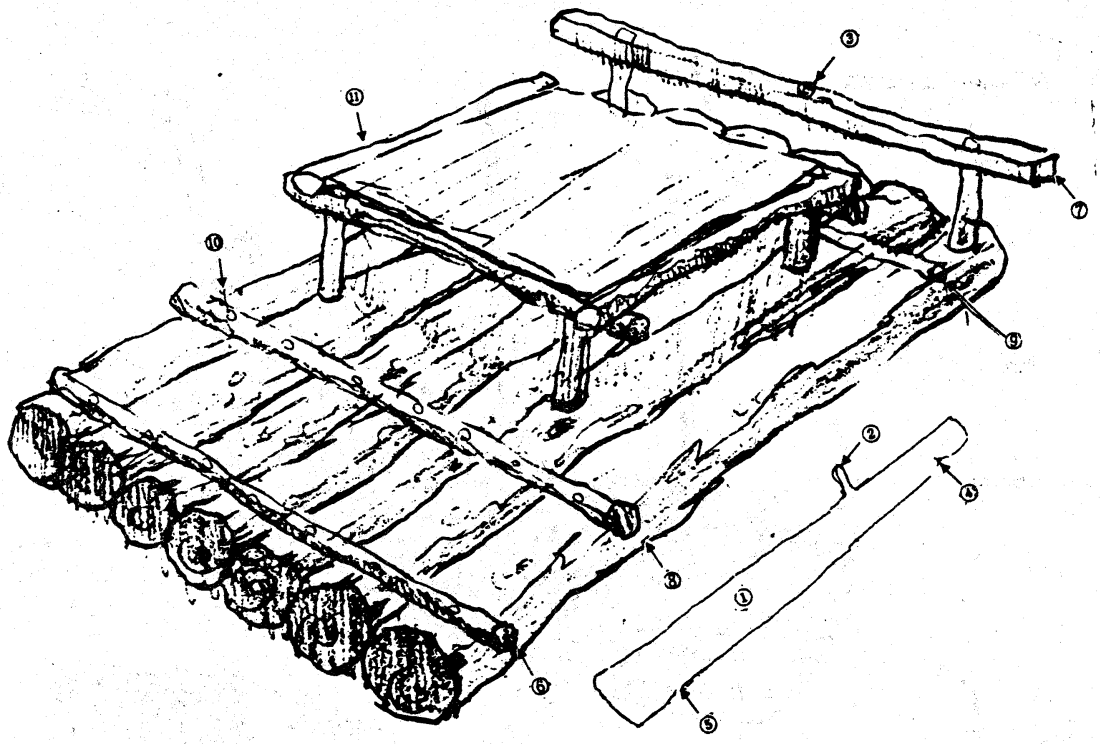
1) 태우(터위)

① 노

② 놋촛 : 노 걸엉 젓는 거.

③ 노쎕 : 둘를 때 한걸리 돌아가.

④ 뇌착



⑤ 뇟닙

⑥ 앞멍에

⑦ 뒷멍에

⑧ 장수멍에 : 낭마다 고망 뚤랑 낭 질르는 거. 낭 돌아나지 못허게.

⑨ 상방멍에

⑩ 새기

⑪ 상자리

△ 닷돌 : 돌로 된 닷.

2) 돛단배(풍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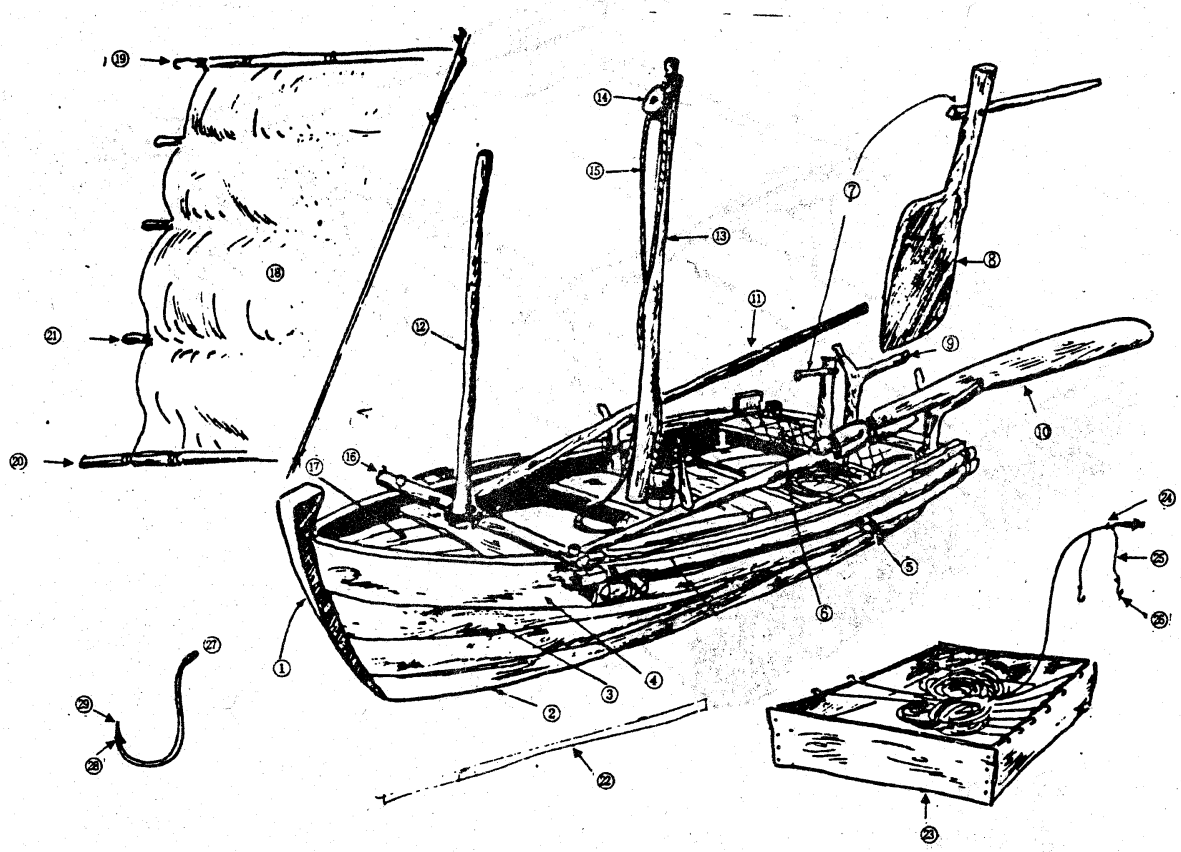
① 묘시

② 밑

③ 부자리

④ 원삼 : 요으로 영 낭 부친 거.

⑤ 한판멍에 : 배 해싸지지 안허게 헌 거.



⑥ 칫 동무니 : 치 끼와서 돌리게 되는 나무.

⑦ 칫장남 : 손으로 이레 밀었다가 저레 밀었다가 허는 거.

⑧ 치

⑨ 강다리

⑩ 하노 : 뒤서 젓는 노.

⑪ 젓거리 : 요의 상 젓는 거.

⑫ 이물돗대

⑬ 허릿돗대

⑭ 용도 : 배가 족으민 나무도 ᄀᆞ늘아지곡 배가 크민 나무가 아름찬다.

⑮ 용총줄

⑯ 이물멍에

⑰ 감방두께(이물두께)

⑱ 초석 : ᄇᆞ름 비껑 가는 거.

⑲ 상활 : 제일 우의 거.

⑳ 알활대

㉑ 활대

㉒ 사울대 : 엷은 듸 오민 나무 영 긴 거 과짝헌 거 ᄆᆞ이 들어올 때 노 못 젓을 땐 걸로 받아가지고 ᄆᆞ이 들어오는 거.

㉓ 주낫 상지

㉔ 주낫줄

㉕ 아랫장

㉖ 낚싯매

㉗ 툭머리

㉘ 미늘

㉙ 낚시끝 : 봉오지

㉚ 닷가지 : 쉐로 맨든 닷.

㉛ 닷소 : 배 매어두는 돌.

3) 잠녀도구(물질헐 때)

①속곳 ②적삼 ③물수건 ④족은눈 ⑤ᄒᆞᆨ태왁/콕박 ⑥비창 ⑦갈쿠쟁이/갈쿠리/토맹이 ⑧작살/소살 ⑨골갱이 ⑩망실이 ⑪손뽁닥 : 우미 뽑을 때민 껑 헤난 거.

⑫ 뽕돌 : 물속에 ᄀᆞᆯ라 앉은덴 헤영 뽕돌이라. 뽕돌 차사 물러레 수짝수짝 들어가주. 물에 그냥 부꺼비어.

4) 어패류

(1) 어류

①혹상애 ②백서위 ③모도리 ④어잇 ⑤숭애 ⑥농어 ⑦가문돔 ⑧구릿 ⑨오태미 ⑩족은동치/베들레기 ⑪큰돔 ⑫우럭 ⑬삼치 ⑭갈치 ⑮어우네기 ⑯졸락 ⑰보들락 ⑱코생이 ⑲어랭이 ⑳볼락 ㉑독대기 ㉒실어랭이 ㉓놀치 ㉔각재기 ㉕고등애 ㉖매리치 ㉗물톳 ㉘다금바리 ㉙논쟁이 ㉚객주리 ㉛북발이 ㉜왱이 ㉝솔치

㉞개우리 ㉟광어

△ 혹상앤 사름해쳐. 백서원 사름 해치지 않아.

(2) 게류

①펄겡이 ②심방겡이 : 곱닥헌 거. ③똥겡이 ④털겡이 ⑤곤쏠겡이(춥겡이)

⑥총겡이 ⑦돌팡겡이

⑧ 훈켕이 : 딱 좁지젠 딱 벌경 팔팔 ᄂᆞ는 거. 몸뚱이보다 다리가 긴 거. 심지도 못헤여.

⑨ 돔박겡이 : 큰 겡이 고란 돔박겡이랜 허곡. 그건 돔박 닮은 거주게.

⑩ 하레비 겡이 : 발이 크주.

⑪ 모살켕이 : 발 뭉크락 헌 거.

⑬ 듬북겡이 : 벌겅헌 거.

(3) 보말류

① 돌포말 : 칼칼 씌어.

② 먹보말

③ 가매기보말

④ 춥고매기 : 잰잰헌 거. 두껑어신 거.

⑤ 수두리 보말

⑥ 매웅이

⑦ 심방보말

⑧ 거짓말 보말

⑨ 왼보말 : 시장가민 뿔아 먹는 거.

⑩ 코토데기 보말 : 코 토다졋덴 헨 경 헌 거주.

△ 게들락 : 보말 껍데기에 들어간 거.

구쟁이 까 먹으민 게들락이 그듸 들어강 아자비어.

△ 굼벗

△ 쟁배룸

(4) 조개류

① 풋조개 ② 돌조개 ③ 귀막조개

△ 오분재기

(5) 기타

① 문어 : 문개

② 오징어 : 오징애

③ 물꾸럭 : 물꿀맹이/이실맹이-놀 불민 ᄀᆞ이 올라.

④ 해파리 : 우박망태

너울너울헌 거, 씨민 사름 죽곡 헤여. 발이 퍽삭퍽삭 헌 거 콧고망이 들어강.

⑤ 해삼 : 미

⑥ 소라 : 구젱이

⑦ 성게 : 쿼

솜 : 족은 거

⑧ 멍게 : 멍지

⑨ 말미잘 : 몰믈ᄌᆞ름

⑩늦(쐐기) : 늦은 그 옌날 사름 예저가 죽은 혼정이옌 허여. 바당물 ᄄᆞ신 땐 늦이옌 헌 것이 욤통을 쐐어블민 두 갓 출령 막 볼나위 어시 헤여사 풀어진덴 헤여. 쐐어도 쐐는 사름도 몰라. 어떵 헹 쐐여블민 막 죽엇당 깨어.

Ⅵ. 地　　名

1. 동김녕리 지명

1) 하늘레 : 1340 대 해

2) 뱃머리 : 1347 대 해

3) 소여 : 1338 대 해

4) 개못 : 1373 일대

5) 망태목 : 1400-1 대 일대

6) 신수물 : 1321 대 해
7) 청굴물 : 1287-1 대 해
8) 쇠동산 : 1609 임 일대
9) 샛골 : 1643-1 대 일대 앞도로
10) 막은골 : 1625 대 일대
11) 실내물 : 1277-2 잡 해
12) ᄉᆞ거리 : 1516-1 대 일 대
13) 도대불 : 1261 대 해
14) 납산이 : 1267-12 대
15) 세개알 : 1265-3 대
16) 개웃샘물 : 1493-1 대 일대
17) 장판이 : 장터 1235 대 일대
18) 두럭산
19) 돗짠물 : 1222-10 잡 해
20) 바짓머를 : 1245-2 대 해
21) 성세기 : 1296-1 전 해
22) 성세깃당 : 1176 전 근처
23) 가수여
24) 자자기터
25) 삭시꼴(중올레) : 102 전 일대
26) 굴머셋길 : 795-4 임 일대
27) 굴머세 : 280 전 일대
28) 신산당(열 사흘 당) : 1744 임 일대
29) 도랭이못 : 272-3 전 일대
30) 굳은 밭 : 1066 전
31) 입산봉
32) 미륵당(연못)
33) 답단이(막은다리)

34) 궤눼깃당(돗제당)
35) 빌레왓
36) 거커머루 : 1852 임
37) 남문굴 : 1892 임
38) 남문 : 1791 전 일대
39) 왕절동네
40) 동성1동 : 1276 대~1247 대~1260-4 대 일대
41) 동성2동 : 1383 대~1507 전~1156 전~1216-5 전 일대
42) 신산1동 : 1671-1 전~1517-1 전~1578-2 대
43) 신산2동 : 1618-1 대~1638 대~1653 대~1651-1 대 일대
44) 청수1동 : 1295 대~1278 대~1277-2 잡~1466-1 대~1434-1 대
45) 청수2동 : 1309-1 대~1324-2 대~1407-1 대~1434-2 대 일대
46) 봉지1동 : 1338-1 대~1296-1 대~1349 대 일대~1654 학교 일대
47) 봉지2동 : 1377 대~1617-1 대~1596-1 대~1362 대 일대

2. 서김녕리 지명

1) 용머리 : 1167 대 해
2) 남당알 : 1153 대 해
3) 당올레 : 1006-1 대 일대
4) 조근한수 : 1052-4 잡~1056 대~1059-4 잡 일대 해
5) 한수 : 1141 대~1114 전~1108-2 대~1059-4 잡 일대 해
6) 축항코지 : 1197-5 대 해
7) 춤포렛여 : 1197-5 대 해
8) 고분자 : 1197-5 대 해
9) 비석거리 : 988-1 대 일대
10) 조개머를 : 925 전 일대
11) 물드덕밭 : 914-1 전

12) 부무술 : 845 전
13) 일뤳당 : 864 전
14) 고냥물 : 1112 전 해
15) 수감물 : 1136 전 해
16) 흐른물 : 1109 대 일대
17) 만물 : 1147 전 해
18) 붙은한개 : 1126-1 전 해
19) 좁은새끼 : 1234-2 도 일대
20) 할망당(서문) : 1214-1 전 일대
21) 영등물 : 1214-1 전 해
22) 목지코지 : 1266 전 일대
23) 목지다리 : 1266 전 일대
24) 목지 : 1266 전 일대
25) 수어세
26) 소노비 : 1264 전 일대
27) 소노비코지 : 1264 전 일대
28) 정순여 : 1261-1 전 전해(前海)
29) 오미
30) 모랫발물
31) 방머를 : 1255 전 일대
32) 뱅디
33) 쇠스랑밭 : 805 전 일대
34) 답선디 : 226 전 일대
35) 산전머를/산재머를 : 754 전 일대
36) 새ᄆᆞ실 : 201 전
37) 한거리 : 214 대 일대
38) 원빌레/원삘레 : 56 전
39) 방세기 : 134 전 일대

40) 진머를 : 705 전~707~1 전 일대

41) 선유물 : 799 임 내(內)

42) 엄남머들

43) 논밭두덕 : 737 임 일대

44) 득지논 : 734 전 일대

45) 큰 남생이

46) 월란술이

47) 돗술

48) 노릉기

49) 샛질

50) 납세 : 669-1 전

51) 서고살미 : 671-1 전 일대 산

52) 동고살미 : 296 전 일대 산

53) 오ᄅᆞ콤 : 294 임

54) 지서막 : 291 전 일대

55) 포젯터

56) 용두동 : 1168 대~1042 대~949 대~20-1 대~1-1 대 일대

57) 한수동 : 979 전~111 대~1092-2 대~1184 대 일대

58) 대충동 : 976-1 대~997-1 대~22-5 대~39 대~60 전 일대

59) 남흘동 : 867-1 대~186 대~1429 전~912 전 일대

※본 조사에 협조해 준 제보자는 다음과 같다.

강 군 자(여·66, 신산1동)	이 달 통(여·75, 한수동)
고 경 훈(여·78, 대충동)	이 봉 선(여·89, 대충동)
김 일 득(여·84, 신산동)	임 애 월(여·66, 대충동)
김 태 일(여·68, 한수동)	한 두 식(남·71, 고봉동1조)
김 학 선(여·71, 대충동)	한 순 화(여·61, 대충동)
박 용 배(남·78, 한수동)	현 인 수(남·82, 대충동)
백 응 기(남·72, 한수동)	황 태 길(남·91, 대충동)

民　　謠

目　　次

Ⅰ. 勞動謠
1. 멸치 후리는 노래
2. 해녀 노래
3. 맷돌 노래
4. 타작 노래
5. 김매는 노래
6. 방아 노래
7. 밭 밟는 노래

Ⅱ. 타령類
1. 행상 노래
2. 달구 노래
3. 서우젯소리

Ⅲ. 童　謠
1. 자연요
2. 자장가

이번 北濟州郡 舊左邑 민요조사에서는 주로 노동요, 타령류를 중심으로 조사하였다. 해당 지역의 제보자가 제한되어 있어서 넓은 범위의 조사가 불가능했음과 남자 제보자를 만나지 못하였음은 이번 조사과정 중의 유감스러운 일이라 하겠다.

金寧里는 행정구역상 東金寧과 西金寧 두 곳으로 나누어져 있는데, 이번 민요 조사는 東金寧에서 3명, 西金寧에서 2명의 제보자를 통해 이루어졌다. 이중 이 지역의 민요에 대한 선행조사[1]에 참가했던 제보자로는 東金寧에 한 사람만이 생존해 있었다.

1) 玄容駿·金榮敎, 《韓國口碑文學大系 9-1》, 濟州道 北濟州郡篇, 韓國精神文化研究院, 1980.

동요의 경우 김녕국민학교에서 두 차례에 걸쳐 조사하였으나 기존 조사와 내용상 중복되는 부분이 많아 이 부분은 제외했다.

표기는 제보자 발음에 충실하도록 노력하였으며, '제주어 표기법 시안'[2]을 참고하였다. 지면 관계상 사설만 소개하고, 현장론적 조사방법에 따른 구연상황, 제보자 소개, 사설 주해의 명기는 생략하였으며, 민요의 분류에 있어서는 김영돈 교수의 분류[3]에 의거했다.

Ⅰ. 勞 動 謠

1. 멸치 후리는 노래

A 엉허어야 뒤에야
B 엉허어야 뒤에야
A 어기여뒤여 방앙내여
B 엉허어야 뒤에야
A 당선에서 멜발을보고
B 엉허어야 뒤에야
A 망선에서 후림을놓져
B 엉허어야 뒤에야
A 닷배에서 진을재왕
B 엉허어야 뒤에야
A 농궹이와당에 다몰려놓고
B 엉허어야 뒤에야
A 한불로 멜나감쩌
B 엉허어야 뒤에야
A 앞궤기는 선진을놓고
B 엉허어야 뒤에야
A 뒷궤기는 후진을놓으라
B 엉허어야 뒤에야
A 공원제장 소임덜아
B 엉허어야 뒤에야
A 요궤기지처 어떵홀꼬
B 엉허어야 뒤에야
A 망선당선에 봉기를꼽앙
B 엉허어야 뒤에야
A ᄒᆞ를헤원퍼도 다못푸켜
B 엉허어야 뒤에야
A 공원제장 소임덜은
B 엉허어야 뒤에야
A 밥주걱심엉 춤을춘다
B 엉허어야 뒤에야
A 우리조상 하던일을
B 엉허어야 뒤에야
A 잊지말앙 뒈살려보쥬
B 엉허어야 뒤에야
A 어기여뒤여 방앙내여
B 엉허어야 뒤에야

2) 金榮敦·玄容駿·玄吉彦, 《濟州說話集成(1)》, 濟州大學校 耽羅文化硏究所, 1985.

3) 金榮敦, 《濟州島民謠硏究 上》, 一潮閣, 1965.

A 잡은멜을 하영걸어놓고 A 족은뚤은 법환리풀민
B 엉허어야 뒤에야 B 엉허어야 뒤에야
A 큰뚤은 비양도풀고 A 두늙은이만 이멜지체처량ᄒᆞ리
B 엉허어야 뒤에야 B 엉허어야 뒤에야
A 셋뚤은 가파도풀고 A 어기여뒤여 방앙내여
B 엉허어야 뒤에야 B 엉허어야 뒤에야

(A : 김경성, 여 · 59, B : 김순녀, 여 · 63, 김춘정, 여 · 52)

2. 해녀 노래

A 이여도싸나 B 이여도싸나 A 끊어진덜 B 끊어진덜
A 요넬젓엉 B 요넬젓엉 A 부산항구 B 부산항구
A 어딜가리 B 어딜가리 A 엇일손가 B 엇일손가
A 진도바당 B 진도바당 A 우리어멍 B 우리어멍
A ᄒᆞᆫ골로가면 B ᄒᆞᆫ골로가민 A 날날적의 B 날날적의
A ᄒᆞᆫ착손에 B ᄒᆞᆫ착손에 A 가시남의 B 가시남의
A 테왁을쥐곡 B 테왁을쥐곡 A 몽고지에 B 몽고지에
A ᄒᆞᆫ착손에 B ᄒᆞᆫ착손에 A 손에궹이 B 손에궹이
A 빗창을쥐곡 B 빗창을쥐곡 A 박으랴고 B 박으랴고
A ᄒᆞᆫ질두질 B ᄒᆞᆫ질두질 A 날낭던가 B 날낭던가
A 들어간보난 B 들어간보난 A 이여도싸나 B 이여도싸나
A 저싱길이 B 저싱길이 A 쳐라쳐라 B 쳐라쳐라
A 분멩ᄒᆞ다 B 분멩ᄒᆞ다 A 요놋뎅이 B 요놋뎅이
A 이여도싸나 B 이여도싸나 A 뭣을먹고 B 뭣을먹고
A 쳐라쳐라 B 쳐라쳐라 A 둥긋둥긋 B 둥긋둥긋
A 요네상착 B 요네상착 A 솔쪄싱고 B 솔쪄싱고
A 끊어진덜 B 끊어진덜 A ᄇᆞ름통을 B ᄇᆞ름통을
A 가시낭긔 B 가시낭긔 A 먹어싱가 B 먹어싱가
A 엇일소냐 B 엇일소냐 A 구름통을 B 구름통을
A 요네벤드레 B 요네벤드레 A 먹어싱가 B 먹어싱가

A 둥긋둥긋　B 둥긋둥긋　A 가민가고　B 가민가고
A 잘올라온다　B 잘올라온다　A 말민말지　B 말민말지
A 이여도싸나　B 이여도싸나　A 초신을신고　B 초신을 신고
A 쳐라쳐라　B 쳐라쳐라　A 시집을가지　B 시집을가지
A 물로야뱅뱅　B 물로야뱅뱅　A 이여도싸나　B 이여도싸나
A 돌아진섬에　B 돌아진섬에　A 쳐라쳐라　B 쳐라쳐라
A 버나굶으나　B 버나굶으나　A 님은가고　B 님은가고
A 이물질ᄒᆞ영　B 이물질ᄒᆞ영　A 봄은오니　B 봄은오니
A 정든님주젠　B 정든님주젠　A 몸만희여　B 몸만희여
A 엿사다놓니　B 엿사다놓니　A 인생은간다　B 인생은간다.
A 동풍에　B 동풍에　A 이여도싸나　B 이여도싸나
A 다녹아간다　B 다녹아간다.　A 쳐라쳐라　B 쳐라쳐라
A 이여도싸나　B 이여도싸나　A 잘넘어간다　B 잘넘어간다
A 쳐라쳐라　B 쳐라쳐라　A 선두사공　B 선두사공
A 우리베는　B 우리베는　A 벳머리만　B 벳머리만
A 촘나무로　B 촘나무로　A 돌려줍서　B 돌려줍서
A 짓인베라　B 짓인베라　A 젓거리로　B 젓거리로
A 잘도간다　B 잘도간다　A 우경간다　B 우경간다
A 이여도싸나　B 이여도싸나　A 이여도싸나　B 이여도싸나
A 쳐라쳐라　B 쳐라쳐라　A 쳐라쳐라　B 쳐라쳐라

(A : 김경성, 여 · 59, B : 김순녀, 여 · 63)

3. 맷돌노래

3-1

A 이여이여　이여도ᄒᆞ라　A ᄀᆞ레도　지난도ᄒᆞ네
B 이여이여　이여도ᄒᆞ라　B ᄅᆞ아가도　지난도ᄒᆞ네
A 이여방에　ᄅᆞ아나보카
B 이여방에　ᄅᆞ아나보카　A 하영먹젠　산전에올라
A ᄀᆞ레도사　지남석ᄀᆞ레　B 하영먹젠　산전에올라
B 이ᄀᆞ레　ᄅᆞ아나보게　A 머의정당　쒜정당줄에

B 머의정당　　쎄정당줄에　　B 날만못ᄒᆞᆫ　　정네도산다
A 발을걸련　　유울엄서라　　A 날만못ᄒᆞᆫ　　시네도산다
B 발을걸련　　유울엄서라　　B 날만못ᄒᆞᆫ　　시네도산다
A 이여이여　　이여도ᄀᆞ레　　A 어느꽝을　　구덕에담앙
B 이여이여　　이여도ᄀᆞ레　　B 어느꽝을　　구덕에담앙
　　A 정궁저로　　저이멍살리
A 날만못ᄒᆞᆫ　　정네도산다　　B 정궁저로　　저이멍살리

(A : 송유화, 여 · 74, B : 고득화, 여 · 71)

3-2

A 이여이여　　이여도ᄒᆞ라　　A 임광나는　　ᄒᆞᆫ짝씩이여
B 이여이여　　이여도ᄒᆞ라　　B 임광나는　　ᄒᆞᆫ짝씩이여
A ᄒᆞ루ᄎᆞ녁　　밀닷말ᄀᆞᆯ안　　A 지픈물에　　가다나온다
B ᄒᆞ루ᄎᆞ녁　　밀닷말ᄀᆞᆯ안　　B 지픈물에　　가다나온다
A 주억삼메　　다섯을주난　　A 노픈낭게　　어여쁜ᄋᆞᆯ매
B 이여이여　　이여도ᄀᆞ레　　B 노픈낭게　　어여쁜ᄋᆞᆯ매
A 씨아바님　　둘드리고　　A 본디아니　　ᄋᆞᆯ지도말라
B 씨아바님　　둘드려두고　　B 이여이여　　이여도ᄀᆞ레
A 씨어머니　　둘드리고　　A 이여이여　　이여도ᄀᆞ레
B 이여이여　　이여도ᄀᆞ레　　B 이여이여　　이여도ᄀᆞ레

(A : 김경성, 여 · 59, B : 김순녀, 여 · 63)

4. 타작노래

A 어어야홍아　　B 어어야홍야　　A 요동산을　　B 요동산을
A 어기야홍　　B 어기야홍　　A 헤쳐보자　　B 헤쳐보자
A 요건누게　　B 어기야홍　　A 어기야홍　　B 어어야홍
A 앞일러냐　　B 어어야홍　　A 메누리야　　B 메누리야
A 설룬정네　　B 설룬정네　　A 들어사라　　B 들어사라
A 앞이로구나　　B 어어야홍　　A 둘이들언　　B 둘이들언

A 산이로구나
A 멕사리엇언
A 못ᄒᆞ로구나
A 질ᄀᆞ집의
A 도실낭싱건
A 족은년아
A 씨냐 냐
A 맛볼인셔도
A 족은년아
A 남비차락
A 앗앙오라
A 먼딧사름
A 듣기나좋게
A ᄇᆞ딘딧사름
A 보기좋게
A 어어야홍
A ᄒᆞ일이나
A 진곡이라도
A 도웰일엇나
A 조캉메기
A 거두와 령
A 메구나놓자
A 어어야홍
A 높은낭에
A ᄋᆞᆯ매ᄋᆞᆯ려
A 어느새가
A 앗아가나
A 어어야홍
A 쪼차들멍

B 산이로구나
B 멕사리엇언
B 어어야홍
B 질ᄀᆞ집의
B 도실낭싱건
B 족은년아
B 어기야홍
B 맛볼인셔도
B 족은년아
B 남비차락
B 앗앙오라
B 먼딧사름
B 듣기나좋게
B ᄇᆞ딘딧사름
B 보기좋게
B 어기야홍
B ᄒᆞ일이나
B 진곡이라도
B 도웰일엇나
B 조캉메기
B 거두와 ᄅᆞ령
B 메구나놓자
B 어기야홍
B 높은낭에
B ᄋᆞᆯ매가ᄋᆞᆯ려
B 어느새가
B 앗아감싱고
B 어기야홍
B 쪼차들멍

A 뚜려나보자
A 쪼차들멍
A 때려보자
A 뱃동알을
A 하늘을붸앙
A 요동산을
A 헤청보라
A 어어야홍
A 은사실티
A 금사실티
A 간장간장
A 맺힌간장
A 고비나고비
A 두드려보자
A 어어야홍
A 날만못난
A 정네도산다
A 날만못난
A 시네도산다
A 해다진날
A 지는꼿광
A 어느꽝을
A 구덕에담앙
A 나전싱은
A ᄀᆞ뜨구나
A 정궁제를
A 지으멍산다
A 어어야홍

B 어기야홍
B 쪼차들멍
B 어기야홍
B 뱃동알을
B 하늘을붸앙
B 요동산을
B 헤청보라
B 어기야홍
B 은사실티
B 금사실티
B 간장간장
B 맺힌간장
B 고비나고비
B 어기야홍
B 어기야홍
B 날만못난
B 정네도산다
B 날만못난
B 시네도산다
B 해다진날
B 지는꼿광
B 어느꽝을
B 어기야홍
B 나전싱은
B ᄀᆞ뜨구나
B 정궁제를
B 지으멍산다
B 어기야홍아

(A : 김경성, 여 · 59, B : 김순녀, 여 · 63)

5. 김매는 노래

A 어어향어기야 뒤야로구나
B 어어향어기야 뒤야로고나
A 검질짓고 굴너른밧듸
B 어어향어기야 뒤야로고나
A 조름이 벗이로구나
B 어어향어기야 뒤야로고나
A 앞멍에야 들어나오라
B 어어향어기야 뒤야로고나
A 뒷멍에야 나고나가라
B 뒷멍에야 나고나가라
A 임아임아 정든님아
B 임아임아 정든님아
A 임도싫ᄀᆡ 날ᄇᆞ려가나
B 임도싫경 날ᄇᆞ려가나
A 나도가민 임이잇나
B 나도가민 임이잇나
A 이메노판 저메로가난
B 이메노판 저메로가난
A 더사노픈 당산메라
B 더사노픈 당산메라
A 어야차소린 닷갱기소리
B 어야차소린 닷갱기소리
A 뒤야차소린 베놓는소리
B 뒤야차소린 베놓는소리
A 어기야뒤야 방에로고나
B 어어향어기야 뒤야로고나
A 지픈물은 가다나온다
B 지픈물은 가다나온다
A 노픈낭게 어여쁜 올매
B 노픈낭게 어여쁜 올매
A 듬시렁이 올데민ᄒᆞ라
B 듬시렁이 올데민ᄒᆞ라
A 어기야뒤야 방에로고나
B 어어향어기야 뒤야로고나
A 천추만년 난살을집이
B 천추만년 난살을집이
A 석곽으로 다이영간다
B 석곽으로 다이영간다
A 이놈상놈 쉐ᄀᆞ뜬놈아
B 이놈상놈 쉐ᄀᆞ뜬놈아
A 소리로나 이경가자
B 어어향어기야 뒤야로고나
A 대천바당 가운디들엉
B 대천바당 가운디들엉
A 돌진 돌밤 새고나가라
B 돌진 돌밤 새고나가라
A 셈이나세영 말이나ᄒᆞ라
B 셈이나세영 말이나ᄒᆞ라
A 어어향어기야 뒤야로구나
B 어어향어기야 뒤야로구나

(A : 김경성, 여 · 59, B : 김춘정, 여 · 52)

6. 방아노래

6-1

이여이여 이여도ᄒᆞ라
가시오름 강당장칩의
ᄉᆡ콜방이 새글러서라
전셩궂은 요내몸가난
ᄋᆞᄉᆞ콜로 새맞아서라
이여이여 이여도ᄒᆞ라

(김순녀, 여 · 63)

6-2

이여이여 이여도ᄒᆞ라
가시오름 강당장칩의
ᄉᆡ콜방에 새글러서라
아기야 울지마라
ᄒᆞᆫ저뱃앙 너에게주마
이여이여 이여도ᄒᆞ라
이여방이 고들배지영
ᄌᆞ냑이나 붉은때ᄒᆞ라
이여이여 이여도ᄒᆞ라

(송유화, 여 · 74)

7. 밭 밟는 노래

어러러 어러러월월
어기야뒤야 산이로구나 월월
어러러러월월 재게ᄆᆞ라
어기야뒤야 산이로구나 월월
어러러러월월 요놈의 짐승들아
ᄒᆞᆫ저나가라 월월 어러러월월
어러러 어러러월월
국화꽃은 봄날도 싫어해
구월달 찬서리에 너만 홀로 피엇구나
어기야뒤야 산이로구나 월월
어러러 어러러월월
이걸ᄒᆞ민 솟아나온다
일년열두달 먹을 군량미로구나
어러러러월월 요놈의 짐승들아
ᄒᆞᆫ저나가라 월월 어러러월월
산천초목들이 구경하기가
참좋아진다 어러러러월월
어기야뒤야 산이로구나 월월

(송유화, 여 · 74)

Ⅱ. 타 령 類

1. 행상 노래

A 엉허야 어야로다 A 간다간다 나는간다
B 엉허야 어야로다 B 엉허야 어야로다

A 북망산천으로 나는가네
B 엉허야 어야로다
A 아버님전 피를빌고
B 엉허야 어야로다
A 어머니전 술을빌고
B 엉허야 어야로다
A 철성님께 멩을빌고
B 엉허야 어야로다
A 북망산천으로 나는간다
B 엉허야 어야로다
A 우리가살면 멧백년사나
B 엉허야 어야로다
A 저승삶은 천만년이요
B 엉허야 어야로다
A 이승삶은 꿈이로구나
B 엉허야 어야로다
A 죽어이별은 영이별이요
B 엉허야 어야로다
A 살아이별은 생이별이요
B 엉허야 어야로다
A 부모처자 놓아두곡
B 엉허야 어야로다
A 어린주식 놓아두곡
B 엉허야 어야로다
A 저승이라 멀댕말라
B 엉허야 어야로다
A 이문바끄 저승이라
B 엉허야 어야로다
A 이문바끄 나가보난
B 엉허야 어야로다
A 친구도 웃어란
B 엉허야 어야로다
A 부모처자도 웃어라
B 엉허야 어야로다
A 오늘ᄒᆞ루 이별ᄒᆞ문
B 엉허야 어야로다
A 또어느제 만나지카
B 엉허야 어야로다
A 요세상에 살단사름
B 엉허야 어야로다
A 무신일로 죽어가는고
B 엉허야 어야로다
A 죽어호ᄉᆞ 살아호ᄉᆞ
B 엉허야 어야로다
A 오늘영화가 막영화로다
B 엉허야 어야로다
A 북망산천 태역강토
B 엉허야 어야로다
A 그그늘로 내가랜햄샤
B 엉허야 어야로다
A 간다간다 나는간다
B 엉허야 어야로다
A 북망산천으로 나는간다
B 엉허야 어야로다

(A : 김경성, 여 · 59, B : 조사자)

2. 달구 노래

A 엉허야 달구
B 엉허야 달구
A 천지간에 영을받곡
B 엉허야 달구
A 칠성님께 남을받곡
B 엉허야 달구
A 제성님전 복을빌엉
B 엉허야 달구
A 부모에게 솔을받곡
B 엉허야 달구
A 이세상에 탄생ᄒᆞ난
B 엉허야 달구
A 멧백년이나 살을소냐
B 엉허야 달구
A 천추만년 네살집을
B 엉허야 달구
A 달컷대로 짓엉살자
B 엉허야 달구
A 좌청룡에 우백호는
B 엉허야 달구
A 완연히 ᄀᆞᆯ려잇곡
B 엉허야 달구
A 노적봉이 비취시니
B 엉허야 달구
A 부제가 날것이요
B 엉허야 달구

(A : 송유화, 여 · 74, B : 고득화, 여 · 71)

3. 서우젯소리

A 어허어양 어기로 방에로구나
B 아하아양 어허어야 허어요
A 한로영산 한로나영산 아름다운 우리도 제주도
B 아하아양 어허어야 허어요
A 한로산을 들어간보난 저산뒤엔 절오백이고
B 아하아양 어허어야 허어요
A 이산앞원 당오백에 아흔아홉이 굼부리로다
B 아하아양 어허어야 허어요
A 산천초목 속입난듸 구경가기 질거워지네
B 아하아양 어허어야 허어요
A 남도늙엉 고목이뒈민 놀던새도 놀아나고
B 아하아양 어허어야 허어요
A 꼿도늙엉 낙화가뒈민 부뜨단나비도 놀아난다.
B 아하아양 어허어야 허어요

A 나도늙엉 백수가뒈민 오단님도 뒈돌아사네
B 아하아양 어허어야 허어요
A 서우젯소리 ᄒᆞ거든에 심방이카부댕 ᄒᆞ지맙서
B 아하아양 어허어야 허어요
A 어양뒤양 어양뒤양 방에로고나
B 아하아양 어허어야 허어요
A 산넘어도 산잇더라 물넘어도 물잇더라
B 아하아양 어허어야 허어요
A 어햐랑창 바쁜질랑 정심참이 늦어지고
B 아하아양 어허어야 허어요
A 창밖의 오는비는 어느디서 오실러냐
B 아하아양 어허어야 허어요
A 설룬정네도 눈물이더라 어향뒤향 방에로고나
B 아하아양 어허어야 허어요

(A : 송유화, 여 · 74, B : 고득화, 여 · 71)

Ⅲ. 童　　謠

1. 자연요

1-1 꿩 노래

꿩꿩 장서방 어쩌어찌 살앗나
콩밧포밧 뱅뱅돌멍
콩ᄒᆞᆫ방울 포ᄒᆞᆫ방울 찍어먹으멍
그럭저럭 살아요

(김경성, 여 · 59)

1-2 게 노래

신다리 신다리 개천개
신에머즘 버문개
오줌싸 곤아곤아
오줌싸라 졸깍 새끈

(김경성, 여 · 5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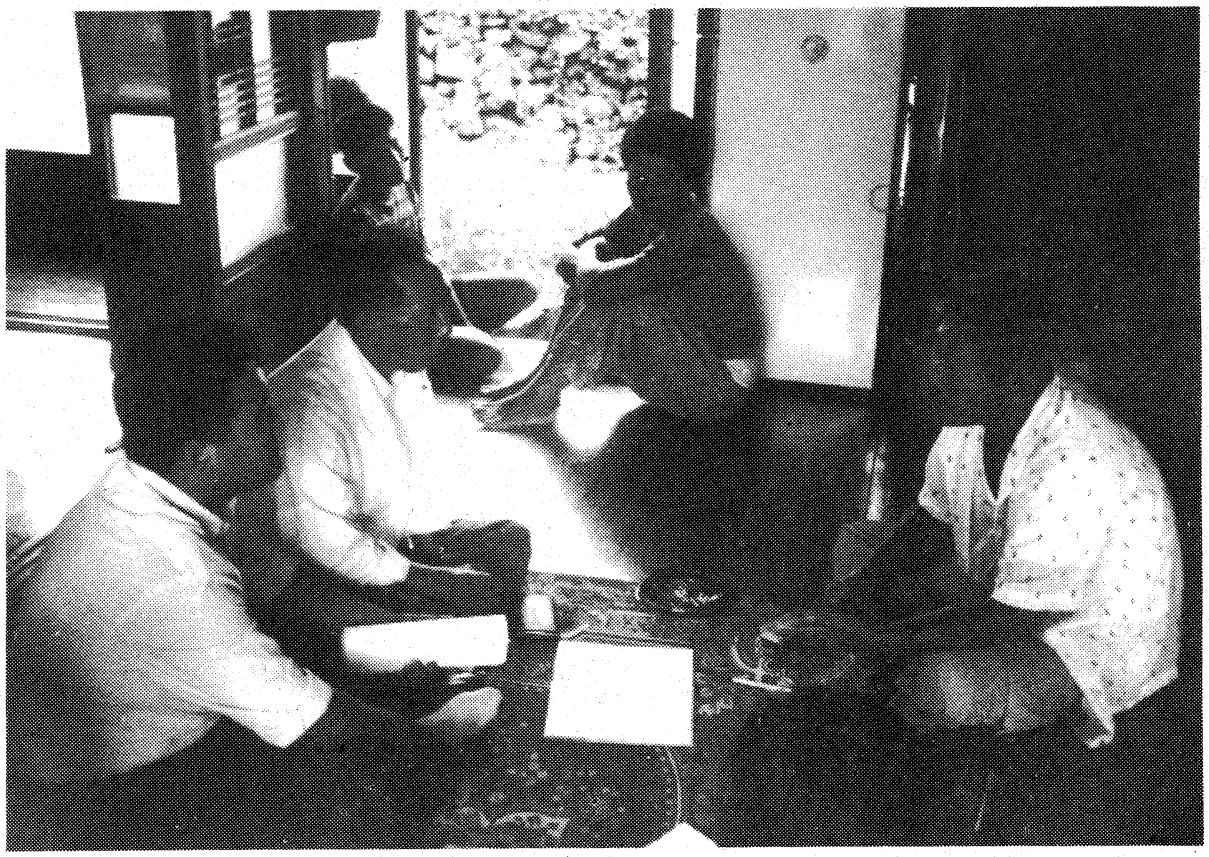
2. 자장가

2-1 자장가

北濟州郡 舊左邑 金寧里

자랑자랑 웡이자랑 이레오는 검둥개야
훈저자라 웡이자랑 우리애기 재와도라
우리아기 자는소리 우리애기 재와주민
유기제물 제운소리 늬네애기 재와주마
놈의아기 자는소리 자랑자랑 웡이자랑
환상비체 제운소리 나라에는 충성동이
자랑자랑 웡이자랑 집에서는 화목동이
우리애기 잘도잔다 자랑자랑 웡이자랑
저레가는 서동개야 자랑자랑 웡이자랑

(송유화, 여 · 74)



說　　話

目　次

1. 자자구터 (1)	8. 김녕사굴 (1)	15. 효자 다리
2. 자자구터 (2)	9. 김녕사굴 (2)	16. 여우 이야기 (1)
3. 자자구터 (3)	10. 김녕사굴 (3)	17. 여우 이야기 (2)
4. 서 말(徐末)	11. 두럭산 (1)	18. 생인대체한 부자
5. 지혜로운 노인	12. 두럭산 (2)	19. 장동지
6. 남서구(南師古)	13. 아혼 아홉 골	20. 호랑이 이야기(1)
7. 콩덱이와 풋덱이	14. 뱀고개	21. 호랑이 이야기(2)

1. 자자구터 (1)

Tape 1-A면

제 보 자 : 김두원(남 · 82세)

조사일자 : 1988년 7월 28일

조사장소 : 김두원 할아버지 댁

그때에 그 아마 한 150년 되신가, 그 자자구 난리터[1]라고. 이 거멘 이 모살(모래), 김녕 저 동동네 저쪽 지나민 성새기 모살, 거기선 죽였다고 헸는디,

1) 동김녕 멸치어장 부근.

뭐 성교 난리(聖教亂離)[2] 때 죽였다곤 그런 말을 혰는데, 이제 교를 믿으면서 이제 무을 사름을 많이 그 죽이고 헤서 나쁜 짓을 많이 헌 모냥이라. 한자자귀가, 성이 한간(韓哥ㄴ)디, 한자자귀라곤. 헤노니까 그 나쁜 짓을 많이 헤노니까 그 김녕 이민이 가서 이제 그놈 좇아가민(쫓아가면) 동(東)더레 드르니까(달아나므로) 그 모살에 가서 이제 성새기[3] 모살이라곤 그 모살에 당도허니까, 그냥 그 이놈은 홀 수 어시(없이) 주기 너무 권력(權力) 씨다가 주기 이제 무신(무슨) 곤(教ㄴ)가 그때 믿었다곤 허는디 한자자귀가, 자기 권리만 쓰다가 이제는 권리 쓰는 거 〔청취불명〕 안헤주니까 나쁜 몽니[4]를 부려가니까 이놈 죽이라고 김녕 이민(里民)이 뒤좇아가가지고 헤연. 그걸 허니까 자자구터에 그디 간 돌로 막 무사서(때려서) 그놈을 죽였댄. 헤서 죽은 걸 그냥 모살 파가지고서 모살 구뎅이 쏘굽에(속에) 들여놓고 장서(葬事)도 아니 지내주었다고 그런 말이 이서. 옛어룬덜 ᄀᆞᆫ는(말하는) 거 들으면.

〔ⓒ: 게난 이 사름 이거 성교를 믿으멍 사름덜을 막 못살게 굴었구나양?〕

막 못살게 굴었주. 게부니까 뭐 모둠치기 헤가지고서 모둠치기 헤서 그.

〔ⓒ: 게민 이 사름 생긴 건 어떵허댄 마씸? 막 힘도 세고헌 사름이꽈?〕

아, 힘도 쎄고 아주 몽니가 나쁜 모냥이라. 몽니가 나빠노니깐 그런거지. 몽니 안나빠시믄 그럴 필요가 이서게.

〔ⓒ: 게난 저 주세히 그 어멍 몽니 피왔댄헌 말은 없고양?〕

그때 그 나쁜 짓 많이 헤가지고서 거시기헌 이민덜을 저 너무 그 박허게 굴어서 굴박헤불곡 거시기 허니까, 이놈 허는 행서(행실)가 나쁘다고 헤서 그 김녕 이민이 그놈을 돌로 무사서 죽인거주. 좋은 일 헤시민 그럴 필요가 이서게.

---

2) 이재수 난(李在守亂)을 말함. 이재수는 대정 사람으로 1901년 천주교도들의 횡포와 관리들의 과중한 세금 부과에 항거하여 난을 일으켰다. 성교(聖教)는 천주교.

3) 김녕리 바닷가에 있는 지명. 이곳에 성새깃당도 있다.

4) 심술궂게 욕심부리는 성질.

2. 자자구터 (2)

Tape 3-A면
제 보 자 : 김인조(여·79세)
조사일자 : 1988년 7월 28일
조사장소 : 김인조 할머니 댁

자자구턴 옛날 어떻게 헤서 자자구터냐고 허니까니 옛날에 방성방 난리[1]에 그 자자구라헌 사름이 잇었어.

〔㉠: 예, 방성방 난리마씸?〕

옛날 방성방 난리가 잇어났던 모냥이라. 방성방 난리가 이시니까니 그 자자귀옌헌 사름이 한자자귀라고 허더라. 한자자귀. 경허난 이 사름이 상당히 이제 나쁜 짓을 많이 헌 사름이라. 그 한자자귀 잡을라고 막 그냥 돌아뎅기다보니까니 그 자자귀터옌헌 터가 그 자자귀가 죽어놔서 그 자자귀터라헌 터가 난 거라. 그래서 이제 동김녕 모살에 가민 자자귀터, 자자귀터. 한자자귀랜헌 사름이 거기서 심어놩 돌로 ᄆᆞ사부난 죽었어.

〔㉠: 그 사름이 어떤 나쁜 짓을 해신디마씸?〕

방성방 난리에 그 사름이 나쁜 짓 허니까니 잡을라고 경헌 거 아니여. 잡을라고 막 제주섬 하나 다 돌아도 못잡았는디 마침 거기 오란 잡았어. 거기 오란 잡앙 거기오랑 죽여노니까니 자자귀터라고. 자자귀 죽인 터니까니 자자귀터라고.

---

1) 철종 13년(1862)에 있었던 姜悌儉의 난리. 성방은 형방(刑房).

3. 자자구터 (3)

Tape 4-A면
제 보 자 : 강일채(여 · 83세)
조사일자 : 1988년 7월 29일
조사장소 : 강일채 할머니 댁

한자자귀 잡젠 허난 막 제주섬 사름 다 모돤(모이게 해서). 동(東)이 사는 사름, 서(西)이 사는 사름 허난. 이디 저 이 사름덜은 제주 사름이난 그 산으로 모이다그네 시에설 만나던 삼양(三陽)설 만나던 조천(朝天)설 만나던 세와리(細花里)설 만나던이 아무디서라도 만날거라. 막 포위헤가난. 경허단 만나난 자자귀터에서. 경 요망지고 똑똑허더라 헤여. 그 자자귀, 그 한자자귀가. 너미 똑똑헤부난 죽엇주게.

〔조: 너무 똑똑헤부난 죽어서 마씸?〕

응, 게난 이제 그땐 문멩(文明)이 안되연 그 어리석은 때난 이거 이 유별난 사름나민 이거 이우리 제주 풀아먹을, 백성 풀아먹젠 다 잡아먹으라고 경헷던 게지. 그 땐 몰라부난.

〔조: 게난 자자귀랜헌 사름이 뭐 잘못헹 죽인 게 아니고 마씸?〕

응, 거 나가 ᄌᆞ세히 몰르주마는 부모덜안티 들은 말이라도 자자구 셍교(聖教) 믿는 것에 죽엇다고. 셍교 믿는 것에. 옛날 셍교 믿어부난. 저 그 땐 셍교 믿언. 죄 이시나 어시나 헌 게 아니고 셍교 믿는 사람이옌 그 땐 한자자귀를 경 이제 헤낫젠. 저 한락산 저 ᄃᆞ리(上 · 下道里)에 이신 사름 송당(松堂) 이신 사름 그 때 사름덜 많이 죽엇주. 혼 이백 년 전이난이. 게난 이젠 막 동서(東西)루 위(上)로 알(下)루 막 모돤 포위허난 김녕 자자구터에 오란 심으난. 열개 압이 드난. 지렌(키는) 마직허고 쪼ᄀᆞ만헤도 요망지고 똑똑헤난 생이라. 게난 이제 뭐 열개 압에 든 꿩이라. 돌로 마치는 사름, 몽댕이로 때리는 사름, 손으로 때리는 사름, 발로 때리는 사름. 잽혀노난 기냥. 우리 어머니네 그 옛

말을 골아. 그냥 자자구를 이젠 이디 느랏허난, 그냥 가는 사름도 불르곡(밟고) 오는 사름도 불르곡 그냥 발로 불르곡. 경허난 그 땐 털벙것이 자자구터에, 모살에, 성새기 모살이 거멍헤낫젠. 그 막 그눔 때리젠 심으멍 허여난 것이 벗어지난. 그냥 이젠 그 사름 씨지 못허게 되난 다 내베텡가부런. 게난 더러 저 죽음도 헤연. 사름도. 이쪽 사름도 불르곡 너무 씨난. 경허난 그 자자구터옌 허민 우린 저 검은 저러래 가젠허민 그디 넘어사 가는거라. 물대가리만 봐져도 놀애영 자자구 대맹이영 허곡, 물벡다구만 봐져도 자자구 벡다구옌 허고. 게난 그 때 사름은 많이 죽은디, 자자구 죽은 터는 이디 해수욕장 머륵에 모래밧.

4. 서 말(徐末)

Tape 1-A면

제 보 자 : 김두원(남·82세)

조사일자 : 1988년 7월 28일

조사장소 : 김두원 할아버지 댁

옛날 그 엿말을 내가 그 아마 지어낸건지 어떤건지 모르되 서말이라곤헌 이가 잇엇는데, 성이 서가곡 이름은 끝 말잰데, 촌촌 서(徐)째(字) 끝 말(末)잰데, 이제 서당에서 공부헐 땐디 공부허래 간 모든 그 거시기 제저(弟子)들 중에는 제일 공부 실적이 떨어져서. 공부도 실적이 없고 허니까 주기는 공부를 허는디 재주가 없어노니까 이제 실적없고 허는 걸 선생안티 미움도 받고 모든 그 동문덜안티도 미움 받으니까 이놈이 어떤 여산(꾀)을 했는고 허니까 내 이러콤 둔청헤지니까 기도나 좀 허겠다고, 기도헤서 공부나 좀 헤보겠다곤 헤서. 헌데 이놈이 백일을 정성을 허는데 백일정성 기도를 허게 되는데, 이제 구십구일 헤서 그 백일을 차는 날은 그 정성허는데, 그 저 산천에 가가지고 자꾸 기도를 했거든 말이지. 기도허는데 백일차는 기도허는디 쪼끔 기도허고 나올 때는 그 어떤 백발노장이 나와서,

"너 뭔 소원이 거시기헤선 이러콤 산천이 와 기도허느냐"
허니까,

"저는 학식(學識)이 부족되서 만날 배와도 남과 ᄀᆞ치 ᄯᅳ라가지 못허고 허니까 너무 둔감헤서 기도를 헙니다. 공부를 잘헐려곤 기도를 헙니다."

"그래여 그러거든 너 지금 나하고이 만난 말을 일절 선생이 취졸(取調-ㄹ)허던 누게가 물어도 일절 그런 얘길 허지 말라"
곤 헤서. 겟는데 백일찬 날은 거시 산천에 가서 기도헤서 오고 조꼼 그 노장(老長)허고 말헤나니깐 좀 시간이 좀 늦엇던 모냥이여. 게 서당에 갔는데 선생이 허는 말이,

"너 이놈 남과 ᄀᆞ치 공부도 못허는 놈이 일찍 오라서 공불허지 않고 지금까지 뭘헸느냐"
곤 말이지.

"너 어디 못허는 놈이 좀 일찍 오라서 남보다 혼재(字)라도 더 캐젠 안허곡 뱁젠 안허곡 거시기 허니까 거시기 헌다"
곤 이놈안티 이제는 거시기를 물어봥 이놈이 취조헤가니까 이 그 제저 허는 말이 뭐인고 허니까, 서말이라곤 허는 말이 뭐옌 허는고 허니까,

"성서(姓徐)허니 보서서(步徐徐)요 멩말(名末)허니 내말말(來末末)이라"
헸거든. 성이 서가니까 촌촌 서(徐)째니까 촌촌히 걸어서 오고 이름이 끝 말(末)째니까 끝끝에 왔읍니다 허고, 성서허니 보서서요 멩말허니 내말말이라. 게서 선생 생각헤보니깐 이놈 재주에서 이런 거시기는 안나올거라곤 말이지. 이러콤 나올 필요가 아닌디 이놈을 이젠 문초를 허겠다곤 헤서,

"너 이거 바른대로 ᄀᆞᆯ으라. 바른대로 ᄀᆞᆯ으라"
곤 헤도 그 거시기 헤도 아니 ᄀᆞᆯ았거든. 아니 ᄀᆞᆯ아가니까 이제는 감금시켜 놔가지고서 선생도 아니 나가곡,

"너 바른대로 아니 ᄀᆞᆯ으면 너는 결코 〔청취불명〕 널 똑 바른말 거시기 허겟노라"
곤 헤서 이젠 문초(問招)헤가니깐, 그때는

"내가 공부를 못헌 관계로 백일기도를 허는디 백일기도 허는 날은 백발노장

을 만나서 '너 뭔 소원으로 이러콤 기도를 허느냐'곤 허니깐 '내가 이제 공부를 못헤서 거시기 허니깐 이런 기도를 헙니다' 곤헤서 허니까, '어 그래여, 그럼 내가 널 거시기 헤줄테니까 가거든 나허고 만난, 노장허고 만난 역서(歷史)도 곧지 말곡 누구안티 이 비밀을 탄로말라'곤."

탄로말라곤 헸는디게 탄로헤부난 그런거주게. 탄로헤부난 이젠 그 거시로 그 아이도 이제는 그러콤 영구(硏究) 나오는 게 그만 톡 막아젼 그만 거시기 허곡, 선싱(先生)도 정신벵(精神病) 들여가지고서 그 죄없는 아이안티 너무 이제 문초를 헤부니까 선싱ᄆᆞ지 거시기 헤서 그 정신벵잘 그 정신환잘 멘들아불어서. 이 아이도 둘 다. 경헸다는 그 말을 들었는데.

5. 지혜로운 노인[1]

Tape 1-A면
제 보 자 : 김두원(남·82세)
조사일자 : 1988년 7월 28일
조사장소 : 김두원 할아버지 댁

옛날 중국서 어떤 거시기가 나왓는고 허니까, 한국(韓國)에서 돌배(石船)를 지어오라곤. 돌배를 지어오라곤 그 중국에서 이제 중원에서 거시기 허니까, ᄉᆞ신을 보내서 거시기 허니까, 이제 돌배를 이제 중국에서 지어오라곤. 그러니까 여기 저 충신덜은 훈탄헤서. 충신 아바지 그때 고려장 시길땐데 칠십 넘어불면 이제 고려장 헸거든. 헌디 ᄌᆞ기가 그 ᄌᆞ기 아바지를 굴 파가지고 굴속에서 봉양헐 때거든. 그 이제 말을 그 중국서 그 거시기헌 말을 이제 이 사름이 대신인데 이제 그 대신 아바지를 그 ᄌᆞ기가 아바지를 매장헐 순 없고 허니까 굴속에서 이제 거시기 허는디, 그때 다 이제 그 나라에 거시기헌 일을 ᄌᆞ기 아바지안티 물엇거든.

1) '고려장' 이야기에서 고려장이 없어지는, 뒷부분이 없는 이야기.

"아, 중국서 돌배를 지어오라곤 허니 어떵헤시민 돌배를 지어갈 수 있습니까"

허곤.

"지금 국가에서는 여간 혼탄이 아닙니다."

"그래여, 그 뭐 돌배를 지어갈 수 없느냐곤. 그렇거든 뭐 이런 회신을 허라곤 말이지. '몰애(모래)로 한닷을 지어주면 몰애로 닷, 닷을 멘들아달라곤. 몰애로 한 닷을 이제 멘들아주면 이젠 닷실로 헤서 돌배를 타 가겠읍니다.' 허곤. 거시기 허라"

곤 허니, 아 그때 이 국가에선 한국 국가에서는 어떤고 허니까, 하 그거 거시기 허다곤 그대로 보고헤서 저 거시더레.

"돌배를 한국서 지어놓긴 지어놧는데 타 갈라곤 허는데, 중도에 가다가 닷줄을 끊었읍니다곤. 닷줄을 하나 몰애로 한 닷을 들여주면, 들여보내주면 돌배를 타 가겠읍니다"

허곤 허니까, 이제 중국에 거시기는 전달가니까, 하 그때 이제 조선(朝鮮)에도 그만헌 인물이 있다곤. 게서 그때 〔청취불명〕 그런 말도 잇곡.

6. 남서구(南師古)

Tape 1-A면

제 보 자 : 김두원(남 · 82세)

조사일자 : 1988년 7월 28일

조사장소 : 김두원 할아버지 댁

옛날 남서구가 ᄌᆞ기가 이제 ᄌᆞ기 아바지를 ᄌᆞ기가 쌍봐도 씰때는 산소를 씨기 전이는(前에는) 곱게 뵀는디, 써보면은 자꾸 이거 불만 가져져서 이제 좋지 못허게 보이거든. 저 구천십장(九遷十葬)이랜헌 거 아홉 번 처래(遷移)에서 열 번꺼지 헐 때, 이제 열 번째 이제 장서(葬事)를 지내게 되니까 이제 장서 집에

서 하관헐 무렵에, 너 이거 그때 그 남서구가 뭐 지리박서(地理博士)라곤 그런 말이 잇엇는데,

"이 무신 연(緣)에 너의 아바지를 씨느냐 무신 연인디 너의 아바지를 장서를 지내느냐"

"이거 비룡산천(飛龍山川)입니다곤. 용이 놀아서 하늘로 올라가는 겁니다"고

"그랴?"

그 백발노장이 허는 말이,

"비룡산천이 아니곡 ᄉᆞᄉᆞ과벡(死蛇掛壁)이라곤. 죽은 뱀이 죽은 뱀이 저 거시기에 걸어진 저 ᄉᆞᄉᆞ과벡이라, 저 벡ᄇᆞ름(벽)에 이제 걸어지는 형극(刑局)인디 죽은 뱀인디 어디 산 용이 되겠느냐"

곤해서. 거시기 허니까 하 그 말을 탁 헤여두고 돌아사보니까 그 노장이 없어져서. 없어지니까 하 이제는 내 아무리 헤봐도 내 복력(福力)이 이만배끼(이만밖에) 안되구나. 내가 지리ᄒᆞ(地理學) 뭐 지리박서라곤 헤도 박서가 아이곡 ᄌᆞ기 아바지를 공연히 ᄌᆞ기 이제 잘되라곤 헤서 그 구천십장꺼지 헸는디 말여, 그 말 들으니까 그대로 ᄉᆞᄉᆞ과벡이고 뭐이고 그저 그래헤서 장서를 다신 그 개장(改葬) 안헸다고 허여.

〔㉥: 저 구천십장헤그네 크게 잘못됐단 말은 안듣곡 마씸?〕

그게 그거거든 뭔 형극이냐곤 말이지. 아니 비룡산천이라곤, 용이 놀아서 용이 살아서 놀아서 하늘로 올라가니까 것보단 더 좋은 게 어디서. 어디 용이 아니고 죽은 뱀이라곤. 죽은 뱀이 저 거시기에 걸어지는 형극이지, 저 울타리에 걸어지는 형극이지, 뭐 거 하늘로 올라가는 형이냐곤 헤노니깐,ᄌᆞ기 이제 거시기 헌건 내 아무리 실력이 있더라도 게 그럴거지게. 물론 산 용인 줄 알았지. 저 죽은 뱀인 줄 알아서 거시기 헐거여. 내 보는 거시기는 이제는 헤봤자 이제 ᄌᆞ기 운이 그만 뿐이니까 큰 자리를 얻지 못허게 되니까 그만 그 저 구천십장헌 후엔 다시 거시길 안헸지게.

7. 콩덱이와 풋덱이

Tape 2-B면

제 보 자 : 이숙봉(여 · 74세)

조사일자 : 1988년 7월 28일

조사장소 : 이숙봉 할머니 댁

옛날에 그 콩덱이는 이제 저 신랑에 그 이제 풋덱이 어멩이 신랑을 정헤놧어. 그 콩덱이 아빠를 정헤놔서. 콩덱이는 신랑에 그 다심애기[1]고이. 또 풋덱이는 그 어멩이 데려온 애기라. 데려온 애긴디. 이젠 그 다심애기 아니라이 놈이 난거난. 이제 그 다심애기는 콩만 솔망(삶아서) 멕엿어. 그 풋은 맛이신거난 ᄌᆞ기 데려온 애기를 다 멕이고 풋 솔므멍이. 경허난 그 애기를 이젠 다심애기는 콩만 먹으난 빈들빈들 솔졋어(살졌어). 얼굴이 이뻐서. 경 솔지고, ᄌᆞ기 난 애기는 풋이 맛이신거라고 솔망 멕이난 더 쫄어서. 쫄어부난. 이젠 저 옛날엔 육지는 지장(기장)이라고헌 거 이서. 여기서 ᄆᆞ트민 제주서 ᄆᆞ트민 피 뭐 조 닮은 거. 이젠 그 풋덱이 어멩이 어디 이제 잔칠 먹으레 갓어. 가멍 콩덱이보고, 다심애기보고,

"이제 지장을 닷말을 이제 다 지어두고이. 쏠을 까두고 또 이제 저 영 이황(항아리)이란거 이서. 이제 그 저 부엌에 가민 물받아 먹는 도가지 없나, 도가지. 또꼬망(밑)으로 도가질 이렇게 구멍을 똘라두고 그 도가지에 물을 잇바이 이제 다 질어다가 채와두고 이제 잔치 먹으레 오라"

코 헸어. 그래서 허니 이젠 그 콩덱이가 이젠 그추룩 어멍은 잔치 먹으레 가불고. 이젠 지장을 그걸 다 그걸 다 손으로 어떻게 깔 수가 있나. 이젠 지장을 ᄆᆞ만이(가만히) 덕석에 널어서 이제 ᄆᆞ만이 아지니(앉으니) 새가 이젠 그

1) 改嫁하여 온 집의 前妻 자식이나 後室이 데리고 온 前男便의 자식을 귀엽게 이르는 말.

지장을 먹으레 와서. 지장을 먹으레 오니,

"요 새 주워 저 새 주워."

우리 다심어멍(의붓 어머니)을 이제 이 지장을 까두고 오라 허니까니 이 지장을 까둬랜 허난 그 새가 이재 그 지장을 몬딱 쏠을 까줘서. 덕석에 널어논 거. 겨난 푸[2]허난 다 쏠되고이. 다심어멩이 그 다심어멩이 애기를 버륵(罰役)을 시켜둰 갔어이. 심서로이. 또 이제 삼이라헌 거는 저 이제 ᄆᆞ트민 삼베라이. 베, 베를 짜동 오랜허건 이젠 그거 이젠 또 쉐(牛)가 이서서, 옛날에 거멍헌 암쉐가 이신디, 그 쉐가 이젠 먹어서 또꼬망(항문)으로 이젠 베를 다 멘들앙 짜주고이. 경허고 이제 그 또 황에 밑구녁 터진 황에 도가지에 물을 질어놀라하니 아 질어놓다가 봐도 이젠 도가지는 ᄆᆞ득지(가득차지) 안허고이. 아 이상허다. 이젠 가마구(烏)가이 이제 요즘 가마구가이

"굽엉봐라 이제랑 굽엉보라 굽엉보라"

허난 굽엉보난 또꼬망으로 밑구녁이 터져서이. 터지난 이제 그걸 이젠 그 가마구가 그거 막으랜헹 막으나네 물을 다 질어노니, 멧 번 안헹 다 ᄆᆞ득아서(가득찼어). ᄆᆞ득아서 이젠 콩뎩이가 잔치 먹으레 갓어. 다심어멍 간 잔치집에 간.

"아이고 콩뎩이가 어째서 도가지를 물을 채와두고 또 삼도 베를 짜두고 또 지장을 까두고 지장 닷말을 까두고 어째서 빨리 왔느냐"

허난. 〔청취불명〕. 이젠 거기서 저 새각시 창신이, 창신에 또 옷을 좋은 옷을 내노멍 이거는 콩뎩이 옷이라 허난, 폿뎩이 어멩이

"아이고 이건 우리 폿뎩이 입어시민 좋겠다. 폿뎩이 신어시민 좋겠다."

창신을 영헤그네 족아도 "아이고 이거 우리 폿뎩이 신으민 좋겠다."

경헤도 이게 그걸 콩뎩이가 다 이젠 신어서이. 콩뎩이가 다 신곡, 다 옷도 콩뎩이가 다 입고. 경허난이 그 다심어멍이 그렇게 몽니가 나빠서. 경헤도 콩뎩이는 잘되서. 게난 그 하늘님에서 다 그 사름은 다 도와준거라. 친어멍 혼정으로.

---

2) 의성어로서, 입으로 쌀겨를 부는 소리.

8. 김녕사굴 (1)

Tape 2-B면
제 보 자 : 강인화(여 · 75세)
조사일자 : 1988년 7월 28일
조사장소 : 강인화 할머니 댁

큰 뱀이 지금 사굴 영 휘허게 그려진게 꼭 배염ᄀᆞ찌 그려졌대. 배염 형치로 휘허게 돌아간. 봤는지 만는지 몰라도이. 거기는 그렇게 했댄허네. 자꾸 그 뱀이 막 큰 뱀이 나오랑 이 농서(농사) 다 마을에 들엉이 농서 ᄀᆞ튼 거 지으민 절대 못헤먹게 막 허난. 이젠 허단 버치난 (힘에 겨우니) 큰 굿을 일 년에 음력 정월나민이 음력 정월달나민 굿헹 꼭 15세 난 처녀 하날 처녀를 바쳐서. 바치민 그걸 강 훈움먹 들러먹고 그렇게 허난. 이젠 옛날 제주목서(濟州牧使)가 목서민 지금이민 도지선가, 제주목서가. 이젠 우리 아버지네 ᄀᆞᆫ는 거 들어서. 제주목사가 오라네 그 뱀을 죽이켄 활로. 옛날은 활로만 쏘았지 총이 아니고. 활로만 허난. 지금 ᄀᆞ트민 수류탄이라도 데껑 죽이주만은이 활로. 활로 쏘완 죽이켄 허난. 어디 간 이젠 뭐 걸 알아봤던 모냥이라. 알아보난 그 뱀을 죽이건 ᄆᆞᆯ(馬) 그때 ᄆᆞᆯ탕 오는거주. 마상으로. 지금 ᄀᆞ트민 차도 아무것도 어신 때난. 배염을 죽이건 절대 뒤만 돌아보지 말랜이. 뒤돌아보지 말랜 헌디 그 목서가 활로 쏘완 그 뱀을 죽여도네 집이 막 안네ᄀᆞ지 딱 들어간. 이 추룩 헌 이 방안엔 들어오멍 히뜩(힐끗) 봐랜. 뒤에 불덩어리도. 불덩어리가 막 ᄃᆞᆯ라오란(따라와서) 허난 그때 그 목서가 거기서 전사했젠 허매. 봐래지만(보지만) 말앙 딱 이 방안네 딱 들어와베시민 될건디 뒤터레 요ᄀᆞ지(여기까지) 방문ᄀᆞ지 막 대문ᄀᆞ지 막 ᄋᆞ란(열어서) 들어오는디 뒤터레 휙 봐래진 모냥이라. 게난 막 뒤에 불이 막 불덩어리ᄀᆞ찌 막 ᄃᆞᆯ라오라네 걸 봐래난 그디서 그 목서가 죽이곡, 그뒤에는 그렇게 죽영 마을 사름덜이 이 뱀굴 지금 김녕은 아주 펜안허게 했젠 허매. 그런 전설이 잇어.

9. 김녕사굴 (2)

Tape 3-A면
제 보 자 : 김인조(여 · 79세)
조사일자 : 1988년 7월 28일
조사장소 : 김인조 할머니 댁

그 옛날 사굴에서 큰 구렝이가 나오라가지고 이렇게헌 땅속으로 구렝이가 나오라가지고 흔 해에 그 무을에서 처녀 하나썩을 그래 제물로 안바치민 막 가름에 들엉 사름을 못살게 멘들고 그렇게 헌다고 헤서 그거는 잇는건디. 그 때가 오라서 그때 처녀 흔 해에 하나썩을 바치젠 허민 처녀 하나토 없을 거니까니 이걸 어떻게 처리헐까 허난. 중공(中共)서 어디 중국서 목서가 하나 오라가지고 그걸 죽였어이. 그걸 죽여놓고 뒤돌아보지 말라고 했는디, 그 목서가 그거 죽여동 가멍 뒤돌아봐벴어.

〔ⓒ: 어디서 마씸?〕

바당으로 배탕 가면서.

〔ⓒ: 저 제주성으로 돌아오멍이 아니고마씸?〕

제주 오라가지고 그 저 사굴에 있는 그 처녀 하나썩을 먹는 구렝이를 죽여놓고이. 벨 사름이 헤도 못 죽이는 그 구렝이를 그 목서가 오라서 죽여놓고이. 목서가 오라서 그걸 죽여놓고 이젠 중국으로 배탕 나갈 때 뒤돌아보지 거 죽여놓고 뒤돌아보지 말고 돌아오라 했는디, 고만 바닷 가운디 가니까니 배에 올랐다가 그게 돌아봤어, 영 돌아보니까니 그만 하늘 우로 막 베락이 치곡 그냥 막 번개가 치곡 경허멍 비브름 치니까니 그 목서가 죽어불었어. 그때.

〔ⓒ: 근데 무사 뒤돌아봐수꽈, 목사가?〕

그건 몽롱헌거지게 볼써 실수할라고 헤서. 그렇게 안헤서 곱게 돌아가시민 그 목서가 안죽을건디.

〔ⓒ: 그 목사가 중공 목사 마씸? 중국에서 온 목사꽈?〕

응, 중국에서 목서가 오라서 그렇게 했다고 허는 말을 우리가 어린 때 들은 적이 이서. 어린 때 아버지네가 역서책을 보멍 그 골아준 말을 우리가 들어났주게, 어린 때. 그렇게 헤서 그 목서가 뒤돌아보지 안헤시민 목서도 죽지 안허곡 곱게 고향으로 돌아갈 건디, 뒤돌아봐노니까니 그냥 삽시에 그냥 하늘이 시커멍 허멍 그냥 막 베락증천이 나곡 번개가 나곡 막 허당 그냥 그 목서가 죽어서 어디 간 줄 몰랑. 물알로 홀렀다고. 그런 역서(歷史)가 이서.

10. 김녕사굴 (3)

Tape 4-A면
제 보 자 : 강일채(여 · 83세)
조사일자 : 1988년 7월 29일
조사장소 : 강일채 할머니 댁

그 굴에 살아그넹아 기냥 그것이 ᄎᄎᄎᄎ 멧 십년 컹. 겨난 이눔의 것이 이젠 그 구렝이가 구신(鬼神)이 되연, 구렝이가 아니고. 게난 옛날은 요런 아가씨덜 이제 삼 년에 하나씩 그래 앗당 데껴사 그걸 먹어사 그 구렝이가 몽닐 아이대주. 경 안허민 몽니대영 이젠 이런 농서헤노민 나왕 막 둥글엉 기냥 막 농서밭 막 다 판 씰어불곡. 옛날은 경했주. 경허단 이젠 아가씰 삼 년에 하나썩 그래 이제 사다그넹아 들이치민 그 아가씰 먹어 그 구렝이가. 경헤가난 이젠 이것이 영허민 이제 막 ᄆᆞ을이 판낭 이제 큰일이 났젠 헤네 옛날 어떤 장군 하르방이 이제 활로 쏴서. 몰탕가네 활로 기냥. 게난 이젠 그 쏘레 가가난 그 따시 ᄒᆞᆫ사름 허는 말이 쏴도그넹아 뒤터레 돌아사지마랑 그냥 뛰어 오랜 헌 걸 이 사름은 간 활로 팍 쏘아둰에 기냥 돌아오당 기냥 사람 죽아나 왐시카부댄 확 돌아산 뵈린 게 기냥 피가 그냥 사름 등에 묻어네. 게난 그 사름도 죽곡. 고니ᄆᆞ루[1]에 간 죽었주. 그 옛날 예수목서가 활로 쏘아둰 고니ᄆᆞ루 넘어강 시에꺼장(市에까지)가두룩 돌아사지 말랜헌디, 고니ᄆᆞ루를 가난 이젠 다 오랐준헨 뒤터레 영 봐래부난 그냥 고니ᄆᆞ루에서 직서했주. 그 저 피가 등에

1) 가으리ᄆᆞ루. 제주성 동문 밖에 있음.

완 탁 불언. 그 피가 놀아완. 게난 그 독살, 그 구렝이 죽은 독살이 오란 그 목서 등에 완 부터서.

〔㉥: 고니ᄆᆞ를이 어디 십니까?〕

고니ᄆᆞ를이 저 시(市)에 가는디. 사라봉 앞이. 그디꺼장 ᄆᆞᆯ탄 간디 돌아사지 말랜 헌 걸 이젠 다 오랐젠 돌아사난 기냥 탁허게시리 그디서 죽었주. 그 목서가 죽었주. 그 목서가 죽언. 그 구렝이도 죽어불곡 목서도 죽어불곡 헤부난 이제 ᄆᆞ을 사름덜 펜안히 살았주. 경도 안허곡. 게난 거 사굴이 생긴 거라.

〔㉥: 게난 처녀덜을 사당 바쳐서 마씸?〕

건 사당. 처녀덜은 이제 다 아니혯주. 이젠. 글우젠(그 후엔) 설러비었주(그만둬 버렸지). 그 목서만 죽곡. 목서만 죽언 글우젠 사름 안죽어서. 그 목서가 경헨 죽여불었주. 이거 기냥 기대로 놧당은 이거 처녀씨 엇댄.

11. 두럭산 (1)

Tape 3-A면

제 보 자 : 김인조(여 · 79세)

조사일자 : 1988년 7월 28일

조사장소 : 김인조 할머니 댁

말만 들었지 그 ᄆᆞᆯ 나온 천. 처음에 어떻게 헤서 ᄆᆞᆯ이 나오랐다고 헤서 거 두럭산이 있는가. 바닷 가운디 섬이 요만큼 요 침대만큼헌 섬이 하나 있는디, 옛날에 그기 ᄆᆞᆯ이 그디서 나오라났다고 헤서 거 두럭산 두럭산 허는디. 이제 물이 많이 들어도 그 꼭대긴 다 물이 안차곡 알뭇알뭇 알뭇알뭇 쪼끔씩 쪼끔씩 뷔는 여라. 바닷 가운디 여가. 섬이 아니곡. 동쪽으로 조금 가민 있는디, 지금 오늘이 뭐난 그 두럭산이 이제도 ᄌᆞ물지 안헤실꺼라. 게민 욜로(여기로) 물오민 욜로 치곡 절로(저기로) 물오민 절로 치곡 거 옛날 그것이 ᄆᆞᆯ이 그기서 나오라났다고 헤서 그 전설이 있는 거라.

12. 두럭산 (2)

Tape 3-B면
제 보 자 : 김인조(여 · 79세)
조사일자 : 1988년 7월 29일
조사장소 : 김인조 할머니 댁

등거리 하나여. 등거리 하난디. 물이 싸민 이제 둥긋허게 크곡 물 많이 든 땐 못보곡 물이 또 쪼끔 내려가민 웃 알뭇알뭇 봐지는 그 돌이라 . 돌 하나라. 그 우리 어린 때 ᄀᆞᆫ는 것 보민 그 ᄆᆞᆯ에서 첨 그 돌에 그 섬이 아이곡. 섬이 아니라, 첨 이제 말론 바위라고 허지이, 그것이. 거기서 ᄆᆞᆯ이 났다고 헤서. 그 우리 어린 때,

"거기서 나온 ᄆᆞᆯ은 어디 가수꽈?"

이렇게 물어볼 때이,

"거기서 나온 ᄆᆞᆯ은 게난 어디 가수꽈?"

이렇게 허민,

"거기서 나온 ᄆᆞᆯ은 져드랭이(져드랑이) 알로 ᄂᆞᆯ개(날개)가 돋아서 하늘로 올라갔는데."

그런 말을 들어낫어.

13. 아흔 아홉 골

Tape 3-A면
제 보 자 : 김인조(여 · 79세)
조사일자 : 1988년 7월 28일
조사장소 : 김인조 할머니 댁

저 여기 아혼 아홉 굼버리(골)도 아혼 아홉 굼버리가 아니고 백 굼버리가 되시민 거기서 왕도 나곡.

〔조: 굼버리가 어딘디 마씸?〕

거 굼버리, 아혼 아홉 굼버리라 헌디 저 산에곡. 산엔디 저 아혼 아홉 굼버리가. 거 백 굴이 차시민 범(虎)도 나곡 곰(熊)도 나곡 다 헐 건디, 이제 백 굴이 안차서 아혼 아홉 굴베끼 안되노니까 이 제주돈 곰도 엇곡 범도 엇곡 깨끗허다고 헌 섬이라. 그것이, 그래서 아혼 아홉 굼버리라고, 이제도 잇어. 거기 시방은 아혼 아홉 굼버리가 안되곡 거기 많이 개량되니까니 거기 뭐 차덜토 많이 뎅기곡 옛날엔 막 굼버리로 헌디. 그 굴이 여기도 잇곡 저기도 잇곡 이렇게 헌디 아혼 아홉 골, 굼버리라고 안헤서. 게난 아혼 아홉 굼버리가 백 굼버리가 차시민 범도 나곡 곰도 나곡 다 거기 뭐든지 다 낭 이 제주섬에도 육지모냥으로 그런 짐승덜이 많을 건디, 그렇게 안허기 때문에 제주돈 그런 짐싱이 안나서. 이제 첨말로 저 육지에선 그래도 옛날 우리도 육지 많이 뎅겨보곡 어디도 뎅겨보고 어디도 많이 뎅겨본 사름이주마는 아주 첨 이런 야산에 첨 여즈 혼차 뎅기기도 위험ᄒᆞ고 뭘허주마는 여긴 그렇게 안헤서.

〔조: 저 아혼 아홉 굼버린 저기 저 아혼 아홉 골 말허는 거꽈, 게민?〕

응, 아혼 아홉 골ᄀᆞ라 옛날은 아혼 아홉 굼버리라고 혯어. 아혼 아홉 굼버리. 그거 백 굴이 차시민 경헨 무당덜 굿헐 때도 그 말을 허는 거라. 아혼 아홉 굼버리가 백 굴이 차시민 제주섬이서 범도 나곡 곰도 나곡 다 늑대도 나곡 헤서 위험헐 건디, 백 굴이 안차노니까니 아혼 아홉 굴배끼 안되노니까니 범도 엇곡 곰도 어서서 제주 사름덜은 안정헨 살았다 헤서 그 말이 나온 거라.

14. 뱀고개

Tape 3-A면

제 보 자 : 김인조(여·79세)

조사일자 : 1988년 7월 28일

조사장소 : 김인조 할머니 댁

옛날에 건 어디 저 서촌, 서쪽인디. 서쪽인디. 부친이 아파가지고이. 가난 가난허게 사는 사름인디 부친이 아파가지고 막 죽을 ᄉᆞ경(死境)이여. 죽을 ᄉᆞ경인디 어디 가서 의원을 불러오니까니,

"이제 당신 부친은 저 아무디 가서 약을 지어다 멕여시민 어떻게 살아날 건디 거기 갈라면 직금 시간이 어시난 살릴 도리가 도저히 없다"

허난.

"게민 어떻게 허민 좁네까"

허난.

"요기 그 거시기 〔청취불명〕 중간 질로 가믄 무서와서 가지 못 헐 거라. 배염 고개가 이서서. 배염 고개라헌 고개가 이서서 이제 글론 무서와서 가지 못허고 지름길로 가젠허민 멀어서 거기 갔다오는 시간이믄 당신 부친은 죽나."

그렇게 허니까니 게도 가본다고 헤서 아덜이 나삿어. 아덜이 가본다고 헤서 나삿는디 약간 휘영 돌아오다가 급허니까니 시간이 급허니까니 내가 죽지 아니믄 살게 되어서 그 배염 고개를 오라서. 그 사름이 저 산덩어리 닮은 것이 산덩어리가 아니고 전부 뱀덩어리라. 그런 고갤 지나오랐는디. 그런 고갤 지나오다가 비가 크게 오니까니 그 사름이 비를 좀 멈출라고 이렇게 앉아 이시니까니 그 배염 우두머리인 것이 나오라서,

"당신은 어째서 이렇게 오랑 앉앙 여기 일로 지나가는 사름이 없는디 왜 이렇게 오랑 앉았나. 왜 일로 지나가는 사름이 없었나."

이렇게 무니까니,

"여기는 무서워서 안지나간다"

고,

"사름이 안지나간다고, 뭣이 무섭느냐?"

허난.

"그럼, 당신은 무서운 거 없느냐?"

고, 사름안티 저 배염 우두머리가 물어서. 배염 우두머리가 무니까니,

"난 무서운 거 없다"

고.

"뭣이 젤 무서우니?"

허난,

"난 돈이나 무섭지 무서운 것이 하나토 없다."

"그래 당신은 뭣이 무서우니?"

허난.

"난 너부루배끼 무서운 거 없다."

너부루라 허믄 그 배염의 아주 막 그냥 오야(두목)라. 그냥 작은 것들도 그냥 잘못허민 다 죽여부리고 뭐허는 너부루.

"우린 너부루배끼 무서운 게 없다."

영허난. 그러냐곤,

"난 그런 거 안무섭나고 우린 그런 거 안무섭고 돈배끼 무서운 거 없다."

그러냐고 영허난. 그 말 들고 비가 좀 멈춰가난 그 사름은 이젠 첨 헐레벌떡 집에 뛰쳐오란 보난 아방은 막 사경에 다다라서 막 죽게 되었거든. 죽게 됐는디 아덜이 그 약을 오란 막 푹허게 딸려서(달여서) 아버지 드리니까니 아버진 살아낫어. 아버진 살아나고 이젠 아버지 살아나니까니 그 ᄉᆞ실말을 아덜이 혯어. ᄉᆞ실말을 혯는디 그러니까 거기서 ᄀᆞᆫ는 말덜이,

"그러믄 내일랑 산으로 가서 ᄆᆞ을 사름덜 전부 내놔가지고 산으로 가가지고 저 솔나무예이 솔나무에 진이 있어, 진. 그 송진이라고. 그 진을 다 글그라"

고.

"뭘 헐거냐"

곤 허니까니,

"거 다 글곡 집마다 뎅기멍 담배 저 씬 통씬 담뱃재 다 모이라"

고. 다 모이라곤 헤서 이젠 그걸 큰 솥으로 두여 개 딸려가지고 큰 가매(가마)에다가 그 놈을 딸려가지고 지엉가서 그 배염 고개에 가서 다 뿌려부렷어. 배염 고개에 가서 그걸 다 뿌려부니까니 거 다 죽을 거 아니여, 독헌 거 가서 뿌려시니까니. 겐 다 죽여부니 겨다가 어떻게 죽다가 산건 이젠 ᄒᆞᆫ 메칠만인 오라가지고. 그 저 아덜하고 아방하고 사는 집이 저 가족도 ᄒᆞᆫ 너댓 잇는디 오라서 막 그냥 그 돈을 아상(가져서) 자락자락 마치멍(맞히면서) 다 죽으라고.

너네 돈 제일 무섭다고 했으니까니 다 죽으랜 허멍 돈으로 마처부나네 그 사름덜은 이젠 살게 되고 배염 고갠 없어진 거라, 그때. 그 배염 고개는 그렇게 헤서 없어졌다 헤서.

〔조: 배염 고개가 어디 이서난 건디 마씸?〕

저 서쪽에 옛날에 이서났는디, 그 배염 고개가 꼭 산 ᄀᆞ타도 산이 아니곡 전부 배염덩어리라 배염덩어리.

15. 효자 다리

Tape 3-A면

제 보 자 : 김인조(여 · 79세)

조사일자 : 1988년 7월 28일

조사장소 : 김인조 할머니 댁

열녀 ᄃᆞ린 옛날에 저 거시기 열 여덟 ᄉᆞᆯ에 시집가가지고, 이제 열 여덟 ᄉᆞᆯ에 시집가가지고, 스무 ᄉᆞᆯ에 아덜 나서. 아덜나서 아덜 두 설만이 아방이 죽어부니까니 그 아덜 하나 믿어서 키웠당 아덜이 컸어이. 아덜이 크니까 이젠 어멍도 이젠 젊고 허니까니 아덜 저렇게 키우곡 뭐허난 그때도 남저(男子)덜이 이제 그 사름을 좀 여저(女子)를 좀 거시기 허난 그 여저가 저디 좀 외입을 뎅겼던 모냥이라. 어멍이 ᄌᆞ물도록(저물도록) 일허다가 ᄌᆞ녁 땐 보민 곱게 ᄎᆞᆯ려가지고 그 저 ᄌᆞ녁 때민 허영헌 보선 신곡 허영게 ᄎᆞᆯ령 갔다가 물바우(물가)에 강 앉이민(앉으면) 이젠 어멍 가가민 아덜은 뒤ᄌᆞᆺ아강 보민 이젠 뒤ᄌᆞᆺ아가서 보믄 어멍이 그 물바우에 강 앉아서 보선을 벗곡 신을 벗곡 치맬 이렇게 거두곡 게서 그 물을 자꾸 건네서 저짝(저쪽)을 저짝 동넬 가니까니. 거 안되겠다 헤서 그 아덜이 거기 ᄃᆞ릴(다리를) 놨어. 어머니 글로(거기로) 뎅기라고 헤서. 어머니 그렇게 뎅기라고 헤서 그 ᄃᆞ리 논 것이 열녀 ᄃᆞ리라. 아덜이 열녀 첨 부모안티 소저(孝道)를 헤서 그 ᄃᆞ리 노니까 거 열녀 ᄃᆞ린 그렇게 헨 난 열녀 ᄃᆞ리 아이가.

16. 여우 이야기 (1)[1]

Tape 3-B면
제 보 자 : 김인조(여·79세)
조사일자 : 1988년 7월 28일
조사장소 : 김인조 할머니 댁

글이라도 조꼼 배울라고 허니까니, 이제 막 촌에 가서 한문 서당에 가서 한문 선생안티 글을 좀 배울라고 허니까니, 외아덜 동네 아이덜하고 혼 멧을 이제 그 서당을 자꾸 보냈어. 보냈는디 아덜 하나가 외아덜이 자꾸 아으 몸이 축나거든. 아으가 몸이 자꾸 축나민,

"왜 넌 어디가 아파서 그렇게 몸이 축나고 자꾸 그렇게 몰르느냐?"

이렇게 허니까니,

"아픈 디도 없고 이렇게 헌다"

고 허난, 저 동네 아이덜안티 물어봤어. 친구들안티 물어보난,

"자이가 어떻게 허느냐?"

허난.

"우리영 ᄀᆞᄍᆡ 오다그네 오다가 중간에 오민 쪼꼬만 초막사리가 하나 있는디, 그기 강 좀 그디 아가씨가 하나 있는디, 그기 강 좀 놀당오곡 헙니다"

그러드라.

"아, 그러냐"

경헨 이제 혼 해 두 해 허는 것이 혼 이삼 년 지나가난 아덜이 영 죽게만 되어가지 아녀. 막 뺏뺏 몰르곡 그냥 새파랑케시리 핏기가 하나토 없곡 헤가난.

"바른말 허라 허라."

---

1) '월계 진좌수'(月溪 秦座首) 이야기에서 '여우 이야기'만 구술됨.

허난. 이젠 저 거시기 그 아덜 보고 이제 바른말허랜 막 헤가난 아덜이 허는 말이,

"거기 가민 뭐 하나토 나쁜 거 어십니댄. 예쁜 아가씨가 하나 잇는디, 그기 가민 '놀다가라' 헤서 나가 놀다가 나옵니다."

"ᄀᆞ찌 눅진(눕지는) 안허나"

영허난.

"눕니다"

곤 허난.

"누민 어떻게 허느냐?"

허난.

"구실(구슬)을 고운 구실을 이제 그 처녀가 입에 물었당 그 총각안티레 입에 물려주곡 또 밧끄랜(뱉으라) 허영 지 입덜에 물곡 그렇게 허당 이젠 난중은 가켄허민 이젠 그건 또 그 사름이 그 처녀가 물어분댄"

경허난,

"옳지 경헴꾸나"

헤영.

"이젠 너가 다시랑 경말곡 우리가 다 뒤쫓아가서 먼딜로 다 뭐헐테니까니 너가 다시랑 그 처녀가 구실을 ᄀᆞ찌 그렇게 허당 놀리다가 다음 번에랑 구실을 너가 생겨불라(삼켜버려라). 먹어불라"

고, 아덜안티 그렇게 시켯어. 그렇게 이젠 첨 서로 주고받고 먹고 밧끄고 허다가 이제 난중은 그 남저 아이가 그만 생켜불었어. 그놈을 생켜부난 이젠 버둥키멍 나오는 건 보난 꼴랑지(꼬리)가 요만이헌 여우가 퍼들락 나오란. 이젠 겁낭 아은 집배끄티 뛰엉 나오난 부모덜은 다 사름 주위에덜 다혠 삿단 아덜은 심곡 그딘 강 불붙여불었어. 그디 간 불붙여불곡. 경허난 그디 싹 씰어다네 지픈(깊은) 엉덕에 강 불붙연 막 돌헤당(돌을 갖다가) 막 지둘루곡 헤당 갈아당 막 닥 씨와불곡헌 그 전설이 잇어. 게난 그 아덜은 살아나고 그 여우는 어서져부난 글루젠 여우가 없어.

17. 여우 이야기 (2)

Tape 3-B면
제 보 자 : 김인조(여·79세)
조사일자 : 1988년 7월 28일
조사장소 : 김인조 할머니 댁

저 혼번은 어디 몰탄 양반이 밤이 지나가노랜 허난이. 구덕(바구니)에 어떤 여저(女子)가 뭐 지어네(짊어져서) 앉안 오돗이 잇단. 돌밤이 앉안노랜 허난,

"어떤 각시가 이렇게 예쁜 각시가 이렇게 이 밤중에 질에 아장 우느냐."

이렇게 허니까니

"어드래 가는 길이냐"

영허난.

"이제 친정에 가는 길이라"

고.

"거 질머진 건 뭐꼰"

허난,

"이제 시집이서 시어머니가 친정에 가라고 떡을 혼시리 쳐줘서 떡을 혼시리 쳐줘가지고 친정으로 가는 길이라"

고. 경헨 가다가 질을 버쳐서 다리 아파서 웁네다. 고 겨난 그 영감이

"그러믄 어느ᄀᆞ장 가느냐"

허난. 막 여기서 ᄀᆞ트민 멀어.

"내가 저 모실포(摹瑟浦)꺼장 갑니다."

영허난.

"나도 그ᄀᆞ지 가는디 게민 나 몰타라, 내 몰타라"

허난. 그 각신 그 하르방의 두깡더레(뒤에) 타겠다곤 하니까니 하르방도 알아

가지고 하르방도 상당히 첨 보통 하르방이 아니니까니,

"저 나 앞으로 앉이라, 나 앞으로 앉이라."

게난 앞으로 앉아서.

"떡구덕이란 네가 가지곡 나 앞으로 앉이라"

허난. 이젠 몬 가가난,

"내려와 줍서, 내려와 줍서"

"내가 몬저 내리지. 내가 몬저 내려서 너를 내려와준다"

허니까니, 이젠 마지 못헤서 영감이 몬여 내리고 이젠 그 각신 다음에 내렸는디. 떡구덕은 몬여 마탕(맡아서) 밑으로 놔두곡 난중은 그걸 내립는디 머린 질게 헤네 막 빙허게 둘런 건지거치 헤시난이 그걸 영감이 팽허게 심언 와삭〔청취불명〕 막 메다치니까니 골박새기, 사름 골박새기에 사름 골이 사름 두뇌다 사름 이 머리빡 다 아무 것도 없는 헤영헌 백년 대가리[1]. 그것에 그 머리 덮어쓴 것 거추룩ᄀᆞ찌 헤가지고. 이제 그 사름이 난중은 보난 구덕 ᄒᆞᆫ 멧 개 허고 저 물 물이깨 거 물 똥싼 거, 그거 ᄆᆞ른 거 ᄒᆞᆫ 멧 벙댕이배끼 없더라고 허더라. 난중은 구덕도 없어져불곡. 게난 거 백년 대가리 하나허고 저 거시기 물똥 벙댕이 ᄒᆞᆫ 멧 개허고〔청취불명〕 그릇 깨지버진 것 그거 멧 개 있곡 머리도 그냥 머리 총총 감앙 심언 메다쳤는디 머리도 업곡 아무 것도 업곡. 그 하르방이 그렇게 안헤시민 그 여우 통에서 그 하르방이 죽을 거 아니여. 백년 묵은 여운디 그거 그렇게 된 거라.

18. 생인대체(生人代替)한 부자

Tape 3-B면

제 보 자 : 김인조(여 · 79세)

조사일자 : 1988년 7월 28일

조사장소 : 김인조 할머니 댁

1) 해골 바가지.

혼번은 사름이 막 아파서. 부제칩 사름인디. 사름이 막 아파서 어디서 죽게 되니까니 사름이 막 아파서 죽언. 이제 부제칩 영감인디, 이제 막 자식덜은 많고 이제 하르방이 혼 멧 년 더 살아야 헐 건디 이제 만일 아버지가 돌아가불민 막 안된다고 헤서 다 막 안팍으로 생각헤서 어디 가서 문점(問占)을 허니까니, 이제 이 사름을 생인대척(生人代替)헤서 이 사름 대표로 하나 뭐 그 하르방은 헤영헌 백마만 백마이 그 물만 타고 뎅기는 영감인디 하르방 타난 물을 내노라. 경허난 그 물에 그 영감 고추룩(같이) 사름을 멘들아가지고 이젠 막 도폴(道袍를) 다 멘들아 입지곡 말관, 머리에 말관(網巾)씌우곡 헤서 이젠 물을 태왓어이. 손에 뭐 잡고 헤서. 이젠 물을 지 가는대로 어느 ᄀᆞᆺ지라도(어디까지라도) 지 가는대로 내불라 해선 그 영감 타난 그 백마 혼 필을 그 올련 내배서. 물은 ᄆᆞ음대로 앞바른양 갔거든. 물은 가다가 저 올래에 뭔 문, 대문없는 집에 들어가서 들컥들컥허난 그 주연(主人)은 문 ᄋᆞ란(열어서) 영보난 어떤 물관 쓴 영감이 탁 집안에 들어오란 물탄 사시난. 거 누게여 누게여 허난 암만 말 〔청취불명〕 물은 코만 씽씽허나네, 영 간보난 사름이 아니고 헛사름이거든. 게난 그 사름이 그디서 직통 죽었다 헤여. 주연이, 주연이 죽었지. 주연이 죽곡 그 물탄 내논 영감은 영 살아나고. 거 대신 죽게 헤서 그렇게 그런 전설도 있어, 옛날은.

19. 장동지

Tape 5-A면
제 보 자 : 장영택(남 · 66세)
조사일자 : 1988년 8월 15일
조사장소 : 김녕리 경로당

저 우리 장동지(張同知) 영감이옌헌 어른은 도젝(道的)으로 유명한 어른이주게. 유명헌 어른인디. 옛날 어른덜은 장동지 영감이옌 몰른 사름이 없어. 물

른 사름이 없는데, 옛날에 그 장동지옌헌 영감 그 하르버지 그 베슬은 동지 베슬은 누가 줬는고 허니 직접 왕이 준 거라. 이건 왕이 준 거라. 건 어떵헤서 왕이 줬는고 허니까니, 옛날에 큰 상부선으로 인헤 가지고 옛날 육지 메역 장서헸거든. 메역 싣껑 가서 메역 풀리곡 들어올 적에는 포목을 받아가지고 들어와서 이제 대정골 많이 뎅긴 모냥이라. 대정골 모실포 그 안덕면(安德面) 근방 주로 많이 뎅긴 모냥이라. 게난 그 나의 구대 하르방이주. 구대조 하르방인디. 그 하르방이 이젠 그 여기 그 육지가서 그 포목광 쏠을 많이 헤가지고 이젠 제주에 들어왔는디, 이젠 걸 풀리곡 이젠 옛날은 다 등짐으로 지어서 뎅겼거든. 게 힘두 엥간히 쎗지마는 모실포 대정 고을에 들어간 모냥이라. 들어가가지고 아 저 포목을 풀러 뎅기노라니까 어떤 여저(女子)가 집에서 그 물헙댁이 지어네 나오는 여절 본 모냥이라. 게난 거 장사꾼이야 물론 그 부인봐서 포목을 사라고 이렇게 헌 모냥이라. 허니까 그 물헙댁이 정가는 여저가 말허기를,

"그러면 우황에도 바꿀 수 있읍니까."

이렇게 물은 모냥이라. 그러니까니,

"우황이나 아무거라도 물물교환헤도 좋다"

고.

"그러면은 ᄋᆞ기 사시면은 물질엉 올라가가지고 교환합시다"

허고. 경헤가지고 이제는 이제 그 여저 쪼금 있으니까 물을 질어서 들어오거든. 옛날 물헙댁이 아니라게. 게 이젠 그 아주머니 따라서 들어갔는데, 아 그 물허박일 딱 그 옛날엔 등상이 잇거든 등상헨 등상 잇잔여게. 팡. 아 거길 강 떡허게 놔두고 이젠 아주머니가 고팡(창고)안으로 쑥 들어간다 말이여. 보니 이런 단지를 가젼 나온 거라. 단지. 게난 뭣사 들엇는지 몰른거지. 단지 들런 나와가지고 영 헤천보니까 전부 우황이라. 게 내음새만 들어도 우황, 멀리서도 환허게 약내가 나거든. 그래 가지고 이제는 그걸허고 교환헤가지고 이젠. 게난 우린 어느 왕땐지도 몰르곡, 우리는. 게난 게 옛날 어룬덜 ᄀᆞᆫ는 말만 들은 거주. 그러니까 이제는 그 우황을 바꿔가지곡 포목허고 바꿔가지곡 이제는 조천(朝天)에 들어온 거라. 조천에 와가지고 이제는 육지로 또 메역 실러서

나가게 되니까니 그 우황도 가지고 이젠 나간 거지. 나간 이젠 어딜간고 허니까 지금이민 한강(漢江)이라. 한강 안으로 들어갔는데, 아 거기 가서 이젠 배 메두고 격주(客酒)집이 들어가가지고. 격주. 밤에는 격주집이 가야되거든. 그래 이젠 나완 배에서 이젠 메역도 ᄂᆞ리노랜 허니까 옛날 그 나졸덜(羅卒들), 나졸덜이 막 들어오거든. 그래 촌하르방이니까 겁나거든 이제. 들어와노니 허니까,

"아 제줏배가 들어왔다 허니까니, 좋은 약이나 있는가 헤여서 이제 물으러 왔노라"

고 허니, 이제 하르버지는 그 우황배끼(우황밖에) 엇거든. 약이랜헌 건. 옛날에야 우황이 최고로 존 약이주게. 지금도 좋긴 존 약이주마는. 들어왔으니까 이젠 그 하르버지가 말허기를,

"여기 다른 약은 엇곡 우황이 좋은 우황이 하나 있다"

고. 게서 어떤 일이냐고 그 나졸덜안티 물으니까, 포졸덜안티 물으니까,

"아 이제 왕의 아덜 직 말허민 세자, 세자가 병이 나셔가지고 다 죽을 헹펜(形便)이라." 죽을 헹펜이니까 이제는 홀 수 어시 그 약이라도 써볼라곤 헤서 이젠 제줏배에 온 거라. 와가지고 이제는 그 콩방울만이 알맹이 떨어서 주면서 말허기를, 하르버지가 말허기를,

"이 가서 물에 개어가지고(섞어서) 어떻게 조합헤가서 멕이면은 알아볼더레 이실거라."

헤가지고 이제는 그 약을 콩방울만헌 약을 줬던 모냥이라. 주니까 이제는 그걸 가지고 이젠 첨 왕안티 가 바치니까 그 약을 개서 이젠 어떵 응급헌 짐에 아덜을, 세자를 멕인 모냥이라이. 세자를 멕이니까 세자가 우뚝허게 일어낭 그냥 막 돌아뎅겼단 말이여. 게니까 거 그 옛날엔 그 약배끼 없으니까. 이제 그 약을 먹엉 아덜이 살아나니까니 이거 이젠 이렇게 반가운 일은 없거든. 반가운 일이 없으니까 게네 또 나졸덜을 풀어놔가지고 그 영감을 가서 모셔오라고 했던 모냥이라. 그래서 이젠 나졸덜이 와가지고 이제는 하르버지안티 와네 우리 하르버지안티 와네,

"아 왕이 직접 오시라고 헌다"

고 허니까니, 이제 힘치 겁나분 거지. 촌에서 간 하르방이고 헤노니까니 그냥 놀랭 자빠져분 거라이. 게난

"겁날 거 하나토 엇다고, 당신 덕분에 결국 왕의 아덜 세자가 살아났으니까니 그 이상 반가운 일이 어디 있느냐"

고 헤가지곤. 헤서 모시곤 이제 들어간 모냥이라. 들어가가지고 이젠 하르버진 우리 하르버진 겁이 나가지고 먼 뭇둥이(문앞에) 강 딱 엎더정 있으니까니,

"소인 고개들고 이 안으로 들어오라"

고. 게네 이젠 딱 들어가니까, 들어가도 왕 앞이 나가난 엎드려 분 거주게.

"아 소인 거 고개를 들르라"

고, 들어가서 이젠 ᄉᆞ실(事實) 내막을 얘기를 헌 모냥이라.

"당신 덕분에 당신 가져온 약으로 헤서 앓아난 우리 세저가 살아났으니 그 은공을 어떻게 갚으리냐"

고. 경헹 이제 하르방이 이젠 아 고개들르라 허니까니, 게니 왕이 말허기를,

"너 소원이 젤로 소원이 무엇이냐"

물었으면 하르방 옛날 구헉문(舊學問)도 많이 익고헌 하르버지난 어느 좋은 자리 갈 건디, 그 당시 젤 크게 막 ᄆᆞ음 먹은 것이

"동지(同知) 베슬 하나만 주십써"

헸던 모냥이라. 그러니까 이젠 하르버지가 동지 베슬을 이젠 왕이 직접 그 저 그거 무시거꼬, 그 이제 식지, 식지, 식지. 식지엔헌 거. 거 동지 베슬헌 거 왕이 도장 꽉 눌린 거주게. 식지를 이젠 내준 모냥이라. 내줜 이젠 그걸 가지고 이제는 돌아오면서 또 그외에는 또 소원이 없느냐. 게난 그 당시에는 이 제주도에 막 삼년을 ᄀᆞ물아놔가지고(가물어서) 농서가 원 안되노니까 다 굶어 죽을 헹펜이니까니, 아 이젠 우리 하르버지는

"더도 말곡 배 열 일굽 척에, 나룩 삼천 석만 헤서 실러줘서 우리 제주도로 보내주면은 우리 백성을 문 멕이고 살리겠읍니다."

허고. 거 존 일이거든. 경헤서 이젠 아 우리 그 이 하르버지가 그렇게 요청을 허니까니, 그 당시 저 뭐 왕의 말이옌 허민 벨 말이라도 다 헐 거 아니가게. 게난 이젠 그 나룩 삼천 석을 〔청취불명〕 가지고 배 열 일굽 척에 실러서 이

젠 제주도로 보냈단 말이여. 게난 조천항에 들어와가지고 이제는 그 창고에 전부 그걸 전부 데며가지고 조천 인민을 전부 배급허면서 일시키면서 배급준 거라. 그 당시엔 조천에 아주 포(浦)가 나빠난 모냥이라. 그 중간 포구 이제 다 돌헹 쌓아올린 것이. 그때 우리 구대조 하르버지가 그 인민(人民)을 전부 시겨가지고 쏠 한루 나룩 얼마 배급주곡 그 성창을 다 싼거라. 성창을 싸가지고. 경허난 그 당시 그 비석을 이젠 조천 그 인민들이 합동헤가지고 그 비석을 두개 헨 크게 헨 세와줬단 말이여. 세와줬는디. 이젠 그 후에 이젠 그 비석을 세완 허니까니 세력(勢力)으로, 옛날에도 세력으로, 부칩(夫집) 세력이 조끔 쎄난 모냥이라. 우리 집안이 부제로 살긴 살앗주마는 옛날부텀 우리 장칩이 뒤가 물러. 살긴 잘살앗는디 뒤가 물르곡, 이 사름이 착 무시거랜 골으민 주왁허게 들어가부는 성질이 있어, 우리 장칩이. 그래 가지고 이제는 그저 배급주면서 이젠 다 일을 시키곡. 게난 거 조천 상민이 저 리민들이 이제 우리 하르방을 공을 갚으지 못허거든게. 배급타면서 일을 헷주마는 그 죽을 헹펜에 이제 배급을 주면서 〔청취불명〕 살게 헤놧으니까니, 인민들을 살게 헤놧으니까니, 이 하르버지 공을 갚으지 안허민 안되게 된 거지. 제주도에선 우리 선묘(先墓)가 젤 클 거라. 게네 이제 이 하르방 공을 갚으지 못허겠다 헤서 칠 일, 칠 일 동안을 봉물(封墳)을 봉물을 쌌다 허여. 칠 일 싸고 칠 일 동안 소 일굽 머리를 먹엇다 헤여. 게난 오죽 옛날에 거시기 형 거라게. 게난 그 후 이제는 우리 구대조 하르버지네 배로 결국 제주 목서를 실어가지고 육지로 나가게 됐다고 헤여. 장동지 영감 이제 저 조천동민인가 삼양동만 가도 이 큰 굿 헐 때는 장동지 영감을 거느리거든. 옛날 거 헤오란 거. 심방덜이 그 장동지 영감을 거느려. 그런 역서를 우리가 옛날 어른덜 골앙 알주게.

20. 호랑이 이야기 (1)

Tape 5-A면

제 보 자 : 김희순(여·66세)

조사일자 : 1988년 8월 15일

조사장소 : 김순여 할머니 댁

이 족은 년이 영리헤여, 영 보민.

"아가 아가 나 니네 어멍 왓저. 문 을아도라(열어달라)"

허나네.

"우리 어멍 저 손 디물란(들여놓아서) 손 디물랑 문직아보게"

허나네.

"아이고 우리 어멍 손 아니우다"

허나네.

"니네 어멍 손은 어떵허느니?"

허나네.

"우리 어멍 손은 잘도 멘지락헙니다"

허나네. 이젠 호랭이가이 간 지름을 불랑 와서. 지름을 불랑 와네 이젠 이젠 저 손을 문직앙보난 멘지락허난 이젠 들여놔줘서. 어멍이카푸댄. 들여놔줜 ᄀᆞ만이 훈디 눈디 성제(兄弟)가 눈디 무시거시 오도독오도독 씹어먹어. 경허난 족은 년이 허는 말이,

"어멍 미시거 먹으미꽈"

허나네,

"나이 느네 아방 밭갈레 갈 때 콩볶안 먹단 남은 거 문드려시난(떨어뜨렸으니까) 주서먹엄쪄"

허난. 거 성(兄) 죽연 먹는 거. 성은 먹어부는 거라. 성은 먹어베서. 아시(아우)가 요망져. 경헨 이젠 아멩헤도 이상허댄이. 이젠 지도 봉강먹젠. 영 봉강먹젠 허난 피가 벌겅헤시난. 이젠 오줌누레 강오켄 헤그네. 저 강오켄 헤동가이가 나간이 큰 남(나무) 우이(위에) 올라가네. 이젠

"아가 아가 내려오라"

허나네.

"난 안내려가켄"

허나네.

"게민 나가 올라가켄"

허나네.

"올라와도 난 안내려가켄"

허나네. 이젠 그 호랭이가 허는 말이

"게민 나가 올라가켄"

허나네. 그 아이가 허는 말이

"하늘님 하늘님 나 살리커건 산 닷줄을 내리곡 나 죽이커건 죽은 닷줄을 내립쎈"

허나네. 이제 산 닷줄을 와르릉허게 내리나네, 그거 심엉 이젠 〔청취불명〕 그 족은 년이 살아서. 산디. 이젠 호랭인 이젠 그거 올라가젠 허다네, 이젠 옴말로 죽은 닷줄을 내롸줘부난 호랭인 이제 죽어불곡. 그 아인 막 잘살곡.

21. 호랑이 이야기 (2)

Tape 5-A면

제 보 자 : 김순여(여 · 66세)

조사일자 : 1988년 8월 15일

조사장소 : 김순여 할머니 댁

이젠 어멍이 어디 외방(外方)을 멩질(명주) 짜레 가젠 허난. 돈 어시난 옛날도이 거 벌어사 애기덜 멕영 살릴 거 아니. 이젠 외막살이 집인디. 애기 저성제, 아덜 성제만 내베동 멩질 짜레 하늘 우이 올라갈 거라, 하늘 우이. 옛날도 그 어떤 선년셍인고라이(仙女인 모양이라). 하늘 우이 올라간 멩질 짜동을 거라부난. 우리 경헤난 말 들어났다. 하늘 우이 올라간 멩질 짜레 가분디. 아가 아가 애기덜ᄀᆞ라

"아가 벨사름이 와도 문을 읍아주지 말랜"

게. 그 어멍이 멩질 짜레 하늘 우터레 올라가멍 벨사름이 왔자 문 읍아도랜 헤도 그디 먹을 거 다 헤당 놔동 가멍,

"벨사름이 왔자 나 멩지 짜레 강오커매 문 읍아주지 말랜"

허난, 경허쿠댄헨 문을 재깍 종간 눈디. 밤중만인 훵허더니마는 사람이 소리

가 나.

"누게꿴"

허나네,

"나 아가 아가 니네 어멍이여 문 율아도라."

그 하눌, 어멍은 멩지 짜레간 줄 알아도 그 호랭이가 멩지 짜레간 줄 알아네 이젠 저 문 율아도랜 허난.

"못 율아주켄"

허난.

"무사 못 율아주쿠겐"

허나네, 미시거꼬 우리 어멍 아니랜.

"우리 어멍은 하늘 옥항에 멩지 짜레 가수댄"

허나네.

"게도 니네 어멍 오란 노려오과랜 . 게난 아가 아가 문 율아도랜"

허난. 문을 배옥 율안

"게건 손이나 문직아보켄"

허난.

"우리 어멍손은 선납니댄."

"어떵헨 니네 어멍 손 선나느넨"

허난,

"우리 어멍 손은 멩지만 짜나부난 멘지락헙니댄."

"게민 나손 문직아보랜"

지름 불랑. 이젠 그 호랭이 손에 지름 불르난 멘지락헐 거아니. 복삭헌 호랭이 손인디게. 경허난 이젠 멘지락허난 이젠 어멍이카부댄 문 율아줘서. 문 율아주지 말랜 헤돈 약속했는디. 어멍이 간디. 게난 이젠 아시, 난 아시로 들였다고, 아시, 애기, 애기, 애기가 ᄃᆞ랑누켄. 나 족은 놈이랑 나 ᄃᆞ랑누켄 허나네, 어멍이옌 헤부난게 애기난 어멍 ᄃᆞ라눌건 사실아니. 게난 호꼼 이시난 오도독오도독,

"어머님 어머님 미시거 먹엄수꽈. 나 호꼼 줍써"

허난,

"아이고 말도 말라. 니네 아방 동네 집이 콩볶앙 저 밭갈레 가멍 콩볶앙 쉰게 먹당 남은 거 쉰게 주서먹엄쩌"

허난. 경헌가헨 또 호꼼 이시민 또 오도독헨.

"어멍 어멍 나 호꼼 줍써."

이상헨 가이네 생각에도. 이상헌 생이라, 그 옛날도.

"아이고 어멍 똥 ᄆᆞ루우다 ᄆᆞ루우다"

허나네,

"아가 아가 똥 ᄆᆞᆯ른 구들 구석에 누라"

허난.

"아이고 어머니 구들 구석에 누민 똥내 안납니까."

게민 또 똥 ᄆᆞᆯ랜 헤가난.

"아이고 어멍 똥 ᄆᆞ루우다"

허난,

"아가 아가 게민 춥방 구석에 누라."

" 춥방 구석에 누민 똥내 안나느넨".

이젠 가이가 막 꾈 부려가는 거주게. 아덜이 하나, 큰 아덜이. 게건 고팡 구석에 강 누렌 헤도 똥내 납니다. 게건 〔청취불명〕에 누렌 헤도 똥내 납니다.

"게건 벤소에 강 눠불랜, 통새에 강 눠불랜."

영허난 통새 올라가난. 그 팽대남 옛날 팽대남이 이서난 생이라, 통새에. 그 아랜 우물이 잇곡. 아래 우물이곡, 팽대남이 이신고라. 이젠 그 저 벤소에 가네,

"하눌님 하눌님 나 살리커건 〔주) : '죽이커건'이라고 할 것을 구연자가 잘못 말했다.〕 석은 호박줄."

경헨 우리 옛말 들어나세.

"석은 호박줄을 내리곡 나 살리컨 산 호박줄을 내립쎈"

허난. 산 호박줄을 드르르허게 내리난 그걸 탕 올라간. 팽대남 우에. 하늘 우이도 안올라간. 팽대남 우이 가네 아자네 ᄀᆞ니 앉아시난, 호랭이가 그냥 훵허

멍 똥 누레 가켄헌 아이가 어떵헨 안왐신곤 막 촞으레 이래 휭 저래 휭허난 콧내 씽씽 안마출 거라. 게난 이젠 팽대남 우이 가이가 아지난 그 우물이 이시니까 비춘 거 아니. 돌에 영헨 그 굴메(그림자). 겨난 그냥 물에 빠지젠 영 빠지젠 허민 아니라. 지 굴메도 봐져. 게난 그냥 막 하늘 우터레 봐랬다가 알로 봐랬다가. 이젠 영 뵈리나네 팽재낭 우이 이시난 그 팽재남을 우득우득 씹더라 헤여. 그 호랭이가. 그 팽재남 씹엉 내려지민 가이 먹을 거 아니. 게난 팽재남 우이서 허는 말이 아이 또 하눌님을 불러서. 그 어멍 혼정을 들언.

"하눌님 하눌님 나 살리커건 〔주 : '죽이커건'이라고 할 것을 구연자가 잘못 말했다.〕 이제 호박줄은 죽은 걸 내리곡 경 안허민 산 걸 내립쎈."

호박줄 산 걸 드르르허게 내려주난 이젠 그냥 하늘 우로 가인 올라가불고게. 아신 죽여먹고. 그 호랭이가 먹어부난. 게난 그 팽재남 트덩보난 아이가 하늘 우로 올라가불곡 없어. 어시나네 이젠 그 팽재남이 아멩헤도 거 어멍이 자꾸 〔청취불명〕 생이라. 그 서녀가 되나네. 멩지 짜레. 경헌 팽대남인 생이라. 게난 이젠 〔청취불명〕 막 이빨로 씹으난 씨러질 거 아니. 씨러지난 그 이젠 엎어져 불 거 아니. 게난 그 어멍이 누려올 기회가 이서난 생이라. 그 이 땅더레 이 세상더레 내릴, 하늘 우이 올라갔당 또 내리는 시간이 이신 생이라. 게난 내려오젠 허난 아덜이 그 우에 아자네 그냥 깜짝 어멍이 놀래벴젠.

"아이고 어떵헹 와신"

허나네. 애긴 어디벤댄 허난. 애긴

"어멍이카부댄 문 열아도랜 하도헨 문 열아주난 애긴 호랭이 잡아먹어벳젠" 허난. 그냥 어멍은 그냥 내려완보난 호랭이 그 뭐꼬 그 팽대남을 그냥 이빨로 씹엉 그냥 드러눕져불곡. 집인 피가 구들에 번번허고 허난. 경헨 우리 옛말 들어나서.

信　　仰

目　　次

Ⅰ. 概觀
Ⅱ. 部落信仰
1. 儒式部落祭
2. 巫式部落祭
3. 그물코ᄉᆞ
Ⅲ. 公認宗教
Ⅳ. 結語

Ⅰ. 概　　觀

김녕리는 제주도 북제주군 구좌읍에 속하는 해변 마을이다. 이 마을은 본래 하나의 자연 부락이었는데, 부락이 커짐에 따라, 동김녕리와 서김녕리, 두 개의 마을로 나누어졌다.

주민들은 주로 농업과 어업에 종사하며, 좋은 포구가 있고 어장 조건이 천연적으로 뛰어나 어부와 해녀들이 많다. 이 때문에 이들의 생업과 관련된 부락제가 행해지고 있다.

김녕리의 신앙 형태는 부락 신앙에서 다양하게 볼 수 있다. 남성 중심의 부락제인 포제와 그물코ᄉᆞ, 여성 중심의 부락제인 당제와 잠수굿 등이 행해지고 있으며 당굿에서 유래한 돗제는 이 마을에만 전승되어 행해지는 제의이다.

본 보고서는 이 마을 신앙의 특색이라 보이는 부락 신앙에 중점을 두어 기술하고자 한다.

Ⅱ. 部 落 信 仰

1. 儒式部落祭

1) 東金寧里 酺祭[1]

(1) 祭名 : 酺祭

(2) 祭神 : 酺神之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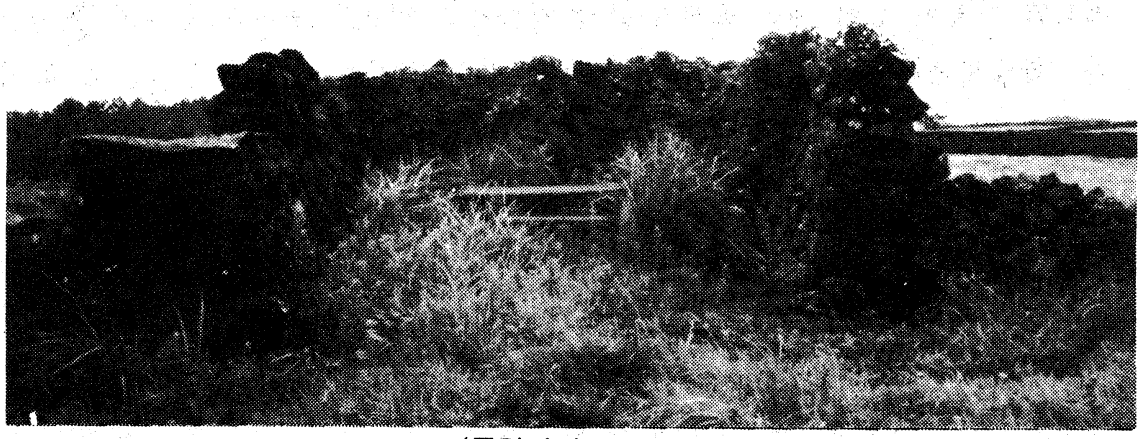
(3) 祭日 : 正月 或丁或亥日 子時

(4) 祭場

① 명칭 : 젯터동산

② 위치 : 전에는 마을과 인접하여 있었으나 약 50~60년 전에 해수욕장에서 동쪽으로 500여 m 떨어진 곳으로 옮겼다.

③ 형태 : 祭壇을 중심으로 돌담이 병풍처럼 둘러 있다.



〈동김녕리 포제단〉

1) **제보자** : 金鎭圭(男, 57세), 동김녕리 1429

(5) 祭儀管理 : 연말에 이민회의를 열고 결산 및 사업 보고를 한 후에 포제에 대한 제반 사항을 논의한다. 이 회의에서 제관 선출과 포제 경비 및 제수 등을 정한다. 祭費는 전체 주민 부담을 원칙으로 하여 조합별로 각 호당 일정액씩 수렴한다. 里政上 특별수입이 있을 때에는 이를 제비로 충당한다.

(6) 祭官

① 자격 : 生氣福德에 맞는 연령의 사람으로 한다.

② 선출 : 음력 섣달 신구간 전에 이장이 이민회의를 소집하여 적격자를 선출한다.

③ 종류 : 9제관이 제를 지낸다. 9제관은 다음과 같다. 初獻官·亞獻官·終獻官·大祝·執事·執禮·典祀官·謁者·豫次.

· 대축 : 祝文을 고하는 사람.
· 집례 : 제를 지낼 때 사회자 격으로 忽記를 부르는 사람.
· 전사관 : 헌관의 절을 받아 올리는 사람.
· 알자 : 제관들을 인도하는 사람.
· 예차 : 제관들 중 연고가 있을 때에 대행하는 사람

(7) 齋戒 및 入祭 : 五日齋戒를 한다. 제관들은 제일 5일 전에 몸을 깨끗이 하고 입제하여 祭廳에서 합숙한다. 마을에 금줄을 쳐서 부정인들의 출입을 통제하고 마을에 상이 나도 포제가 끝날 때까지는 招魂도 못하고 장례도 못치룬다. 합숙하는 동안 제관들은 향물로 몸을 씻고 식사는 정갈한 음식으로 하되 젓류(醢)는 금한다. 이 기간에는 行祭演習을 하여 실례가 없도록 한다.

(8) 祭服 및 祭器

① 제복 : 청금, 유건 등을 마련하여 이사무소에 보관한다.

② 제기 : 제청으로 정한 집에서 마련하여 일주일 전에 향물로 씻어 정결하게 한다.

(9) 祭物 : 제물관리는 대축과 집사가 한다.

① 穀類 : 稻(벼), 粱(조), 黍(기장), 稷(피)의 메를 진설하는 것이 원칙이나 기장과 피를 구하지 못할 때는 쌀메 2기, 조메 2기로 하여 메 4기를 올린다.

② 犧牲 : 돼지 전마리(毛血, 내장도 따로 올림)

③ 幣帛 : 명주, 삼베

④ 果類 : 五種(사과, 배, 귤, 밤, 대추 등)을 사용하나 때에 따라 3종, 7종을 올리기도 한다.

⑤ 祭酒 : 井華水, 玄酒, 甘酒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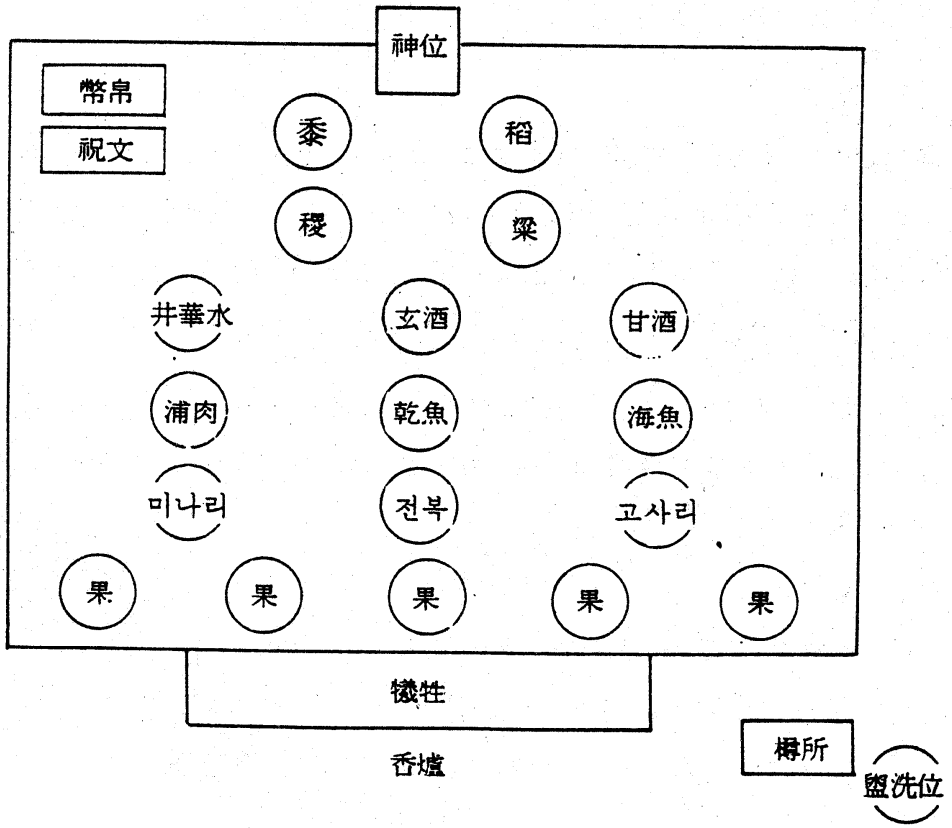
⑥ 菜蔬類 : 미나리, 고사리

⑦ 魚類 : 海魚로는 우럭이나 조기, 乾魚로는 상어나 명태, 魚醢로는 생전복을 쓴다.

⑧ 脯肉 : 쇠고기

(10) 祭物陳設 : 포제 전일 제장으로 가서 저녁 5~6시 경에 제물을 제단에 진설하고 병풍을 두른 다음 제관들은 대기소에서 기다리고, 그 동안 제단 주위를 살핀다. 밤 11시 경에는 대축이나 집사가 가서 진설했던 메그릇을 내려와 산메를 찐다. 산메를 찐 후에 제단에 올린다.

〈제물진설도〉



(11) 行祭 : 酺祭笏記

謁者引初獻官 瞻視次詣神位前 引降復位 謁者引祝及諸執事入就拜位 北向立 祝以下皆四拜 鞠躬拜 興 拜 興 拜 興 拜 興平身 引詣盥洗位 東向立 盥洗 各就位 謁者引獻官皆入就拜位 西向立 謁者進初獻官之左 白 有司 謹具請行事 行奠幣禮 獻官及諸位者皆四拜 鞠躬拜 興 拜 興 拜 興 拜 興平身 行初獻官禮 謁者引初獻官詣盥洗位 東向立 盥洗 引詣樽所 執事者 擧冪酌酒 引詣神位前 北向立 跪三上香 獻幣 獻酌 啓飯蓋正著 獻祝 小退跪 俯伏 讀祝 興平身 引降復位 行亞獻官禮 謁者引亞獻官詣盥洗位 東向立 盥洗 引詣樽所 執樽者擧冪酌酒 引詣神位前 北向立 跪獻酌 俯伏 興平身 引降復位 (終獻禮는 亞獻禮와 동일한 절차이므로 생략함) 謁者引初獻官詣飮福位 西向立 跪 執事者以酌授獻官 獻官受酌飮卒酌 執事者受虛酌 執事者以胙授獻官 獻官受胙 執事者受餘胙 俯伏 興平身 引降復位 獻官及諸位者皆四拜 鞠躬拜 興 拜 興 拜 興 拜 興平身 撤籩豆 獻官及諸位者皆四拜 鞠躬拜 興 拜 興 拜 興 拜 興平身 謁者引初獻官詣望燎位 西向立 蓋燎 謁者進獻官之左 白 禮畢 獻官以下出 謁者引祝及諸執事入就拜位 北向立 祝以下皆四拜 鞠躬拜 興 拜 興 拜 興 拜 興平身 出

(12) 祝文

維 歲次 甲子 正月 戊申 朔 十六日 癸亥 北濟州郡 舊左邑 東金寧里 代表獻官 某 敢昭告于 酺神之靈 伏以於赫明神 司我里域 大哉其位 盛矣其德 自古有年實賴爾極 煽動和氣 禳祓疾厄 五穀豐登 六畜蕃殖 維海所產 如山其積 願言驅魚以連以續 俾我東金寧里 永受多福 謹以牲幣 醴齋粱盛 庶品式陳 明薦歲事 尙 饗

(13) 飮福 : 제단근처에 있는 대기소에서 돼지 내장이나 머리를 삶아 간단히 음복하고 제청에 돌아와서 희생은 제관들이나 제의를 관리하였던 사람들이 나눠 갖는다.

(14) 豫兆

① 행제시 말울음 소리가 나면 길조.

② 메를 찌는데 잘 되면 풍년을 징조.

③ 메가 어느 방위로 기울어지면 그 방위가 흉년든다.

④ 도량서직메 중 잘 된 메의 곡식이 풍년이고 잘 아니된 메의 곡식은 흉년.

2) 西金寧里 酺祭[2]

(1) 祭名 : 酺祭

(2) 祭神 : 酺神之靈

(3) 祭日 : 立春之節이 든 후 正月 或丁或亥日 子時

(4) 祭場 : 8~9년 전에는 '오로콤'이라 하여 마을에서 1㎞ 떨어진 곳에 제장이 있었으나 암석공사로 현재는 마을에서 2㎞ 떨어진 '괴산악'에 위치하고 있다.

(5) 祭儀管理 : 이장이 이 운영 위원회를 소집하여 택일하고 헌관을 선출한 다음 각 동장들을 통해 포제에 대한 사항을 마을 주민들에게 알린다. 제향비는 이민이 부담하는 이 운영비에서 책정된다. 또한 희사금을 제향비로 지출하기도 한다. 그리하여 포제 후에는 포제 경비에 대한 결산 보고를 한다.

(6) 祭官 : 初獻官, 亞獻官, 終獻官, 大祝, 執事, 謁者, 典祀官, 執禮, 豫次 등이며 이 중에서 삼헌관만은 꼭 생기복덕에 맞는 연령의 사람으로 하고 나머지 제관은 적격자로 한다.

(7) 齋戒 및 入祭 : 제 5일 전에 입제하면 제관의 외출을 금하며 마을에 금줄을 치고 젯터부근에도 금줄을 쳐 부정인의 출입을 금한다.

(8) 祭服 및 祭器

① 제복 : 초헌관은 사모관대를 착용하며 아헌관, 종헌관 이하는 도포에 유건을 쓴다.

② 제기 : 재계기간에 향물로 씻는다.

(9) 祭物

① 穀類 : 稻·粱·黍·稷을 꼭 갖춘다.

② 犧牲 : 돼지 전마리

③ 幣帛 : 마포, 명주, 백지, 무명

2) 제보자 : 朴秉允(男, 54세), 서김녕리 959

④ 果類 : 대추, 밤, 감, 배를 기본으로 하여 5종이나 7종으로 올린다.

⑤ 祭酒 : 청주, 감주, 소주

⑥ 菜蔬類 : 미나리, 고사리, 콩나물

⑦ 脯醢 : 쇠고기포, 조개젓

⑧ 乾魚 : 상어

(10) 祭物陳設 : 동김녕리와 유사하다.

(11) 酺祭笏記 : 동김녕리와 같다.

(12) 祝文 : 동김녕리와 유사하다.

(13) 飮福 : 젯터에서 간단히 음복하고 제청에 돌아와 희생은 제관이나 제를 주관하였던 사람들이 나눠 갖는다.

(14) 豫兆 : 행제할 때 말 울음·꿩 울음소리가 들리면 길조. 음복할 때 산메 찐 결과로 길흉을 판단한다.

포제를 지내고 나면 각 집안에서 여러 가지 新年祭를 지낸다. 조왕제, 토신제 등을 지내는데 그 제법은 儒式, 巫式, 佛式 등으로 다양하다.

2. 巫式部落祭[3]

1) 큰당(本鄕堂)

(1) 神名 : 큰도안전 큰도부인(江南天子國 次女)

(2) 職能 : 生産, 物故, 戶籍, 帳籍

(3) 본풀이(내력담)[4] :

---

3) 제보자 : 문순실(女巫, 28세), 동김녕리 1450-1

4) 〈당신 계보〉

강남천자

① 朝天 정중부인

② 金寧 큰도안전 큰도부인

③ 温平 맹호부인

강남천제국(江南天子國) 안까름(內洞)에서 삼형제가 제주도에 들어 와 큰 형님은 조천에 정중부인으로 좌정(坐定)하고 막내는 열운이(溫平里)로 가고 둘째는 김녕에 와서 좌정하였다. 김녕의 두 김씨 집안과 황씨 집안이 큰 배를 운영하여 제주에서 청진항을 왕복하면서 풍랑을 만나게 되니 당을 설립하여 모셨다.

따라서 큰당의 단골은 김씨와 황씨.

(4) 祭名 및 祭日

① 大祭日 : 정월 13 · 14일

대제일은 당굿으로 행해지다가 70년대 이후 미신타파의 영향으로 앉은제(坐祭)로 하게 되면서 규모가 작아졌다. 이 의례는 신앙민들로부터 新過歲를 받고, 신앙민들에게 일년의 운수를 점쳐주는 것이다.

열 사흘날은 당에 가서 예명올림을 하고 도제비로 하여 참석한 사람들의 운수를 전체적으로 한 번만 받아 본다. 열 나흘날은 도산침(도산받음)을 하여 김녕 각 기관의 안녕과 시만곡석(新萬穀食)의 풍흉 등 일년 동안의 마을 공동의 운수를 점쳐 본다. 그 다음에 도액막음을 하여 당제는 끝난다.

제물은 각 집에서 추물(시루떡 2되, 메 1양푼, 과일, 생선, 삶은 계란, 술, 채소 등)을 차리고 가서 제단에 배설하고 액막이 상도 각 호에서 별도로 마련한다.

② 마불림제 : 7월 13 · 14일

③ 시만곡대제(新萬穀大祭) : 9월 13 · 14일

(5) 祭儀執行者 : 메인 심방은 장모에게서 멩두를 물려받은 김 윤보씨이지만 그는 정월, 칠월의 제를 집행하고 구월의 제는 문 순실씨의 어머니가 집행한다.

(6) 위치 및 형태

① 위치 : 김녕 중학교에서 200여 m 떨어져 입산봉쪽으로 올라가는 곳에 있다.

② 형태 : 돌담으로만 둘러 있었는데 한 임생씨와 김녕 부녀회원들이 일본과 김녕에서 회사금을 거두어 당을 정리하였다.



〈큰당〉

2) 성세깃당

(1) 神名 : 요왕제국 말잣아돌(龍王帝國末男)

(2) 職能 : 漁船, 海女

(3) 본풀이 :

요왕황제국 막내 아들이 남방사주(藍紡絲紬) 겹저고리, 남방사주 붕에바지[5], 남서화지(藍水禾紬), 적화지(赤快子)를 장군처럼 입어가지고 서울 연추문(延秋門)을 열려서 요왕황제국 말잣뚤애기와 부부가 되어 김녕에 들어왔다. 김녕에 들어와서 알성세기를 차지하여 가는 선(船)도 차지, 오는 선(船)도 차지, 상즘녀(上潛女), 중즘녀, 하즘녀, 만민해녀(萬民海女)를 차지하는 한집이 되었다.

5) 솜을 넣은 바지.

(4) 祭日 및 祭名 : 정월 열여드레에는 신과세제를 하고, 삼월 초여드레에는 잠수굿을 하고, 칠월 열여드레에는 마불림제를 하고, 구월 열여드레에는 시만곡석대제를 한다. 제물은 큰당과 마찬가지이다. 위 중에서 삼월 초여드레날은 요왕문이 열리는 날이라고 해서 김녕 해녀들이 잠수굿(해녀굿)을 하는 날이다. 잠수굿은 따로 항목을 설정하여 기술하기로 한다.

(5) 단골 : 임씨, 조씨, 한씨

(6) 제의집행자 : 정월에는 김 윤보씨, 칠월에는 문 순실씨의 어머니, 구월에는 문 순덕씨가 각각 집행한다.

(7) 위치 및 형태

① 위치 : 일주도로를 중심으로 해수욕장과 마주보는 위치에서 남쪽으로 300여 m 올라간 곳이다.

② 형태 : 큰 팽나무가 있고 주변은 돌담으로 에워싸여 있으며 제단은 시멘트로 정리되어 있다.

(8) 잠수굿(해녀굿) : 이 의례는 바로 마을 사람들의 경제 활동과 밀접하여 해녀들은 물론 마을의 유지들, 각 기관장들, 마을 주민들이 참석하는 큰 굿곧 종합의례의 형식을 취하는 것으로 김녕 전체굿이라 할 수 있다. 제장은 바닷가에 마련한다. 온 마을의 관심 속에 행해지는 굿이어서 주민들은 당제에서 도산치는 것보다 잠수굿에서 도산치는 것에 주목한다. 당굿이 크게 행해지고 있지 않는 데 비해 잠수굿은 그 절차나 규모에 있어 복잡하고 크게 행해지고 있다. 따라서 당굿을 크게 거행하면서 마을 공동의 운수를 알아보고 마을 공동의 안녕을 기원하는 타 마을의 당굿에 비견할 만하다. 또한 이 굿은 소라, 전복, 미역 등 해녀 채취물의 풍요를 비는 행사와 어부의 해상 안전을 비는 행사가 그 주요 내용이 되고 있어, 타 마을에서 이월에 행해지는 '영등굿'적 성격의 굿이라고도 할 수 있다.

잠수굿의 개략적인 진행과정은 다음과 같다.

① 초감제 : 제주도에서 치뤄지는 무속의례의 첫머리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무속의 모든 신령을 청해 들이는 제차이다.

② 상계 : 초감제에서 신들을 청하여 앉혔지마는 떨어진 신령이 없도록 또

한번 되풀이하는 의미의 것이다. 초감제와 같이 請神儀禮에 해당한다.

③ 추물공연 : 젯상에 청해 앉힌 신들에게 제물을 잡수도록 권하고 소원을 비는 제차이다.

④ 요왕세경본풀이 : 農畜神 세경의 신화를 노래하고 기원하는 의례다. 이는 농축산물이나 해산물의 풍요를 빌면서 주민들의 생업에 안녕을 기원한다는 의미에서 행해지는 것이다.

⑤ 석살림 : 신들을 즐겁게 놀리고 소원을 비는 제차이다.

⑥ 요왕맞이 : 요왕신이 오는 길을 치워 닦아 요왕신을 청해들이고 해녀 채취물의 풍요와 어부, 해녀의 해상 안전을 기원하는 제차이다.

⑦ 석살림 : 제청으로 돌아와 다시 석살림을 한다.

⑧ 씨드림 · 씨점 : 미역, 전복, 소라 등 해녀 채취물의 씨를 뿌리는 행사다. 씨드림은 50~60대의 할머니들이 하게 된다. 씨드림을 하는 할머니는 장씨 집안에 시집온 사람으로서 한 대(代)에 한 사람씩 대물림을 하였었다. 그런데 김녕 양 승옥 할머니가 작고하신 후로는 그 대물림이 이어지지 않고 있어 해녀 회원 중에서 적절한 사람들이 씨드림을 한다. 씨드림을 하는 사람들은 '씨멘통'이라 하는 것에 좁씨를 두어 되(升) 놓고 와서 젯상 앞에서 신나게 춤을 추다가 한 사람은 동쪽으로 가고 한 사람은 서쪽으로 간다. 樂巫들은 연물가락을 빨리 치면서 씨드림을 하는 사람들의 뒤를 계속 따라가고, 씨드림을 하는 사람들은 바다에서든, 잡초밭에서든, 덤불밭이든 간에 자신들이 가고 싶은대로 빠른 걸음을 걸으며 부지런히 신나게 씨를 뿌린다. 그렇게 하여 바닷가를 돌아가며 좁씨를 다 뿌리고 나면 일동은 제청에 돌아온다. 제청에 돌아와서 신나게 한판 놀고난 다음에는 돗자리를 펴고서 심방이 "동경국에서 서경국으로 씨뿌리레 가자. 서경국에서 동경국으로 씨뿌리레 가자. 전복씨 뿌리자. 구젱기(소라)씨 부리자, 오분제기씨 뿌리자. 다 뿌리자."라고 노래하면서 좁씨를 돗자리 위에 뿌린다. 이렇게 하여 돗자리 위에 흩어진 좁씨의 밀도를 관찰하여 심방은 해녀 채취물의 풍요를 점치게 되는데 이를 '씨점'이라 한다. 이렇게 씨드림 · 씨점을 하고 나서는 씨드림을 했던 사람들을 위해 '서우젯소리'라는 노래를 부르면서 신풀이를 하게 된다.

⑨ 요왕차사본풀이 : 차사신화를 노래하면서 바다에서 액을 만나지 않도록 기원한다.

⑩ 상단숙여 도액막음 : "상단 도숙읍서."라는 사설로 上位의 神을 돌아갈 차비를 시키고, 이어서 마을 전체의 액막이를 한다.

⑪ 각도비념 : 해녀 탈의장 안(보일러실 등)의 여러 부분을 차지한 신들에게 각각 기원하는 의례다.

⑫ 선왕풀이(배방선) : 신을 보내는 送神儀禮라 할 수 있다. 배를 짚이나 판자로 간단히 만들고 그 배에 제물을 조금씩 실어 바다 멀리 나아가 띄워 보내는 것이다.

⑬ 도진 : 초감제 때에 청해들인 신들을 보내는 제차다.

이 굿은 김녕 해녀 회원들이 주축이 되어 제의를 집행·관리한다. 해녀 회장이나 전에 해녀 회장을 지냈던 사람들은 제를 지내기 위해 7~8일 간의 정성을 하여 재계하고, 祭場을 정리한다. 또한 제물을 차리는 집앞에도 금줄을 치고서 부정탄 사람들의 출입을 막고 있다. 그리하여 제일에 당하여서는 위와 같은 차례에 따라 새벽부터 저녁 늦게까지 성대하게 굿을 거행하는 것이다. 이는 요왕신을 맞이하여 어부와 해녀들의 해상 안전과 생업의 풍요를 비는 제이지만, 김녕 마을의 여러 사람들의 관심과 참여 속에서 행해지고 있어 부락제로서의 그 위치를 공고히 하고 있다.

3) 궤눼깃당

(1) 神名 : 궤눼깃한집(소천국과 벡주의 일곱째 아들)

(2) 職能 : 除厄, 進慶

(3) 본풀이(돗제 본풀이) :

소천국의 일곱째 아들이 벡주님의 腹中에 있을 때, 벡주님이 하루는 소천국님에게

"가난하여 살 수 없으매 어디 가서 피씨라도 지을 땅이나 한번 알아보고 오십서."

하고 말했더니 소천국이 피씨 닷말지기를 구해가지고 왔다. 그 이튿날은

소천국이 남잠대[6]에 감은 암쇠를 매어놓고 벨진밧[7] 돌진밧[8]에 피씨를 갈러 갔다. 벡주님은 점심밥을 차리고 가서

"설운낭군님아 밭을 갈다가 시장기나 멀리려거든[9] 이 밥이나 드십시오."

하고는 점심밥을 두고 왔다. 소천국님이 한창 밭을 갈고 있는데 지나가던 중의대사님이 밭담 위에 올라 서면서

"밭가는 어르신님네 시장기나 면하게 밥이나 좀 주십시오."

라고 하니 소천국님이

"나도 먹을 밥이 없는데, 중의대사님이 먹을 밥이 어디 있겠읍니까? 그렇다고 하여 그냥 가시라고 하겠읍니까. 와서 제반이나 삼 술 거두고[10] 가십시오."

라고 했다. 그런데 그 중의대사님은 제반 삼술도 아니 거두고 그대로 모두 먹고 가버렸다. 중의대사님은 가버리고 소천국님은 밭을 한참 갈다가 해는 중천에 떠 점심때가 되고 시장기가 나서 밥을 먹으려고 하니 밥은 한 술도 남아 있지 않았다. 이 소천국님이 배는 고프고 밭은 갈려 해도 배가 고파 못갈게 되었다. 그러던 중 묵은 각단 새 각단밧[11]을 보니 붉은 암송아지가 있어 거기서 쇠를 잡고 쇠발톱, 쇠가죽을 벗겨두고 멩개낭[12] 꼬쟁이를 채워 익었는가 한 점 설었는가 한 점 먹음먹음한 것이 쇠 한 마리를 다 먹어도 배부르지 않았다. 쇠가죽은 가지고 와서 밭담 위에 걸쳐 두고 가만히 앉아 생각하다가 밭가는 검은 암소가 있어 그것도 잠대를 다 거두어 놓고 쇠가죽 벗기고, 쇠발톱을 벗기어 꼬쟁이를 채워 먹는 것이 그 쇠 한 마리를 다 먹어 치웠다. 쇠 두 마리를 다 먹고 나서야 배고픔을 겨우 면했다. 그런 후에 밭을 갈아서 피씨는 갈아야 하겠고, '무엇으로 밭을 갈까?' 생각하다가 잠대를 배때기로 밀면서 밭을 갈고 있었다. 이때 벡주님은 '낭군님, 밭은 얼마나 갈았을까?' 하면서 와 보니까 밭은 조금만 갈아져 있고 그 나머지는 전혀 안 간 상태였다.

"어찌하여 검은 암쇠도 없이 배때기로 밭을 갈고 계십니까?"

---

6) 나무쟁기.
7) 별이 떨어진 밭이란 말로 넓은 밭을 뜻함.
8) 벨진밧에 대한 調韻을 위한 造語.
9) 免하려거든(멀리하려거든)
10) '제반 걷다'라는 말은 제사때 멧밥을 조금씩 세 번 숭늉에 떠 넣는다는 말로 조금만 떠 먹는다는 뜻의 말로 쓴 것.
11) 띠밭.
12) 청미래넝쿨

"지나가던 중의대사님이 제반 삼 술도 아니 거두어 놓고 밥은 먹고 가 버리니까 밥은 없고 배고픈 김에 붉은 암송아지 잡아 먹고, 검은 암송아지 두 마리째 잡아 먹으니까 먹은 것 같더라."

그때 벡주님이 하는 말이

"비록 가난하게 살지라도 우리집 쇠는 잡아 먹어도 괜찮지마는 놈의 집 쇠를 잡아 먹고서 쇠도둑이란 말을 들으면서 어떻게 살 수 있읍니까. 살 수 없으매 우리 부베(부부)간에 살림을 가릅시다."

이리하여 벡주님하고 소천국님이 그 밭에서 서로 이별을 하게 되었다. 이별한 후에 벡주님은 점점 배가 불어 아기를 낳게 된다. 소천국님은 벡주님과 헤어져서 내려오다 셋송당[13]에 이르러 세명주라는 여자를 작은 첩으로 삼아서, 활을 만들어 대정골, 정의골 다니면서 노루랑 사슴을 쏘아다가 더운피 단피로 삼시(三時) 세 때 구명(救命)하며 살고 있었다. 벡주님은 남편과 헤어져 내려오다가 웃송당[14]에서 아기를 낳았는데 아들이었다. 아들은 낳아서 젖을 먹이려고 안아 앉으면 어머니 젖가슴도 팡팡 때리고, 한두 살 넘어가고 기어다니기 시작하니까 널어 놓은 날래도 헤쳐 놓아 어머니에게 욕듣고, 그렇게 하니까 벡주님이 하루는 '아버님은 살아 있어도 호로 자식이나 마찬가지로구나.' 라고 생각한다. 그리하여 벡주님이 그 아이를 일곱자 걸렛배로 업으면서

"설운아기야, 업히라. 아버지나 찾아 가자."

하면서 내려오다 보니까 셋송당 세맹주, 알송당[15]에 와 보니 아버님이 있는 것이었다. 아버님 무릎에 앉히니까 그 애기가 아버님 삼각수(三角鬚)를 가지고 장난하였다. 그러니 소천국이

"예끼, 네 이놈. 넌 어멍 뱃속에 있을 적부터 불효 자식이더니 태어나도 역시 불효 자식이로구나."

하니 벡주님이 말하기를

"어찌하면 좋겠읍니까? 이 아기를 죽여야 되겠읍니까? 살려야 되겠읍니까? 어떻게 이 내 속으로 낳은 아기를 죽일 수 있겠읍니까? 그러니 우리 동이와당(東海바다) 쇠철이 아덜[16]이나 불러다가 무쇠설캅(鐵石匣)이나 짜서 요왕에게나 던져 버립시다."

---

13) 松堂里의 지명.
14) 松堂里의 지명.
15) 松堂里의 지명.
16) 대장장이 아들.

무쇠설캅을 짜서 요왕에 던져지니 들물(밀물)나면 동 바다, 썰물나면 서 바다로 흥당망당 떠 다니다가 요왕황제국에 들어가게 되었다. 그때 요왕황제국에도 대감이 있고 궁(宮)도 있어 무쇠설캅은 요왕궁 먼 올레[17]에 있는 큰 무우낭(珊瑚樹) 상가지(上枝)에 가서 걸어졌다. 그때 요왕황제국님은 아무 부러움 없이 딸 삼형제를 거느리고 부자로 잘 사는데 갑자기 요왕에 파도가 치고 요란스러워진다. 요왕황제국 대감님이 딸 삼형제를 불러놓고,

"설운 아기들아, 저 올레에 나고 보라 어찌하여 어제까지도 없던 든변난 변[18]이 쎄여지니[19] 이도 곡할노릇이구나."

"큰딸 아기, 나고 보라."

"아버님, 아무 것도 없읍니다."

"셋딸 아기, 나고 보라."

"아버님, 아무 것도 없읍니다."

작은딸이 나가다 보니까 먼 올레의 무우낭에 난데없는 무쇠설캅이 가로 걸어져 있었다. 작은 딸이 그것을 보고 들어 와서 하는 말이

"아버님, 올레에 나가다 보니까 무우낭 상가지에 무쇠설캅이 가로 걸어져 있읍니다."

"그러면 그것을 누구가 내려오겠는가? 큰딸, 셋딸아 내리어라."

"절대로 못내리겠읍니다."

"작은딸아 내리어라."

작은딸은 무우낭 상가지를 안아서 오른쪽으로 세 번, 왼쪽으로 세 번 돌아가더니 무쇠설캅이 아래로 철커덕 떨어진다.

"저 속에 무엇이 들어 있는가? 큰딸, 셋딸아 열어보아라."

"전혀 열지 못하겠읍니다."

그때 작은딸은 머리에 갑사댕기 드리우고 연반물[20] 치마, 저고리를 입고 코잡이 버선, 가막창신 신어 앉아 왼발로 퉁퉁 세 번을 치고 웨오ᄂᆞ다[21] 돌아가니 일혼 여덟 거슴통쉐[22]가 절커덩하며 열어졌다. 열어진 무쇠설캅 속을 바라 보니 한 도령이 앉아 있었다. 장군같은 도령이 앉아 있는 것을 요왕황제국님이 보고 벌컥 화를 내면서,

---

17) 거릿길에서 집으로 드나드는 골목길.
18) 여러가지 변.
19) 일어나니.
20) 연한 반물빛.
21) 좌우로.
22) 거슴 : 좌물쇠청, 통쉐 : 자물쇠, 곧 일혼 여덟의 자물쇠청이 걸리는 자물쇠.

"너는 어찌 인간이 되어, 요왕황제국 고요한 곳에 와 든변난변을 일으키느냐?"

태자는 겁이 나고 잘못했다가는 그 자리에서 목숨이 끊어질 수 있으매 이왕 일이 이렇게 되었으니 거짓말이라도 한 번 해보자는 심산이었다.

"나는 소천국 말잣아덜 일곱째 태자인데 강남천제국의 세변난리(世變亂離)를 막으러 가다가 요왕황제국 대감님께 인사차 들렸읍니다."

"아, 그런가, 그러면 우리 집에 사위가 없으매 사위가 되는 것이 어떻겠는가?"

하여, 큰딸, 셋딸 방에 들어가라 하니 눈도 아니 떠서 본 척도 안하다가 작은딸 방에 들어가라 하니 서른 여덟 잇바디를 드러내며 웃는다. 태자가 안으로 들어서고, 늦은덕의 정하님[23]이 도임칠반상[24]을 차려 방안에 들어갔는데 태자님은 눈을 감은 채 본 척하지도 않는다.

"어찌하여 눈도 아니 뜨고 본 척도 하지 않으십니까?"

"나는 장군님이 되어 밥을 먹어도 동이로 먹고, 술을 먹어도 동이로 먹고, 고기를 먹어도 전마리를 먹는다."

그리하여 요왕황제국님께 이 사실을 알리니,

"사위손 하나 못 대접하겠는가? 그리하면 동창고(東倉庫), 서창고(西倉庫) 다 열어서 대접하라."

날마다 삼시 세때를 융숭히 대접하니 창고가 다 비어간다. 황제국 대감님 말씀하기를

"딸은 나면 놈의 집 산천[25] 아기이니 다시 무쇠설캅을 짜서 요왕황제국 밖에다 내보내라."

그리하여 물 바깥으로 내보낸다.

강남천제국의 백몰레왓(白沙田)에 무쇠설캅이 올라오고, 천제님은 지나다가 난데없는 무쇠설캅이 있는 것을 보고 '어찌된 무쇠설캅인가?' 하고 열어보니 장군같은 자가 있어,

"어디서 온 장군입니까?"

"나는 소천국 태자인데 세변난리 막으러 왔읍니다."

---

23) 하녀를 일컫는 말. 보통은 '하님'이라고만 하는데 일반적으로 하녀의 행동이 느린 데서 '늦은덕'이 붙은 듯함.

24) 도임상(到任床) : 성찬을 차린 상의 뜻으로 쓴 것.
따라서 도임칠반상은 성찬으로 차린 칠첩반상을 말함.

25) 묘자리.

이에 천자가 감옷(甲衣), 감[26]투구, 기치창금(旗幟槍劍) 내어주니 세변 난리에 뿔 열 두개 돋은 장수, 아홉 돋은 장수를 다 물리치니 천자님이 땅 한 조각, 물 한 조각 내어주며,

"소원이 있으면 말해보십시오."

"소원은 아무것도 없읍니다. 다만 본국으로 가겠읍니다."

그리하여 늦은덕 삼헌관속 육방(三獻官屬 六房)을 거느려 제주도로 들어온다. 소섬[27]으로 들려고 하니 진질각[28]은 장하르방·장할망이 쎄여지고, 소섬 동어귀로 들려하니 동어귀가 쎄여지고, 어디로 갈 것인가 하며 들어가다 보니 성산포는 포구 좋아 들어가 봤더니 항파두리 김통정이 만리성성을 쌓아 앉아 못들어 가고, 오조리(吾照里)로 들려하니 하루하루 허천당 일뤠가 쎄여져 못들어가고, 시흥리(始興里)로 들려하니 돈지할망이 쎄여지고, 종달리(終達里)로 들려고 알우뭇궤로 들어가다 보니 소금장수 할망들 구석구석 마다 장막을 쳐 앉아 있어 '아이고, 이 마을은 짜기도 짜다.' 하여, 동물깍이나 찾아 내려 가려고 내려 온 것이 벨방[29] 상고지[30]를 올라가게 되었다. 벨방 상고지를 올라서서 웃송당 고부니마을[31] 쪽으로 휘돌아 올라가 보니, 어머님이 늦은덕의 정하님을 거느리어, 곡식을 지어 콩을 갈고, 높은 동산에 앉아 콩을 불리고 있더라. 태자는 속으로 '이제까지 나는 부모에게 불효 자식이 되었건만 오늘은 효자말이나 들어보도록 하자.'고 생각한다.

어머님이 콩을 불리는데 난데없는 광풍이 불어 눈에 콩깍지가 들었다. 늦은덕의 정하님은

"상제님아, 상제님아 벨방 상고지 쪽으로 바라보십시오. 세 살 적에 죽으라고 버린 일곱째 태자님이 살아 돌아와 어머님을 죽이러 오고 있읍니다."

"요년아, 저년아, 놈의 집 종살이를 하려고 하면 하던 말은 한 데 버리고 들은 말은 들은 데 버리라. 어디에 있단 말고?"

하여 벨방 상고지쪽을 바라보니 아닌게 아니라 작은아들이 있었다. 이제

---

26) 감옷에 調韻을 맞추기 위한 造語.
27) 牛島.
28) 소섬 해변의 지명.
29) 舊左邑 下道里(別防).
30) 下道里의 지명
31) 고부니ᄆᆞ를 : 송당리의 지명

작은아들은 어머님의 웃송당 고부니마을로 올라와서

"어머님아, 어찌하여 눈을 한참 부비십니까?"

"나, 아들아 난데없이 눈에 콩깍지가 들어갔구나."

태자가 부채를 꺼내면서

"이리헙서, 저라도 눈에 든 콩깍지나 나오게 해보겠읍니다."

부채를 세 번 부치니 눈에서 콩깍지가 나온다.

"어머님아 난 공훈(空一) 땅도 있읍니다. 나 먹을 만한 땅도 있읍니다."

이렇게 하여 어머님은 웃송당 고부니마을을 차지하고, 아버님은 알송당을 차지하였다. 그때에 작은아들이 한로영주산(漢拏瀛洲山) 물장오리[32], 테역장오리[33]로 산천구경 물구경 다하다 공훈 땅을 찾아 나선 것이 상덕천(上德泉), 하덕천(下德泉) 내려오다 보니 베잣클동산 족은버심에 와서 시름팡에 와서 시름 쉬어 아래로 쑥 내려오다 보니 김녕 포구 한개에 들어선다. 한개하르방, 한개할망이 있어 소천국의 태자가 들어오고 있으니까,

"아이고, 어떻게 해서 여기 와 있는가?"

"이 마을 땅도 나 땅, 자손도 나 자손입니다."

"너도 외로운 몸, 우리도 외로운 몸, 우리도 아들 자식, 딸 자식이 없어 외로우매 우리 수양 부모, 수양 자식 삼는 게 어떠하겠는가?"

그렇게 부모를 삼아서 입산봉 오름에 앉아 낮에는 찬이슬, 밤에는 흑이슬[34] 맞으며 연 삼일을 앉아 있어도 어느 누가 와서 '밥 한적을 드십시오. 물 한적을 드십시오. 술 한잔을 드십시오.' 하는 자손이 없어 태자님은 '괴씸하다. 김녕 마을은 내가 땅을 차지해서 왔는데 아무도 먹으란 말이 없구나.' 라고 생각한다. 그때 요왕황제국 임금께 말하기를,

"요왕황제국님아, 처부모도 반부모입니다. 이 마을은 내가 차지한 땅인데, 난데없는 홀연광풍(忽然狂風)이나 보내주십시오."

그때 김녕 마을은 곡식을 다 갈아 놓고 오늘, 내일 거두려 하여 한창 좋은 날씨가 계속되고 있었는데 난데없이 김녕 마을에만 광풍이 불어 온다. 이리하여 곡식은 거두지 못하게 되고 솥씻어 엎은 듯 甲寅年 흉년이 되다시피하였다. 김녕에서는 어른, 아이 할 것 없이 전부 모여 회의를 열었다. 느믜릿 현씨 할머님 하는 말이

"이 마을 땅차지, 물차지한 태자님이 있다."

---

32) 한라산 중턱 봉우리(제주시 봉개동 境上)에 있는 池名.

33) 한라산 중허리의 沼名.

34) 찬이슬과 調韻을 이룸.

하여, 그리로부터 태자를 찾아 가서

"우리가 잘못했읍니다. 어디 좌정할 만한 곳이나 차지하십시오."

그리하여 좌정할 만한 곳을 찾는데, 남당은 가 보니 남당 아래 개오줌 내가 팡팡나고, 식닥빌레[35]에 가 보니 인빨(人足), 신빨이 쎄여져 다니지 못하겠고, 알궤눼기는 가 보니 들어 갈 때는 평평하여 좋은 굴이어도 돌아앉으면 바람이 일어, 가는 바람도 박치고 오는 바람도 박치고 하여 있을 만하지 못하고, 올라가고 올라가고 한 것이 밭 하나 넘어서 아래로 쑥 들어가 보니 큰 굴이 있어, 들어가서 남쪽으로 바라보니 벨(星)도 숨숨 보이고 달(月)도 숨숨 보여 좌정할 만하겠다. 좌정할 터를 정하여 두고 나니,

"뭣을 잡수십니까?"

"나는 장군이 되어 쇠를 먹어도 함박(함지박)같이 전마리를 먹는다."

"가난한 백성이 어찌 쇠 전마리를 바칠 수 있겠읍니까? 가난한 집이나 부자집이나 할 것 없이 디딜팡[36] 아래 가믄족바리[37] 흰족바리[38] 자릿도세기[39] 하나를 사다 놓아 물주고 수둠[40]주어 함박같이만 크거들랑 창자만 떼 두고, 물 한점 덮이 없이 상을 바치겠읍니다."

"그러면, 그리하라."

그런데, 상을 바치려고 하니 도마도 없고, 칼도 없고 제청도 없으니 ᄂᆞᄆᆞ릿 문씨 하르바님이 올라 가서 돌을 주워다가 돌제청을 차리고, 나무를 베어다가 나무제청를 차려내고, 칼도 차려낸다. 그리하여 돼지 한 마리를 그리로 끌어다가 창자만 빼 두어 상반[41]은 열 두 반, 중반[42]은 아홉 반, 하반[43]은 일곱 반으로 하여 설반(設盤)[44]을 걸어다가 상을 바치고, 나머지는 거기에서 자손들이 음복을 하였다.

우리 제주 戊子 己丑年 4·3사건 때 이 당과 입산봉의 거리가 가까와서

---

35) 동네지명.
36) 변소에서 변을 볼 때 밟고 앉는 얇고 긴 돌.
37) 검은 돼지.
38) 흰 돼지.
39) 어린 돼지.
40) 거름.
41) 웃어른에게 올릴 반기.
42) 그 다음 사람에게 올릴 반기.
43) 아랫 사람에게 드리는 반기.
44) 잔치나 제사 때에 여러 군데 나누어 주려고 떡, 고기 따위를 쟁반에 나눠 놓음.

영장을 메어 당앞으로 통과하여 입산봉으로 오르게 되니

"여기는 너무 놀락내 놀피[45] 내가 탕천(撐天)하여 못쓰겠으니 이제는 너희들 사는 일문전[46]으로 청하라. 이리하여 좋은 날, 좋은 택일 받아다가 올레 앞에 음줄이나 금줄 매어 놓고 삼일 정성을 하여 신의 성방(심방) 불러다가 초감제로 청신하여 함박에다 물 한점 떨어진 것 없이 열 두 설반(設盤) 거두어다가 난산국 본산국 푸는대로 신의 본을 다 풀어서 열 두 설반은 위로 應鑑[47]해가건 너희들은 그 남은 걸로 조상에도 호근 대잔치 자손에게도 호근 대잔치 하도록 하라."

이러한 내용의 본풀이가 다 끝나면 심방들은 다음과 같이

"난산국 본산국 풀었읍니다. 신의 본을 다 알 수가 있겠읍니까. 아는 대로 일렀으니 죄랑 있건 사하시고 벌랑 있건 풀어주십시오. 이 집안에 이 자손들 땅세 바칩니다. 물세 바칩니다. 오늘날까지 자손들이 벌어 먹은 역가[48], 벌어 쓴 역가, 자손들 편안히 해주신 역가, 좋은 재산 일롸준 역가, 좋은 분들 일롸 준 역가 바칩니다. 어느 일본 주년국 간 아기나 어느 군인 간 아기나 대학 공부 하는 아기들, 이 김녕에 거주하는 아기들이나, 세경너른들 시만곡석이랑 무쇠여름[49] 쏠여름[50] 열게 해주고 집안에 있는 아기들이랑 신병도 걸리게 말고, 본병도 걸리게 말고, 無故安쭈시켜서 앞으로 오는 액년이랑 그저 본향한집에서 풀어주십시오. 물비리[51] 강비리[52] 허벅지심[53] 배에 배창, 등에 등창(背瘡)[54], 모든 죄목이랑 다 풀어주십시오. 난산국 본산국 풀었읍니다."

라는 내용의 기원을 한다.

---

45) 날피.
46) 마루방 앞쪽 문 앞.
47) 감응. 신이 정성을 받음.
48) 신에 대한 보답.
49) 낟알이 잘 여물어서 딴딴한 열매(이삭).
50) 쌀 열매.
51) 물기가 흐르는 옴.
52) 물기 없이 마른 옴.
53) 허물.
54) 등창. 등에 나는 큰 부스럼.

(4) 돗제(豚祭)

위 본풀이는 궤눼깃당의 당신의 계보와 당신으로 모시게 된 내력, 돼지 전마리를 올리게 된 내력을 소상히 설명해 주고 있다. 이러한 전승에 의해서 김녕리에서는 1~4년에 한 번씩 가가호호에서 돼지 한 마리를 잡아 이 당신을 위한다. 이를 돗제라 한다. 이 돗제는 원래 당에서 하던 것을 각 집의 門前에서 지내고 있다. 이렇게 된 것에 대해 몇 가지 유래가 전해진다.

우선은 위 본풀이에서도 이야기된 것으로 '당신이 입산봉으로 올라가는 데 날혼(生魂)의 날피 냄새를 견디지 못하여 각 집의 문전에서 신의 성방(심방)을 불러다가 초감제로 청신하라.'고 한 데서 그 유래를 알 수 있다.

또한 일제 시대 때 마을 사람들이 당을 중심으로 하여 결속되는 것을 저지하고자 당굿을 못하게 한 때문에, 몰래 집에서 돗제를 하다 보니 50~60여 년 전부터 당에서가 아니라 문전에서 제를 지내게 되었다고도 전한다.

돗제의 형식은 주로 巫式으로 심방을 불러다가 지내게 되는데, 儒式으로 하여 祝을 고하기도 한다. 제를 지내는 방식은 각 집마다 적절한 형식을 취한다. 그러므로 어떤 특정의 제의 방식을 고집하지 않는다. 제가 끝난 후에는 이웃들과 친척들을 초대하여 같이 음복한다.

제의 방식이 다양하듯이 제의 주기 또한 다양하다. 한 3~4년 동안 집에 별일이 없고 평안하면 조상님들 음덕이라고 생각하여 제를 지내기도 하고, 새로운 자손이 태어날 때마다 지내기도 한다. 자손들의 터울을 보통 3~4년 정도로 본다면 이 경우에도 결국 3~4년을 주기로 돗제를 한다고 볼 수 있다. 각 집의 사정에 따라 제의 주기는 다양하지만 대부분 3~4년에 한 번씩 지낸다고 볼 수 있다.

마을 사람들은 어떤 특정신을 위한다기보다는 가내의 안녕, 이웃 간의 유대, 심리적인 위안을 얻기 위하여 이 제를 지내는 경우가 많다. 그러므로 그 위하는 신을 당신이라 생각하기도 하고, 집안 조상님들이라고도 여기며, 그밖에 집안을 보호하는 신들이라고도 여긴다. 이렇기 때문에 돗제의 형식이나 돗제의 대상신은 저마다 조금씩은 달리 인식되는 것이다.

마을 사람들은 이 돗제를 지냄으로써 심리적 위안과 이웃과의 유대를 도모

할 수 있다는 점을 긍정적으로 보고 있다. 예전의 농촌 현실에서는 돼지고기가 흔치 않았다고 보겠는데, 김녕 마을에서의 돗제는 각 집에서 각기 다른 시기에 하고 있어 몇 집씩 걸러서 제를 지내게 되면 한달에 한 번 정도 고기를 먹을 수 있었다고 한다. 어떤 주민은 이러한 근거를 이야기하면서 김녕 사람들의 장수의 비결 중 하나로 돗제를 들기도 했다. 따라서 타 마을에서는 돗제라고 하면 김녕의 큰 귀신을 위한다는 것으로 보고 있으나 그와는 좀 다르게 돗제를 이해해야 할 것이다.

김녕 주민들은 물론 김녕 출신이면서 타 마을이나 타국에 가 있어도 이 돗제는 꼭 한다고 한다. 미신타파가 있을 때에 김녕에서 심지어 돼지 잡는 일까지 금했다는 것은 그 만큼 돗제가 많이 행해졌었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보겠다.

돗제는 김녕에서만 행해지는 의례이다. 어떤 특정신을 위한다는 의례라고 생각하기보다는 가내의 안녕을 기원하고 나아가 이웃과 마을의 유대를 형성한다는 점에서 주민들의 긍정적인 이해의 바탕 위에 계속 행해지고 있다.

(5) 위치 및 형태

① 위치 : 중학교 뒤쪽에 위치한 큰당을 지나 조금 더 입산봉쪽으로 올라간 곳에 위치하고 있다.

② 형태 : 한 밭 구석에 비교적 큰 굴이 있고 그 속에 돼지를 잡던 도마가 놓여 있다.

4) 일뤳당

(1) 神名 : 江南天子國 龍女夫人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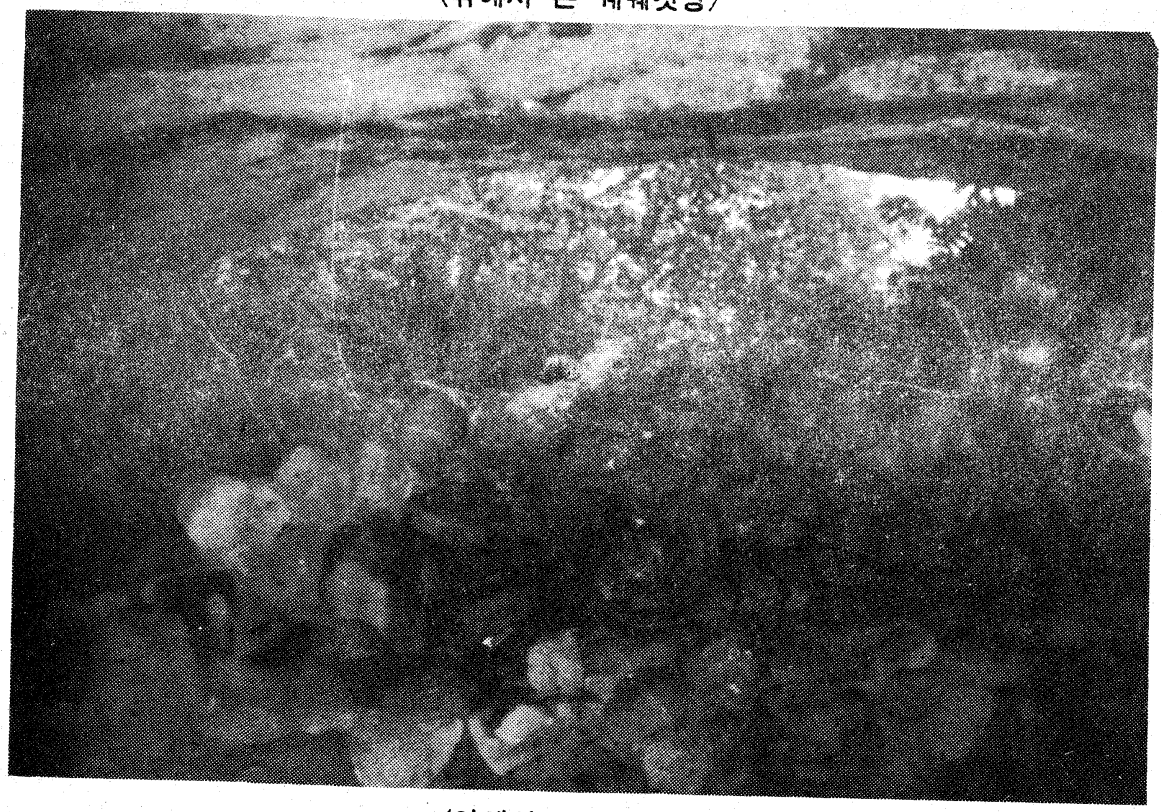
(2) 職能 : 15세 미만의 아이들의 피부병, 복질(腹疾), 育兒, 無病安全.

(3) 祭日 : 매월 7일, 17일, 27일

특별히 큰 당제를 치르지는 않으나 15세 미만의 어린 아이들이 있는 집에서는 보통 일년에 세 번씩 찾아 간다. 요즘은 꼭 15세 미만의 아이가 아니더라도 집을 떠나 타관으로 나간 사람의 무병 안전을 기원할 때 가기도 한다. 심방이 직접 가서 예명을 올리고 기원을 하기도 하나, 일반 신앙민들만도 간단히 제물을 차리고 가서 이름과 나이를 고하면서 기원하기도 한다. 이 당에 갈



〈밖에서 본 궤눼깃당〉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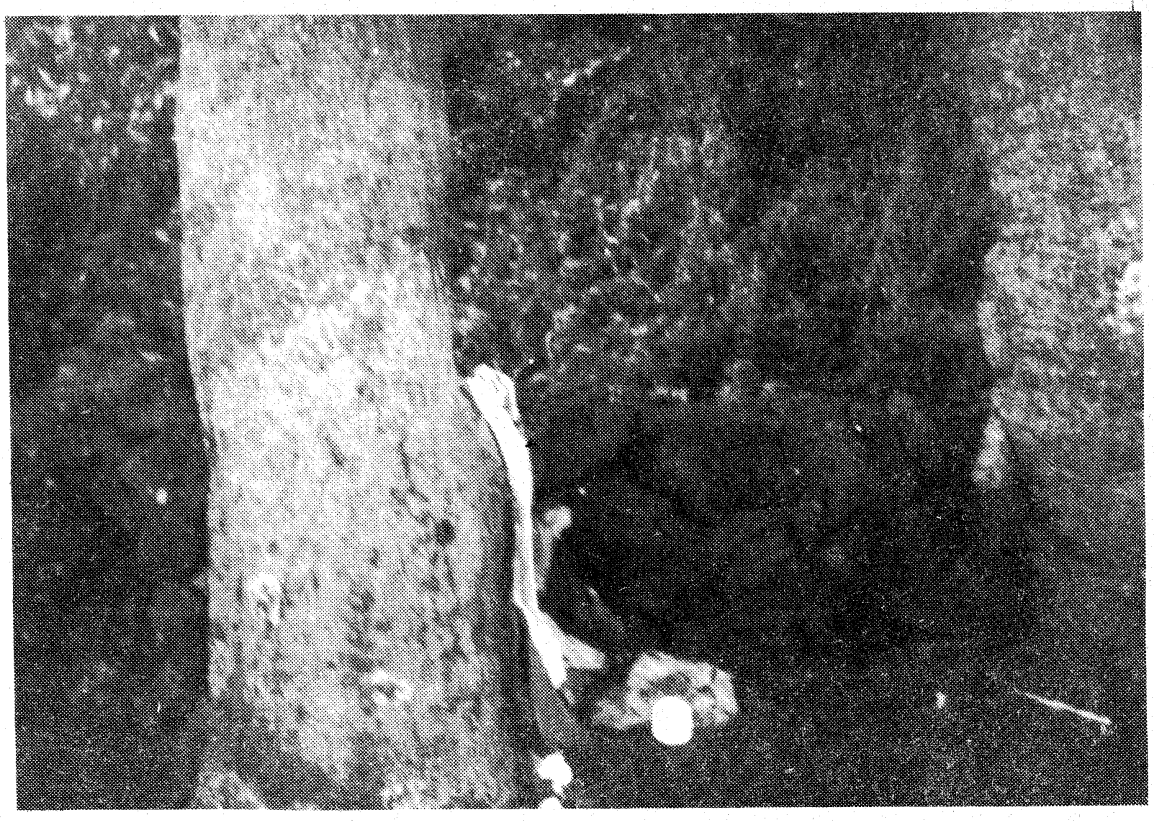
〈안에서 본 궤눼깃당〉

때에는 메 1양푼에 각 제수(사과, 계란, 술 1잔, 숟가락 하나 등)들을 딱 하나씩만 가지고 간다. 심방이 예명을 올리고 난 후 점을 쳐 주고 나면 가지고 갔던 술잔은 깨버리고 온다. 또 아이가 장성하면 아기구덕(요람)을 당에 가지고 가서 버리기도 한다.

(4) 위치 및 형태

① 위치 : 서김녕 입구 ᄂᆞᄆᆞ릿동산에 위치하여 ᄂᆞᄆᆞ릿당이라고도 한다.

② 형태 : 역시 돌담으로 에워싸여 있으며 바닥에는 '사금파리'가 있다.



〈일뤳당〉

5) 서문 할망당

(1) 神名 : 윤씨 하르방, 미륵보살 할망·하르방, 서문 할망·하르방, 개하르방·개할망, 천왕불도, 지왕불도, 인왕불도, 명진국 서개산 여리(如來)신게 칠십 삼 보살.

(2) 職能 : 祈子

(3) 내력담 :

> 윤씨 할아버지가 낚시대를 들고 고기를 낚으러 갔는데 고기는 안 걸리고 큰 바윗돌만 자꾸 올라오고 올라오고 하였다. 그 돌이 자꾸만 올라와서 윤씨 할아버지가 이상하게 생각하고 있었는데, 어느 날은 미륵보살 하르방·할망이 現夢하였다. 그런 후에 그 바윗돌을 '서문'이라는 곳에 모셔 놓고 조상으로 모시게 되었다. 그 후 자식 낳기를 바라는 사람들이 거기에 가서 기원을 하면 자손을 얻게 되었다.

여기에서 一家守護神이었던 신이 자손들이 계승해 감에 따라 그 신앙민이 증가하고, 공동 제장인 당이 설립되면서 부락 단위의 신으로 전화한 예를 보게 된다.

(4) 특별한 제일은 없다. 적당한 날짜를 택일하여 제물을 차리고 심방과 함께 가서 기원한다. 심방이 수룩치면서[55] 가지껭이 바랑[56]으로 점을 친다. 바랑이 두 개 모두 자빠지면 딸이고, 두 개 모두 엎어지면 아들이고, 하나는 자빠지고 하나는 엎어지면 더 공들여야 한다고 판단한다.

제물은 시루떡, 메, 실과, 일곱자 걸렛배, 바락끈,[57] 지전, 실 두 가름, 채소, 해어 등인데 이렇게 한 번 차리고 갔다 오면 그 다음 번에 갈 때도 같은 양, 같은 종류의 제물들을 가지고 가야 한다.

産神에 대한 祈子儀禮인 불도맞이를 하는 경우에는 그 규모나 절차가 크고 복잡하지만, 서문에 가서 祈子에 대한 공을 드릴 적에는 간소하게 지낼 수 있다.

(5) 위치 및 형태

① 위치 : 서김녕 포구

② 형태 : 돌담으로 에워싸여 있으며 특이한 형태의 바위를 모셔 놓고서

---

55) 자식 얻기를 기원하면서.

56) 가지껭이 : 놋사발 두껑. 바랑 : 본래는 '바라'인데 놋사발 두껑 두개로 대용한다. 따라서 가지껭이 바랑은 놋사발 두껑으로 하는 '바라'이다.

57) 삼색천.

그것을 미륵보살 할망·하르방이라고 한다.



〈서문할망당〉

6) 한개, 세개

한개는 서김녕 바닷가에 위치하고 있으며 가는 선(船), 오는 선을 차지하고 있어 배를 타거나 어업을 하는 사람들이 배코ᄉᆞ를 지낼 때에는 거기에 가서 한다.

세개는 동김녕 멸치 어장(자자구터)에 위치하고 있으며 한개와 마찬가지로 배를 띄울 때나 어업을 시작할 때 안전을 기원하는 곳이다.

한개와 세개는 어부, 해녀, 어선 등의 海上 일들을 관장하고 수호한다고 해서 어민이나 해녀의 집안에서는 이 당신에게 수시로 해상의 안전과 풍어를 빈다.

3. 그물코ᄉᆞ

1) 과거의 그물코ㅅ(海神祭)[58]

그물코ㅅ는 해변의 모래밭이 있는 해촌에서 멸치의 풍어를 비는 제의이다. 봄이 되면 멸치 떼가 해안에 밀려 들고 모래밭이 있는 해촌에서는 방진망으로 이를 잡는다.

漁網의 契를 '그물접'이라 한다. 과거 동김녕리에는 '청굴접', '신산접', '아락접', '고봉개접' 등 4개의 접(4個網이라고도 함)이 있었다.

하나의 접이 멸치 잡이를 할 때에는 당선, 망선, 닻배, 테우가 동원된다. 당선은 고기 떼가 어느 방향으로 오는가 살피는 정찰선으로 맨먼저 바다에 나간다. 당선이 그물을 칠 수 있는 장소에 도착하면 뭍으로 신호를 보낸다. 그러면 당선의 지시에 따라 망선, 닻배, 테우가 줄줄이 출동한다. 닻배는 닻줄을 싣는 배로 뭍에서 가까운 곳에 위치하고, 망선이 이 닻줄을 끌고 바다로 나간다. 닻줄은 약 300여 m인데 망선이 닻줄을 끌고 나가다가 닻줄이 다 나간 지점에 도착하면 그물을 투망하여 고기 떼가 있는 현장을 완전히 포위한다. 그런 후에 그물 양쪽을 뭍쪽으로 당겨 와서 뭍에 닿으면 고기가 도망가지 못하게 그물 양쪽 끝을 연결해 둔다. 연결한 후 밤에 날씨가 좋지 않으면 그물을 좁히면서 고기를 건져 올려버리고, 날씨가 좋을 듯하면 다음날 아침에 고기를 건져 올리기도 한다. 작업시 테우는 중간 중간에 위치하면서 그물을 끌어올 때 도와 주기도 하고 그물 안에 들어 가서 고기를 건져 올리기도 한다. 대강 이렇게 멸치 잡이를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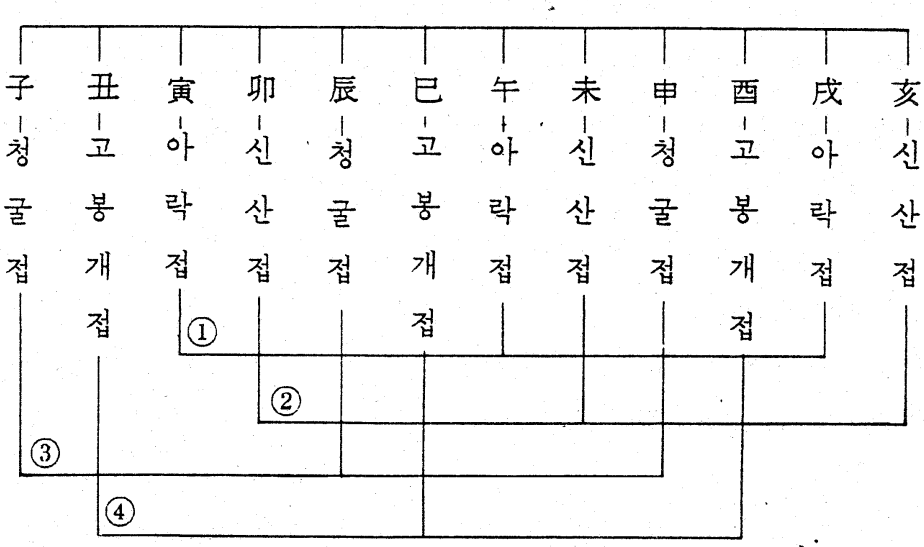
작업 후 분배는 '직'대로 한다. 網主 한 사람에 한 '직'을 기준으로 하여 망선은 다섯 직, 닻배는 세 직, 당선은 두 직 반, 테우는 반 직씩 분배한다. 그물코ㅅ 비용은 공동 판매한 수입에서 우선 마련하여 둔다. 공동 분배에서 '직'대로 분배하였듯이, 그물코ㅅ 비용도 '직'의 비율 만큼 부담하게 된다.

멸치 잡이 철이 되면 동김녕의 4개 접은 미리 정한 투망 날짜의 순서에 따라 작업을 한다. 투망 날짜는 각 접에서 고기 잡을 권리가 있는 날짜를 말한

58) 金鎭圭(男, 57세)씨의 제보와 玄容駿 교수의 보고서(民俗資料調査報告書, 部落祭堂, 文化財管理局, 1969.12.)를 참고하였다.

다. 4개 접으로 나누어져 있기 때문에 12일(12支)을 4등분하여 3일씩 묶는다. 즉 12支에서 4일씩 걸러 ①寅午戌 ②亥卯未 ③申子辰 ④巳酉丑으로 묶는다. 이렇게 나누면 각 접의 투망 날짜는 위 4가지 경우에서 어느 하나가 된다. 그러므로 각 접은 12支에서 3일씩 권리가 있게 되는 것이다.

예를 들면 다음과 같다.



①寅午戌 투망…아락접, ②亥卯未 투망…신산접, ③申子辰 투망…청굴접, ④巳酉丑 투망…고봉개접.

이런 식으로 하면 고기 잡을 투망 날짜가 4개 접에 고루 분배되는 것이다. 고기가 많이 밀려 와서 하루에 선진, 후진 작업을 하게 될 경우도 있다. 이 때가 만약 위의 예에서 ①번 아락접의 투망 날짜에 해당하면, 일차 방진을 하여 고기를 끌어 오는 선진의 권리는 당연히 아락접에 있지만, 뒷고기가 밀려 오면 후진의 권리는 ③번 청굴접에 주어 진다. ②번 신산접이 투망 날짜에 선진을 하면 ④번 고봉개접이 후진의 권리를 갖는 것도 마찬가지이다.

4개 접의 투망 순서는 그물코ᄉᆞ(海神祭)와 酺祭를 지내기 전 포제청에 모여 정한다. 포제 제관들과 4개 접 대표들이 모여 상 앞에 향을 피우고 4개 접 대표들이 배례하고 술잔을 각기 올린다. 그런 간단한 의식이 끝난 후에 4개망 대표 중 가장 연령이 많은 사람부터 투망 날짜가 적힌 봉투를 하나씩 뽑아 든다. 그리하여 각 대표들이 뽑아 든 날짜가 그 접의 투망 날짜가 되는 것이다.

그물코ᄉᆞ(海神祭)는 정월에 택일하여 지내는데 4개 접이 따로 지낼 경우에는 각 접의 투망 날짜에 맞추어 택일하고, 4개접이 같이 지낼 경우에는 '寅午戌' 날을 택한다. 그 이유는 '寅午戌' 때가 물 때가 좋기 때문이라고 한다.

그물코ᄉᆞ(海神祭)에 대한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祭名 : 그물코ᄉᆞ(網告祀) 또는 海神祭라 한다.

(2) 祭日 : 정월 택일. 저녁 7시 반경.

(3) 祭場 : 해안 그물어장 현장(동김녕 해수욕장 부근으로 속칭 '성세기'에서 함).

(4) 祭神 : 上·下壇祭가 있어 上壇神은 海神之靈, 下壇神은 諸神之靈이다.

(5) 運營組織 : '그물접'에서 제의를 주관한다.

(6) 祭官 : 初獻, 亞獻, 終獻과 兩執事 5人으로 行祭한다. 獻官은 生氣福德에 맞는 사람으로 한다.

(7) 齋戒 : 三日間 合宿 齋戒를 한다. 멸치젓, 돼지고기를 금한다.

(8) 祭儀 : 上壇祭와 下壇祭가 있다.

① 上壇祭

가. 祭物 : 메 4器(숟가락을 안쓰고 향가지를 두 개씩 꽂음), 五果, 乾魚, 미나리채, 미역채, 전복, 甘酒, 玄酒(井華水), 淸酒, 幣帛(마포 1필), 毛血, 돼지犧牲 등.

나. 陳設 : 바다를 뒤로 하여 祭床을 세우고 위의 祭物을 陳設한다.

다. 祭次 : 笏記 부름이 없이 三獻官이 四拜, 初獻이 三上香 獻幣, 甘酒 獻爵을 하고, 祝官이 讀祝, 亞獻이 玄酒 獻爵, 終獻이 淸酒 獻爵하면 撤籩하고 下直拜禮하여 焚幣하면 끝이 난다. 이것이 本祭요 이 후에 '지묻음'이란 것이 있다. '지묻음'이란 이 上壇祭를 지낸 犧牲의 머리를 창호지에 싸고 毛血을 싸 들고 하여 배를 타서 약 200m 바다에 나가 이것을 물 속에 던지는 것이다. 이 '지묻음'을 하러 가는 사람은 '말명(祝言)'이나 잘 하는 사람을 골라 보내는데, 이 사람은 배를 타고 나가 "今年 海神 龍神들이 도와서 漁場 잘 되게 해 주십사"는 祈願을 하며 돼지 머리와 毛血을 바다에 던지고 돌아 온다.

② 下壇祭

가. 祭物 : 上壇祭에 올리는 것을 모두 올리지만 床 발을 지워 얕게 排

設한다. 단, 메는 밥그릇에 따로 따로 올리는 것이 아니라 큰 양푼 하나에 가득 떠서 그대로 올린다.

나. 祭官 : 上壇祭의 亞獻이 혼자 獻官이 되고 兩執事가 서서 行祭한다.

다. 祭次 : 獻官이 拜禮 三上香하고 獻爵한다. 술잔은 자그마한 종지를 쓰는데 獻官이 드리는 잔을 執事가 받아서 멧밥 양푼 둘레에 올리고 그 잔 앞에 숟가락을 하나 꽂는다. 다시 獻官이 술잔을 드리면 받아 양푼 둘레에 올리고 그 잔 앞에 숟가락을 하나 꽂는다. 이렇게 술잔이 계속 30여 개 멧밥 양푼 둘레에 올려지고 숟가락도 술잔 수대로 양푼 둘레를 돌아가며 꽂혀지는 것이다.

그런 후 讀祝하고 '잡식'을 한다. '잡식'이란 床에 올린 各種 祭物을 그릇에 한 술씩 떠 놓아 해변에 내려가서 漁場 잘 되게 해 달라는 祝言을 하며 숟가락으로 祭物을 떠서 바다에 던지는 것이다.

③ 각 배의 고사(告祀)

위 祭儀에서 上壇祭가 끝나고 下壇祭를 지낼 때에는 각 배에서 고사를 지낸다. 이 祭儀는 각 배(망선, 닻배, 당선, 테우)의 선주와 선원들이 지낸다. 배의 선왕(船神)을 모신 곳에 제물(메 1기, 해어 1마리, 돼지 다리 1, 제주)을 올려 배례를 하고 한참 있다가 향을 피우고 술잔을 따라 올린다. 그런 후에 술잔에 제물을 조금씩 떠 놓아 바로 앞바다에 던지면 제가 끝나는 것이다.

이 제의는 배와 선원들의 해상 안전과 어업의 풍요를 기원하면서 정성을 드리는 것이라 할 수 있다.

이렇게 上壇祭와 下壇祭, 각 배의 고사를 지내고 나면 모든 제물들을 한 곳에 모아 놓고 해안 제장에서 음복한다. 음복하고 나서 제물은 나누어 가진다. 이 때에도 '직'수대로 나눈다.

위와 같이 '접'에서 지내는 그물코ᄉᆞ는 현대식 장비로 어업을 하고 방진망이 없어짐에 따라 접의 조직도 축소되면서 지금은 행해지고 있지 않다.

하지만, 여전히 배를 운영하고 어업을 하는 사람들은 매년에 한 번 그물이 바다에 들어가기 전에(어로를 시작하기 전에) 그물코ᄉᆞ를 한다.

2) 현재의 그물코ᄉᆞ[59]

여기에 소개하는 그물코ᄉᆞ는 현재도 행해지고 있는 것 중의 하나이다.

(1) 祭名 : 그물코ᄉᆞ

(2) 祭神 : 선왕(船神), 요왕(海神), 바다에서 죽은 無主孤魂의 靈들.

(3) 祭日 : 3월 중 선원들의 연령을 보아 生氣福德에 맞는 날로 택일한다.

(4) 祭場 : 船內에서 지낸다. 날씨가 좋으면 바다에 나가 하지만 날씨가 좋지 않으면 바닷가에 배를 띄우고 지낸다. 배에서 제를 지냄과 동시에 서김녕 포구 '한개(堂)'에서도 따로 제를 지낸다. 한개에서 지내는 제는 포구신을 위한다는 의미에서 한다.

(5) 祭儀 : 제의 집행은 선주가 불러 온 심방이 한다. 제물은 돼지 전마리(또는 돼지 머리), 폐백(광목, 백지, 삼색천), 과일 등을 올리는데 상단에는 메 9기, 하단에는 메 1양푼을 올린다.

제가 끝난 후에는 어장과 배의 안녕을 기원하며 돼지머리를 종이(紙)에 사서 바다에 던지는 '지(紙)드림'을 한다. 지(紙)는 제물을 싸서 바다에 던지는 것으로 海神에게 드리는 '요왕지', 바다에서 죽은 先祖 영혼에게 드리는 '요왕조상지', 자신을 위하여 드리는 '몸지' 등이 있다.

이러한 제의는 심방을 불러 巫式으로 지내기도 하지만 제를 지내는 사람에 따라 여러 방식으로 행해진다.

Ⅲ. 公 認 宗 教

김녕리의 공인 종교로서는 불교와 기독교가 있다. 불교인 경우에 두 곳에 사찰이 있다. 서김녕리 남흘동에는 백련사(大韓佛教 曹溪宗 白蓮寺)가 있고 동김녕리 동성동에는 금룡사(大韓佛教 曹溪宗 金龍寺)가 있다. 이 사찰들에는 김녕 주민들은 물론 타마을의 신앙민들도 많이 찾아 간다. 김녕 주민들은 불교

59) 제보자 : 姜東雨(男, 48세), 서김녕리 965.

를 믿으면서도 무속 신앙을 지니고 있어 巫佛混合의 信仰 形態를 이룬다.

기독교는 장로교회와 천주교회가 있다. 장로교회에는 목사와 전도사가 있지만, 천주교회인 경우는 주일마다 제주시의 본당 신부가 와서 미사를 행한다.

Ⅳ. 結　　語

지금까지 부락제를 중심으로 김녕리 신앙의 여러 형태를 정리해 보았다.

儒式部落祭로서 酺祭는 남성 중심으로 행해지고 있으며, 한 해를 시작하면서 마을 공동의 안녕을 기원하는 의례이다. 酺祭가 차지하는 위치가 아직도 굳건하며 마을 사람들은 이를 중심으로 뭉쳐지고 있다.

巫式部落祭인 堂祭는 여성 중심으로 행해지고 있다. 堂의 위치를 살펴 보면, 일주도로를 중심으로 남쪽에는 큰당, 궤눼깃당, 성세깃당, 일뤳당이 위치하고, 북쪽 바닷가에는 한개, 서문 할망당, 세개가 위치하여 마을은 이 堂들에 의해 에워싸여 있다고 볼 수 있다. 각 堂神들은 本鄕神, 生業守護神, 育兒 및 疾病守護神 등의 職能을 따로 차지하여 마을 사람들의 삶을 수호하거나 관장하는 神으로 모셔지고 있다. 따라서 巫俗信仰과 마을 사람들의 삶은 밀접한 관계를 맺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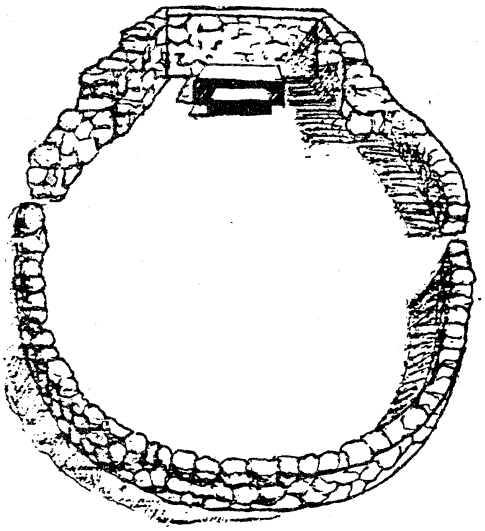
巫式部落祭 중에서 독특하게 행해지고 있는 것으로 흥미를 끄는 것은 잠수굿과 돗제라 할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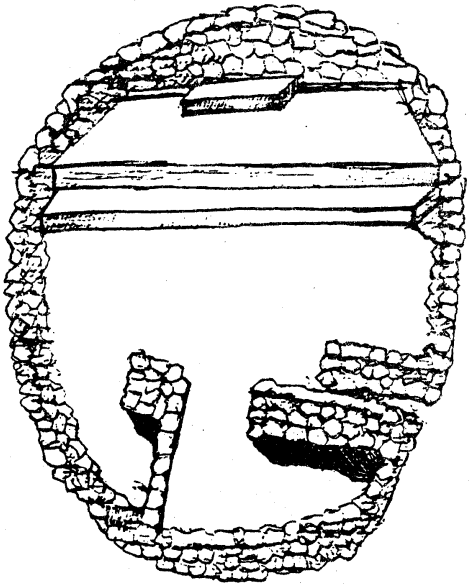
잠수굿은 종합의례의 형식을 취하는 큰 굿으로 매년 3월 8일(음력)에 행해진다. 이 굿은 마을 사람들의 경제활동과 관련된 제의로 어부나 해녀의 해상안전과 생업의 풍요를 기원할 뿐만 아니라 마을 전체의 안녕을 기원한다. 온 마을 사람들의 관심과 참여 속에서 행해지고 있어 부락제로서의 위치를 굳건히 하고 있다.

궤눼깃당에서 유래한 돗제는 가가호호에서 3~4년에 한 번씩 지내는데, 어떤 특정신을 위한다기 보다는 가내의 안녕과 이웃과의 친목을 도모한다는 점에서 긍정적으로 전승되고 있다.

그물코ㅅ는 선주와 어부들이 지내는데, 그 방식은 다양하다. 과거 동김녕리의 4개 접에서 하였던 그물코ㅅ는 '멸치잡이' 그물을 바다에 들이기 전에 어장의 풍요를 기원하며 크게 지내였던 것인데 '방진망'이 없어지고 접의 조직도 해체되면서 15여 년 전부터 지내지 않고 있다. 그러나 배를 운영하거나 어업에 종사하는 사람들은 매년 어업을 시작하기 전에 그물코ㅅ를 지내며 매달 초하루와 보름에도 간단한 제를 지내어 바다에 의존하는 삶에 안녕을 빈다.

이상에서 살펴 본 김녕의 부락제들은 여러 형태로 행해지고 있으며 마을의 결속을 다지는 기능을 하고 있다. 그러한 점에서 긍정적으로 계승되고 있다 하겠다.





1	2
3	4

1. 동김녕리 포제단
2. 성세깃당
3. 큰당
4. 서문 할망당

